

강원학 연구보고 7

강원 서출 여성들의 삶과 문학세계 연구

A Study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the
Women born of concubine in Gangwon
Province

강명혜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학 기초토대 연구 주제로 적합한 6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한 편인 「강원 서출 여성들의 삶과 문학세계 연구」는 이옥봉, 김금원, 박죽서 등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의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서출 여성 문인의 계보화를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남성위주의 가부장제가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는 여성들의 역량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교육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규방교육 외에는 교육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들은 잠재된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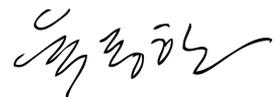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여성이면서 서출이라는 이중적 결핍을 저항적 세계관으로 표출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준 이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강원도 서출 여성문인인 이옥봉, 김금원, 박죽서 등의 각각의 삶의 족적과 작품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출 여성 문인의 공통점과 변별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특정 인물에 한정하여 개별 연구되어 오던 강원도 여성 문인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강명혜 선생님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I. 서언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론	3
3. 연구내용 및 범위	6
II. 강원 서출 여성들의 삶의 미학적 특징	11
1. 이옥봉-실존과 욕망의 시학	11
1) 착종된 준 영웅	11
2) 실존과 욕망의 시학	27
2. 김금원-긍정과 밝음의 미학	45
1) 원망(願望)과 실현이 직조된 삶	45
2) 긍정과 밝음의 미학	55
3. 박죽서-비관적 에피파니의 미학	87
1) 위축과 외로움 속에서 터득한 철학적 삶	87
2) 에피파니의 미학	93

Ⅲ. 강원 서출 여성 문인의 공통점과 변별점	109
Ⅳ. 마무리	127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그림 목차

<그림 II-1>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56
<그림 II-2> 죽서유고(竹西遺稿)	91

요 약 문

본 연구는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삶은 어떠했는지, 각 작품 내용과 시적 특성은 무엇인지, 이들 서출 문인 여성들의 작품의 공통점과 변별점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서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서출 여성 문인 계보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연구 대상은 이옥봉, 김금원, 박죽서이다.

우선, 옥봉의 삶의 궤적, 즉 출생, 결혼, 결혼 파기, 비장한 죽음 등을 천착한 결과 옥봉은 준 영웅 해당되는 삶을 살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옥봉의 객관적 측면보다는 옥봉의 내적 욕망에서 기인하는 점이 컸다. 즉, 옥봉의 욕망은 심층적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이나 하는 일, 즉 관료의 삶을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자각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은 ‘사람-문명인(조선인)-남자-부귀함’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조건임을 내세우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극렬하게 표출했다. 그녀의 욕망은 한 인간으로서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것인데 착종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함에 상당히 실망하고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었다. 사회적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여성들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반면, 죽서는 소극적인 성품으로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현실적 장벽을 객관적으로 의식하면서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반영했다. 이런 점에서 호도 반아당(半啞堂)이라고 지었다. 그 외 죽서는 고향을 향해 끊임없는 미련을 보이고 집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죽서에게 고향은 부평초 같은 그녀를 뿌리내리게 했던 장소이며, 나그네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작품 세계를 보면 옥봉 작품의 특징은 1) 형이상학적 욕망과 현실과의 교차점, 2) 시공간 응축 및 확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은 자신이 언급한 부조리적 상황과는 달리 작품을 관통하는 특징은 ‘긍정과 밝음의 미학’으로서, 다양한 장르와 섬세한 표현, 긍정적 마인드와 현란한 색채 기법을 보이고 있었다. 거기에 비해 죽서는 ‘에피파니의 미학’으로서, 허무적 달관 철학, 시인의 의무 및 자긍심, 나그네 의식 및 향수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1) 고향이 강원도이거나 강원도에서 살았던 문인 2) 서출 3) 소설로서 자녀가 없음 4) 뛰어난 능력의 문인 5) 부친의 절대적 지지 6) 그녀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모두 글 쓰는 능력으로서, 이는 조선조 선비 못지않은 지성을 갖추었다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의 변별점으로는, 1) 자아나 성격 형성에 부친의 지위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옥봉 부친은 왕족이었기에 옥봉은 왕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 금원의 부친은 지위가 상당한 양반층으로 추정되며, 조선조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다. 죽서 부친은 한미한 양반으로서 죽서는 매사에 소심한 편이었다. 2) 성품 측면으로 볼 때, 옥봉이 가장 적극적인 성품이었고, 그 다음 금원, 죽서 순이었다. 3) 옥봉의 자존감은 당대 시대에서는 용납되지 않았기에 결국은 비극적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은 유연한 처세술로 안온한 삶을 끝까지 영위했으며, 죽서는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허무 의식에 사로잡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녀들은 공통점과 변별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녀들은 모두 이중적 결핍을 지닌 가운데 저항적 세계관을 각자의 방법대로 표출하면서, 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삶을 치열하고도 당당하게 살았던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었다.

I 서언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살아 있는 존재의 당위적 조건 중 하나는 편안, 안온한 삶이다. 특히 인지 능력이 뛰어난 인간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편안과 안온을 느끼며 사는 것에는 최소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인정받음과 힘의 행사 여부가 전제된다. 비록 의식주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과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들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 계층에 속하며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존재들을 소수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수자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은 소수와는 거의 상관이 없으며 권력을 갖지 못한 계층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다.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중심 집단과 변두리 집단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고대에는 상하 집단이 정해져 있었고 지식과 교육이 수반되지 않은 미개 상태라 소수자 개념이 비교적 흐릿했다. 근대의식이 싹트면서 비로소 소수자들은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차이는 결핍을 강하게 느끼고 중심부에 속하고 싶은 욕망으로 잠재되거나 표면화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기는 조선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인식에서 비롯되는 차별의식이다. 조선조에서 소수자는 여성, 서얼, 하인, 중인, 광대, 백정, 무녀 등 다양하다. 하

지만 이 중에서도 지적 측면에서는 중심세력과 변별되지 않은 소수자의 결핍과 불만 요소는 극대화된다. 여기에 속하는 부류는 상층교육을 받은 일부 여성과 역시 상층교육을 받은 서얼층 등이다. 이들은 중심세력에 ‘속하기’나 ‘되기’를 시도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문학 활동이다. 들뢰즈는 삶의 권력에서 탈주하여 해방되어 있는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보며, 이것은 소수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들의 예술 표현은 기존 예술의 척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탈주선을 그리기 마련이라고 하고 있다. 즉 소수자들의 작품은 소수자-되기의 흐름과 접속할 때 비로소 저항으로서의 예술을 완성한다.

조선조 여성 문인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소수자이며, 그 작품은 소수자 문학에 해당한다. 당대의 중심세력은 사대부 남성이기 때문이다. 한문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시기였기에 이 시기 여성 문학의 존재는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것이었다. 이들은 수적 차원에서도 소수집단 문학이며, 변두리 신분이라는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소수자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양반 남성 서얼, 기녀, 서출 여성들이 해당되지만 특히 여성 서출층은 이중 결핍에 놓여있는 인물들로서 가장 불평등한 가치를 경험한 소수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로서의 여성이 지닌 불평등에 노출되는 한편 서출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서로 겹치면서 그녀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는 몇 배 더 무거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자의식은 누구 못지않기에 현실적 사회구조 속에서 받는 불평등은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것이다. 비록 몇 명밖에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만큼 그녀들의 족적은 뚜렷하고 확고한 주관을 투영한다. 여성 서출 문인은 대표적인 인물로 김금원(金錦園), 박죽서(朴竹西), 경춘(瓊春), 이옥봉(李玉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렇듯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여성 서출들은 특이하게도 강원도 출신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중 이옥봉은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와서 살았고 작품이 영월이나 삼척과 관련된 작품이 있기에 강원도 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설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 각각의

작품 내용과 시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이들 서출 문인 여성들의 작품의 공통점과 변별점은 무엇인가? 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나아가서는 서출 여성 문인의 계보화를 이룩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여성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 중 하나로서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이들 사회적 소수자였던 서출 여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논의는 일부 있었지만 이들을 한 계통으로 분류화시켜서 살핀 기존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필요요건은 충분하다. 또한 이 연구는 여성 문인들이 얼마 되지 않은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의 삶의 족적이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서출 여성 문인들의 특성까지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사실 강원 서출 여성 문인들은 우리나라 서출 여성 문인 전체를 질이나 양적으로도 대변할 수 있는 비중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여성 서출 문인들의 특성이나 작품 특징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방법론

■ 연구 배경

강원도 여성 문인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거나, 산발적으로 한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루어졌던 것이 그간의 연구 경향이었다. 이를테면, 신사임당, 허난설헌, 윤희순, 임윤지당, 김금원 등 한 인물에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 연구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며, 이와 같은 연구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계보를 다루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즉 강원도 여성 문인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일목요연하게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보를 형성하는 것에는 지역적으로 묶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장르로 묶어서, 작자군으로 묶어서 살필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분에 주목해서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은 그녀들의 업적에 비해 양반층 여성 문인보다 주목을 덜 받는다는 점도 주목하는 이유이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출 여성 문인 5-6명 중 4명이나 강원도 출신 서출 여성 문인이, 그것도 가장 우수한 여성 문인에 속하는 부류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강원도는 예전부터 예향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유독 강원도 출신 서출 여성 문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서출 여성 문인은 김금원, 김경춘, 이옥봉, 박죽서가 해당된다. 이 중 김경춘은 작품이 남아 있지 않기에 나머지 세 여성의 삶의 족적, 즉 그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하는 생애 부분과 작품의 특징을 개인별로 살핀 후 이들을 서로 비교, 대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접근방법론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변별되는 점은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을 하나로 함께 묶어 계열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간 작가 각 개인에 대한 개별적 연구와 김금원이 서울서 만든 시 모임인 <삼호정시단(三湖亭詩壇)>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서출 여성 문인, 그것도 강원도 서출 문인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한 바는 거의 없다. 이런 점들이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다.

서출 여성들이라는 공분모적 매개항을 지닌 인물들인 만큼 사회적 ‘소수자’라는 측면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들뢰즈는 삶의 권력에서 탈주하여 해방되어 있는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보며, 이것은 소수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들의 예술 표현은 기존 예술의 척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탈주선을 그리기 마련이라고 하고 있다. 즉 소수자들의 작품은 소수자-되기의 흐름과 접속할 때 비로소 저항으로서 예술을 완성한다.¹⁾ 이 ‘되기(=생성)’는 결코 관계 상호 간 대응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도, 모방도, 더욱이 동일화도 아니다. 되기는 계열을 따라 진보하는 것도

1) 들뢰즈·가타리, 조한경 옮김(1992),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카프카론」, 문학과지성사, 33-39쪽.

아니고 퇴행하는 것도 아니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모방하든지 아니면 그저 그대로 있든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은 잘못된 양자택일 것이다. 실제적인 것은 되기 그 자체이지만 그것은 소수자들의 기대 지평일 뿐 착종된 현실에서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이 이들 서얼 문인들은 들뢰즈의 견해처럼 권력에서 탈피하여 자신들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다. 각자의 예술세계는 그들 소수자한테는 하나의 탈출구이며, 감정을 추스르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돌파구가 되었다. 특히 남자 서얼층 문인에 대한 연구는 약간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 서얼층 문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존 논의를 살펴보자면, 강원도 여성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면서 이들 서출 출신을 다룬 논문에는 강원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강원여성시문집과 박미현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²⁾ 한 개인을 다룬 논문에는 김미란, 김경미, 신경숙, 박혜숙, 안난옥, 이효숙, 차옥덕³⁾ 등이 있다. 삼호정시단에 대해 다룬 논문도 여러 편 축적되어 있다.⁴⁾ 이렇듯이 이들 여성에 대한 개별적 연구나 시단에 대한 연구는 일부 시도되었지만 이들을 하나의 서출 여성 집단으로 보아서 연구된 바는 없다.

-
- 2) 강원도 편(1998), 「조선시대 강원여성시문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 박미현(2008), “江原女性史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 3) 김미란(1996), “朝鮮後期 女流文人 研究”,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 안난옥(1999), “김금원의 <호동서락기>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차옥덕(1999), “김금원의 詩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 신경숙(2000), “고전시가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신경숙(2002), “규방가사 그 탄식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 박혜숙 외(2002), “한국여성의 자기 서사”, 「여성문학연구」 7-9, 한국여성문학학회. ; 박혜숙(2002),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 손앵화(2004), “조선조 여성 되기의 새로운 모색-김금원의 「호동서락기」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39, 국어국문학회. ; 이효숙(2010), “<湖東西洛記>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이혜순·정하영 역편(2017),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 이화여대출판부. ; 이효숙(2017), “조선후기 여성 문인의 시사와 김경춘의 비평”, 「우리문학연구」 53, 우리문학회.
- 4) 김지용(1977), “삼호정시단의 특성과 성격”, 「아세아여성연구」 16, 아세아여성문학회. ; 김경미(2001),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 시사”, 도서출판여의연. ; 심경호(1998),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학 활동”, 「민족문화연구」 3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장인애(2007), “삼호정여인들의 한시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25집, 세종어문연구회. ; 양희(2008), “三湖亭詩壇의 漢詩 研究”, 중부대 박사학위논문.

사실 여성 서출층은 이중 결핍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다. 젠더로서의 여성이 지닌 불평등에 노출되는 한편 서출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서로 겹치면서 그녀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는 몇 배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녀들의 자의식은 어느 누구 못지않기에 현실적 사회구조 속에서 받는 불평등은 보다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것이다. 비록 몇 명밖에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만큼 그녀들의 족적은 뚜렷하고 뚜렷한 주관을 투영한다. 전통적으로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저항이 결코 권력의 외부에 머물지 않음을 의미한다. 권력 관계는 다양한 저항의 지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존재하는데, 이 저항의 지점은 권력망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저항의 지점에 조선조 여성 서출 문인들도 함께 했으며 그 주축은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이었다. 소수자들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들뢰즈나 르네 지라르의 욕망과 결핍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녀들의 작품 텍스트를 분석해 보고 그녀들의 삶의 족적을 통해 텍스트와 컨텍스트간 관계망 속에서 미학적 특성들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인 김금원, 이옥봉, 박죽서이다.⁵⁾ 이들 여성들의 공분모적 특징은 서출이라는 점과 모두 양반 소실로 시집갔다는 점, 그리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서출은 양반의 정실이 되기 힘들었기에 거의 소실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서출은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는 기녀나 천민, 혹은 하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태생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자식들은 반쪽짜리 양반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이 엄격해서 아버지의 신분이 아닌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다. 어머니가 기녀인 자녀는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기녀로 거의 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렇게 볼 때 세 여성 중 기녀 생활을 했던 금원의

5) 이 글에서 사용한 번역은, '하응백 편저(2009), 『이옥봉의 몽혼』, 휴먼 앤 북스 ; 허경진 엮음(1990), 『玉峯·竹西 詩選』, 평민사. ; 최선경(2013), 『호동 서락을 가다』, 옥당. ; 이능화, 김상화역, 『조선여속고』, 대양서적, 1978. ; 김풍기(1998), 『박죽서의 삶과 문학세계』, 『조선 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 김소원·권태연·이영춘(2012), 『역사 속 원주의 여성인물』, 원주문화원 등을 참조함. 특히 기행문 부분은 최선경 해석본을 주로 인용함. 시 해석은 이경수 교열함.

경우 엄마가 기녀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출이라도 아버지 신분이나 아버지의 이념, 소실 자녀에 대한 애정도에 따라서 소실들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서출들의 운명이었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출 여성 문인들은 그나마 다행히 부친의 사랑과 교육하에서 양육되었기에 글을 배우고 학문을 닦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이옥봉의 부친은 왕족으로서 이옥봉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옥봉은 상당히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여성이다. 이옥봉은 김금원과 박죽서와는 시대적 차이가 250여 년의 간극이 있기에 이옥봉의 당당함을 시대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 전기는 고려의 유습이 남아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조선조 중기보다는 조금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옥봉이 살았던 1500년대에도 고려와는 상당히 변별되는 것이 옥봉이 내쳐지는 이유가 옥봉이 ‘글을 썼다는 이유’ 이기에 이는 결국 조선조 전기나 후기나 여성의 지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이 조선조 여성들에게 시간적 간격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 여성을 하나로 묶는 당위적 요건은 충분하다. 비록 남편한테 내쳐지는 수모를 겪기는 했지만 당당한 목소리를 내며 살았던 여성 문인이 바로 이옥봉이다. 옥봉은 어려운 백성을 위해 글을 써주었다가 내쳐진 만큼 본인이 양반 남성을 넘어서 정사나 관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음이 그녀의 글에 나타난다. 따라서 옥봉의 가치관과 당대 현실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녀를 비극적 결말로 몰고 간다. 모든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퍼스나(가면)를 쓰고 자신의 의지나 인생관이나 할 이야기를 한다. 특히 시 장르는 짧은 분량에 많은 것을 담아야 하기에 응축과 수렴은 필수적이다. 이옥봉과 박죽서는 시작을 주로 했기에 그녀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간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들의 작품 해석은 청자로서 엿듣기를 해서 파악해야만 한다.

거기에 비해 금원은 장르가 서사였기에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글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사람-문명인(조선인)-남자-부귀함’이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극렬하게 인식하고 이를 표출한다.

그녀의 욕망은 한 인간으로서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것인데 착종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함에 상당히 실망하고 이러한 점을 표면적으로 토로한다. 사회적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여성들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 그녀는 자신이 조선에서 태어난 한미한 여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세계에 대항한다. “내가 태어날 제 금수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한 우리나라에 태어남이 다행스럽다.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竊念吾之生也, 不爲禽獸而爲人幸也, 不生於薙髮之域而生於吾東文明之邦幸也. 不爲男而爲女不幸也, 不生於富貴而生於寒微不幸也).”⁶⁾ 성별, 사회 계급적인 면에서 남성과의 차이를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소수자임도 파악하고 있다. 금원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한 뒤, “여자로 태어났으니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걸고 경법을 삼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다가 이름이 없어져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만스러운 것은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여행하지 못하는 문제였다.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실망한 금원이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타파할 길을 찾는다. 따라서 금원은 남복을 하고 14세가 되던 해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명승지를 탐승한다. 당대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만큼 호방한 성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금원은 기행시를 여럿 남기게 된다. 그 후 박죽서, 운초, 경춘, 경선 등 여성 시인들과 삼호정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종종 어울렸는데, 이들은 모두 소설들로서 양반 여성과는 또 다른 주변적 존재들이었다. 박죽서가 ‘반병어리’라는 뜻의 ‘반아당(半啞堂)’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것도 서출 출신으로 소설이 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를 자조적으로 비꼬았음을 반영한다. 중심세력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만든 공간은 그 자체로 전복적, 탈이탈적인 것이었다.

6) 김금원(2003), 『호동서략기』. ;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 이화여대출판부, 374쪽.

만약 이옥봉이 자신의 의지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술할 기회가 있었다면 금원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강렬하게 자신의 글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 설화적 성격이 강하지만 설화는 역사의 또 다른 언술방식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 속 주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두 여성에 비해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죽서는 두 여성에 비해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고, 그 안에 자신의 인생관이나 삶의 태도 등이 투영되고 있다.

이렇듯이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음에도 또 다른 각각의 빛깔로 자신의 삶을 채색하며 살았던 이 세 여성들 삶의 족적을 살펴보고, 작품 세계를 천착해서 특징을 밝히고 이들 세 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Ⅱ

강원 서출 여성들의 삶의 미학적 특징

1. 이옥봉-실존과 욕망의 시학

1) 착종된 준 영웅

조선조 여성 문인인 이옥봉(李玉峯)은 그녀의 작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작가인 그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설화처럼 그녀를 둘러싼 배경담은 여럿 전해지고 있다. 이옥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야기도 단편 조각으로만 각각 전해지고 있을 뿐 이옥봉의 배경담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의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 논의를 출발한다.

우리의 선조 여성 문인 중에 이옥봉처럼 작가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담이 전해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조선조 여성 문인에게서는 개인마다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한 두 개씩 전해오고 있지만 그녀처럼 다양하고도 극적인 이야기가 그것도 여러 개 전해오는 경우는 유일무이하다. 극적인 배경 담을 지닌 여성 문인 중 대표적인 이는 아마도 황진이와 허난설헌일 것이다. 황진은 기녀가 된 사연이나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설이나 사실로 전해지고 있고, 허난설헌은 그녀의 짧은 생과 관련된 사연이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옥봉처럼 탄생, 결혼, 죽음, 심지어는 결혼 파탄과 관련된 사연 등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

이옥봉은 출생부터 남다르다. 왕족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점과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버지인 이봉(李逢, 1526-1595)은 양녕대군의 고손자이다.⁷⁾ 비록 문헌으로 전해오는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민에게서 얻은 딸을 대놓고 애지중지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적 이념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이봉의 옥봉 모녀에 대한 애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실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친의 함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조선조에는 보편적인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옥봉에게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봉’ 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아마도 추정컨대 엄마의 이름에는 ‘옥’ 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다. 현대에도 사랑하는 남녀가 아기를 낳았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한 자씩 넣어서 아이 이름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옥봉은 마음껏 글을 익힐 수 있었고 재기도 뛰어나서 시문을 잘 짓는 공지를 지닌 여성으로 성장한다. 자신감 넘치고 공지가 강한 여성이라는 점은 스스로 배필감을 선택한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낮은 신분으로, 그것도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선택하고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남자하고 결연을 맺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상기한다면 이러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다.

옥봉의 작품은 「가림세고(嘉林世稿)」 부록 <옥봉집(玉峯集)>에 32편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그 외 「열조시집(列朝詩集)」에 11수, 「명시종(明詩綜)」에 2수가 수록되어 있고, 「명원시귀(名媛詩歸)」, 「이옥봉집(李玉峯集)」, 「대동시선(大東詩選)」, 「동시화(東詩話)」 등에도 실려 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대략 40수 정도이다. 일설에는 시집 1권이 전한다고 하나 국내에 전해오는 문집은 없다.⁸⁾

이옥봉 작품 중 몇 편은 상당히 유명하다. 특히 <자술(自述)>(몽혼, 夢魂)과 <규정(閨情)>은 예전부터 여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대부분 수록되었고, 대중들한테도

7) 사헌부 감찰, 옥천 군수를 지냈다.

8) 허경진(2011), 앞의 책. ; 이종문,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한국한문학 연구』 47권, 한국한문학회.

널리 알려졌으며, 한시를 소개하는 대중을 위한 수많은 서적에도 이옥봉 한시들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불행했던 이옥봉의 삶과 죽음에 대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소설도 출간되었고, 여러 편의 작품이 현대 시로 재탄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옥봉과 관련된 학술논문은 몇 편 되지 않으며, 그것도 심도 있게 다룬 것은 석사학위논문 몇 편뿐이다.⁹⁾

이옥봉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룬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3편 정도인데, 이 중 한 편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이옥봉의 시 형식에¹⁰⁾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두 편의 학위논문에서는 옥봉 작품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자의 논문은 이옥봉의 시는 오언시(五言詩)가 12편이고, 칠언시(七言詩)가 18편으로 칠언시가 많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옥봉의 한시가 지니는 여러 가지 형식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¹¹⁾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학위논문이 나오기 전 이옥봉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주제와 관련된 연구만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2년 이옥봉 작품을 본격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에서는 이옥봉 시작품을, 1) 애정을 노래한 시(연정, 기다림, 이별, 고독)와 2) 사회와 자연을 노래한 시(사회, 자연)로 분류해서 살피고 있다.¹²⁾ 이어서 1999년에 나온 학위논문에서는 이옥봉의 삶을 여성과 시인으로서 구분해서 살피고 있다. 특히 이옥봉 작품을 두 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옥봉의 시작품을 자아와 세계로 분류한 후, 1) 규원과 별한의 개인적 자아[淒]와, 2) 층군과 우국의 사회적 자아[壯]로 구분하고 있다.¹³⁾ 전자의 논문보다는 심도 있게 천착했지만 이옥봉 작품 주제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논의라는 아쉬움을 지닌다. 이 두

9) 김관식(2006), “朝鮮朝 江原 女性 漢詩文 小考”, 「강원문화연구」 25. ; 박미현(2007), 「테마로 읽는 강원여성문화사」, 강원도민일보 강원여성연구소. ; 박지연(2006), “이옥봉 한시 지도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순(2005), 「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기연(1992), “이옥봉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세정(1983), “蘭雪軒 梅窓 · 玉峰 漢詩 比較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태선경(1999), “李玉峰 漢詩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0) 이광호(2011), “李玉峰 漢詩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위의 책, 7쪽.

12) 임기연, 앞의 책, 16-37쪽.

13) 태선경, 앞의 책, 36-73쪽.

논문 외에 단편적으로 이옥봉을 다룬 여타의 논의들도 대부분 주제나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다가 옥봉 작품에 대한 진위를 다룬 논문이 2011년에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종문은 이옥봉 작품에 대해 한편씩 진위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옥봉 작품이 확실히 아닌 작품 5편, 이옥봉 시가 아님이 거의 분명한 작품이 1편, 이옥봉의 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시가 3편, 다른 사람을 변개한 것이 2편, 다른 사람의 작품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6편이다. 따라서 결국 이옥봉의 시로 알려져 온 40여 편의 한시 가운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무려 17편이 이옥봉의 작품이 아님의 분명하거나 아닐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 17편에 이옥봉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자술(自述)>과 <죽서루(竹西樓)>가 사실상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변개한 것이거나 그의 작품이 아님이 확실하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 한시들을 이옥봉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진행된 기존의 연구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한 대중 서적들 가운데서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제 이옥봉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문제가 되는 17편을 일단 제외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렇게 할 경우 그의 시 세계에 대한 이해도 지금까지 알려져 온 것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¹⁴⁾

문제는 본 연구자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옥봉 자체나 그녀의 작품을 다룬 단 한편의 연구물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위를 밝힌 이종문조차 “이옥봉이 남의 작품을 변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표절이라고 몰아붙이기 보다는”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예전에는 법고(典故)나 용사(用事)가 창작의 한 사조였기에 다투어서 뛰어난 문사의 작품을 차용해서 쓰는 것이 당대의 시풍인 것이지 요즘은 사회에서 말하는 ‘표절’로 몰아갈 수는 없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작품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작품일 가능성’의 판정을 받은 작품이 실은 이옥봉의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옥봉 원전 확정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필요충분 요건에 놓여 있다.

14) 이종문(2011),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한국한문학연구』 47권, 한국한문학회, 488-489쪽.

위에서 제시된 연구에서 밝힌 이옥봉 작품의 진위를 본 연구자는 모두 인정하지 않지만 본 글에서는 일단 진위를 밝힌 작업을 참고로 해서 이옥봉 작품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축으로 하지만 그 외 아닌 듯하다고 판정이 난 작품도 한, 두 편 참조로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세계를 살피고, 이옥봉 배경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옥봉 인물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옥봉 삶과 작품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시학적 특성과 작가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옥봉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탄생부터 결연, 결연 파탄,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모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 하나, 하나 조각인 채로 기록되어 있고 풍문처럼 세간에 떠돌고 있다. 대부분은 「이옥봉집(李玉峯集)」에 수록된 「이옥봉행적(李玉峯行蹟)」과 「가림세고(嘉林世稿)」, 「지봉유설(芝峯類說)」 등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옥봉이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통시적으로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옥봉 생애와 관련된 배경담을 따라가 보면 마치 영웅담에 준하는 삶을 살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영웅’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개념을 보면 “재지와 무용이 몹시 뛰어난 사람”¹⁵⁾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영웅이란 전사적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점에서 고전문학사에서 동명왕이나 이순신 등을 영웅으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웅’에 대한 정의는 거의 고전소설에서 기본적인 유형적 틀을 지니고 있는 특정 인물을 영웅이라고 지칭하며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을 영웅소설(영웅군담류)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국가를 위해서 출정하는 인물(영웅)’ 주제 소가 반드시 삽입되고 있다. 따라서 전사적 이미지는 우리나라 영웅소설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웅은 고전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며, 또한 박제된 씨니피에도 아니다. ‘영웅’이라는 어휘의 표상성(signifiant)은 불변이지만 그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표의성(signifie)은 사실 고금동서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올바른 ‘영웅’의 개념은 공간적, 시간적 양태 속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영웅’은

15) 신기철, 신용철(1983),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당대의 컨텍스트 하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물론 ‘영웅’이라는 개념에 함유시킬 수 있는 공분모적 기본 틀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고금동서에 따른 각각의 고유성이나 이질성, 나아가서는 확장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칼라일은 영웅에 대해 “인격적 성실성과 도덕적 통찰력이라는 정신적 자질을 갖춘 위인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숭배, 찬탄할 수 있고 위대한 인간에 대한 감탄을 우리에게 부여하며, 인간 생활을 활기 있게 하는” 인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웅의 특성으로 ① 성실, 진실 ② 통찰력 ③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들고 있다.¹⁶⁾ 따라서 칼라일은 성직자, 제왕, 문인, 신 등의 다양한 영웅을 인정한다.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나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의 영웅에서도 모두 다양하고 확장된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지닌 대장부도 바로 동양적 영웅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예로부터 많은 사람이 영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영웅은 최소한 탁월한 능력, 고난, 극복, 사회적 가치라는 요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런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자는 고전문학에 표명되고 있는 여성 영웅에 대해 기존의 시각, 다른 말로 하면 헤게모니를 지닌 작가의 시각이 아닌 변두리적 시각으로 영웅을 재해석하고 웅녀, 유화, 수로를 여성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소설에 등장하는 홍계월은 유사영웅으로 본 바가 있다.¹⁷⁾

이렇듯이 확장된 의미의 영웅을 상기해 볼 때 이옥봉의 삶도 준영웅에 해당되지 않은가 한다. 일단 이옥봉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통과의례와 관련된 독특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는 모두 평범한 보통 사람과는 남다르다. 우선 탄생부터 살펴본다.

㉗ 탄생

이옥봉의 출생연도와 타계 연도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단지 기존 논

16) 토머스 칼라일, 박상일(2003), 『영웅숭배론』, 한길사, 42쪽.

17) 강명혜(2013),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 예술』 11, 한국문예연구소, 59-128쪽 참조.

의를 종합해서 이옥봉은 대략 1555년 전후에 태어나서 임진왜란(1592년) 무렵까지 생존했다고 본다.¹⁸⁾ 이 견해는 그 당시에 살았던 허균(1569-1618)이 1563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세상을 떠난 누나 허난설현과 이옥봉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는 기록¹⁹⁾을 남긴 것과도 거의 일치하고, 동시대 명나라 인물인 제갈원성도 이옥봉이 허난설현과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기록을 상기할 때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이옥봉의 생몰년도 정확하지 않고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친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다. 아버지 이봉은 종실, 즉 양녕대군의 고손자로 임진왜란 때 상당한 활약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임란 후 사헌부 감찰, 옥천 군수를 지냈다. 아버지가 왕족이기에 오늘날로 본다면 이옥봉은 왕족의 일환인 셈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사회법으로는 옥봉은 엄마의 출신을 따라야 하기에 하층민이다. 엄밀히 말하면 서출이지만, 남자 서얼들이 반쪽짜리 양반에 속했다면 여성 서얼들은 중하류에 속하는 신분에 속했음이 그 당시 엄격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엄마가 기녀이면 딸은 기녀가 되어야 했고, 엄마가 천민이면 딸도 천민에 속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상기해 볼 때 이옥봉 부친이 왕족이라 해서 옥봉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옥봉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고 특이한 경우이다. 이렇듯이 옥봉은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다. 영웅들한테 나타나는 기아 화소나 신성한 탄생까지는 아니지만 부친이 왕족이라는 특수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옥봉의 실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가림세고」 부록에 보면 ‘숙원(淑媛)’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허균의 「학산초담」에서는 ‘원(媛)’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문헌에서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숙원으로, 어떤 곳에서는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는 이름은 아닌 듯하고 단지 여성의 성 뒤에 붙여서 존칭으로 부르는 의미 정도밖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옥봉은 스스로 붙인 호이며, 호를 옥봉주인이라고 한 문헌도 있지만 호는 옥봉이 정확하다.²⁰⁾

18) 1560년을 출생연도로 보고 있거나(이종문), 1555년을 출생연도로 추정하기도 한다(임기연).

19) 허균, 「檀叟詩話」, “家姊蘭雪一時, 有李玉峯白, 卽趙伯玉之妾也.”

20) 임기연, 앞의 책, 3쪽 참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옥봉’을 스스로 붙인 호라고 하지만 하필 아버지 함자에 들어가는 ‘봉’자를 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조에는 부친과 같은 글자를 이름에 사용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봉이 ‘옥봉’으로 불릴 때는 부친 생존 시로서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을 것이기에 혹 아버지가 지어준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이봉이 옥봉 모녀를 많이 사랑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정한 애정이 밑바탕에 있었다면 그 소생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을 것이고 이름을 한 자씩 따서 호로 정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조에 딸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천출 소생인 딸의 부탁으로 직접 부탁해서 결연을 맺어주는 일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랑하는 모녀라면 가능할 것이다.

옥봉의 어린 시절은 기록된 바가 없지만 여러 문집을 통해 보았을 때 부친이 매우 사랑해서 책도 구해다 주었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 등 애지중지 키웠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배경 속에서 옥봉은 당당하고 자긍심이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옥봉의 이러한 당당함은 시 텍스트를 통해서도, 생애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㉔ 결연

영웅의 생애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은 결연담이다. 옥봉의 혼인은 조선조에서는 독특한 형태이다. 즉, 자신의 혼사를 자신이 결정한다.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자신한테 걸 맞는 배필을 스스로 고른다. 이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평범하지 않은 일이다. 이옥봉이 정한 배필은 바로 운강공 조원(雲江公 趙瑗)이다.

나의 고조부 운강공에게는 소실 이씨가 있었는데 왕실의 먼 후손이었다. … 이씨는 그 재주를 자부(自負)하여 가볍게 남에게 허락하지 않고 빛나는 재주와 문학적 명망이 한 세상에서 높이 뛰어난 남자를 구하여 시집을 가고자 했다. 그 아버지가 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그러한 인물을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다. 운강공이 본디부터 성대한 명성이 있음을 듣고 명함을 품에 품고 만나기를 청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했으나 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옥봉의 아버지는

드디어 신암(新菴) 이공의 집으로 옮겨가서 다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신암은 곧 공의 장인 이 상서(李尙書)였다. 신암이 웃으면서 허락하고, 운강공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찌하여 아무개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운강공이 “나이가 적고 명망 있는 관리가 어찌 번거롭게 첩을 두겠 습니까.”하고 대답을 했다. 신암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런 일에 거절을 하는 것은 대장부다운 행동이 아닐세’하고, 드디어 날을 잡아 데려오게 했는데 그 모습이 재주처럼 빼어났으므로 신암 도 기이하게 여겼다. 운강공이 이부랑(李部郞)으로부터 나가서 괴산군수가 되고 후에 삼척과 성 주의 원으로 제수되었을 때도 이씨가 모두 따라다녔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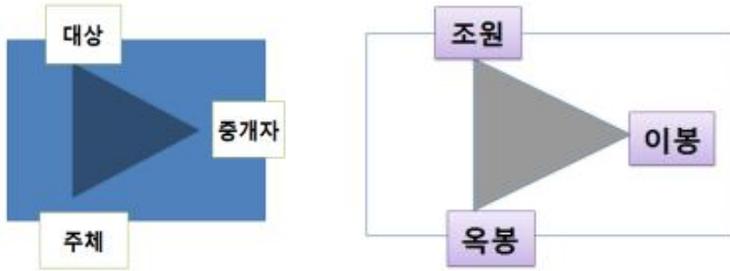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운강이 품채가 좋고 문장이 뛰어나니 옥봉이 조원의 문채 를 흠모하여 스스로 그 첩이 되고자 했으나 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 운강의 장인 신 암 이준민이 첩으로 취하라고 명을 내려 소실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²²⁾

전자의 예문에서는 옥봉이 아버지를 움직여서 혼사를 성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지 만, 후자의 기록에는 옥봉이 직접 운강한테 자신의 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이는 약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옥봉이 자신의 신랑감을 스스로 선택했고 의사표시를 했으며 여기에 중개자인 아버지가 개입해서 처음에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재차 시도를 해서 어렵게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옥봉의 욕망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 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초월은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옥봉은 욕망의 주체이며 그 대상은 운강 조원이다.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지만 대상에 의해 좌절되고 간접화된 중개자를 통해 결연 에 성공하게 된다. 이를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에 부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주체인 옥봉의 욕망은 아버지라는 중개에 의해 해소된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화 현상(médiation)이라고 한다. 즉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상승하여 중개자를 거쳐 대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화된 욕망을 ‘삼각형의 욕망’(désir triangulaire)이라고 부른다.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 음과 같다.²³⁾

21) 趙正萬, 『寤齋集』 제3권, 行狀, <李玉峯行蹟>, 이종문, 앞의 책, 7쪽 재인용.

22) 장지연, 『逸士造事』 卷之六, 233-234쪽.



옥봉이 그렇듯이 원해서 선택한 남자는 바로 조원(1544-1595)이다. 조원은 1564년(명종 19)에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1572년(선조 5)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며, 1575년 정언(正言)이 되고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었다. 1583년에는 삼척부사로 나갔다가 1593년 승지에 이르렀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또 자손의 교육도 단엄하였다고 한다. 저서로는 「독서강의(讀書講疑)」가 있으며, 유고로는 「가림세고(嘉林世稿)」가 있다. 또한 율곡 이이와 ‘과거 동기’로 율곡이 생원과 1등을 차지할 때 그는 진사과의 수석을 차지했다. “생원과 진사를 명정전 뜰에서 방방(放榜)하였다. 생원 제 1등은 이이(李珣)이고 진사 제 1등은 조원(趙瑗)이었다.”²⁴⁾고 전한다.

두 사람이 결연을 맺은 후 조원은 이옥봉을 본처보다 더 아꼈다고 한다. 조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나, 멀리 출타를 하거나 벼슬을 위해서 지방을 갈 때도 늘 옥봉과 함께 했다. 옥봉은 결혼 후에도 다른 소식이나 허난설헌 등 글을 알고 시를 짓는 벗들과 서신으로 예술적 교류를 나누었으며 조원의 모임에도 동반해서 참석했다. 조원이 친지들과 교류할 때 옥봉을 참석시켰음은 그의 친구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친구인 윤국형(尹國馨)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원이 옥봉에게 시를 짓게 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윤국형 또한 지사의 기개가 엿보이는 그녀의 시에 감탄하였다는 것이다. “기축년(1589)에 내가 새로 상주에 부임했을 때 백옥(伯玉)은 성주목사로 황급히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관사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이때 나는 백

23)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옮김(1976),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3쪽.

24) 『朝鮮王朝實錄』, <明宗大王實錄> 19년 7월 28일.

옥과 함께 그 첩(妾)이 묵고 있는 곳에 술자리를 베풀었더니 백옥은 그 첩에게 시한 귀를 지어 주라고 권하매, 이(李)[옥봉]는 즉석에서 입으로 불러 백옥더러 대신 쓰게 하였다. … 그는 시를 읊고 생각하는 동안에 손으로 백첩선(白疊扇)을 부치면서 때로는 입술을 가리기도 하는데 그 목소리는 맑고 처연해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²⁵⁾

이렇듯이 옥봉의 결연은 개체성을 인정받으며,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듯했다. 하지만 시련이 뒤따른다. 보통 인간의 삶에서 고비가 있기 마련이지만 영웅들의 시련은 더욱 비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그것은 장애와 <아포리아>를 이정표 삼아 걸어가는 과정인 것이다.²⁶⁾

㊤ 결연 파기

위기와 아포리아는 평탄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별 것 아닌 것 같은 일로부터 발생한다. 옥봉이 결연 전에 조원과 약속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조원과 결연을 하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이 맹세를 깨는 일이 야기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이는 「옥봉집」에 수록된 <이옥봉행적>과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에 수록된 내용이다.

어느 날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이웃 여자(산지기 아내라고도 함)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남의 소를 잡다가 소도둑으로 몰려 관에 끌려갔다’고 말하며 운강에게 부탁해서 “형조에 편지를 보내어 그 죄를 면하게 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씨가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감히 공에게 써 달라고 청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대를 위해서 장사(狀辭)를 써 주겠다.”하고는 곧 절구 한 편을 지어 주었다.

洗面盆爲鏡	얼굴 씻는 대야로 거울을 삼고
梳頭水作油	머리를 빗을 때는 물로 기름 대신하니

25) 윤국형(1996), 「聞韶漫錄」, 한국시화총편 제2권, 태학사.

26) 김열규(1983), 「한국문학사」, 탐구당, 83쪽. 아포리아(aporia)는 철학 용어로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을 의미한다.

妾身非織女 첩의 몸은 직녀가 아닌데
 郎豈是牽牛 어찌 제 낭군이 소를 끌고 간 견우이리까? <爲人訟冤>

형조의 당상관들이 이 시를 보고 크게 놀라, “이 장사(狀辭)는 누가 써 준 것이냐?” 하자 그 여인은 황급히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여러 당상관들이 그의 죄가 억울함을 알고 곧 석방시켰다. 그리고 시를 소매에 넣고 운강의 집으로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공이 이처럼 기이한 재주가 있는 데도 우리가 늦게 알게 된 것이 한스럽도다”라고 말했다. 운강이 손님을 보내고 난 뒤에 이씨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나를 따라서 여러 해 살았지만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소백정의 아내를 위하여 시를 지어 주어서 관리들이 옥에 가두었던 죄수를 놓아주게 하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번거롭게 하느냐?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을 지은 것이니 그대를 즉시 당신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옥봉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으나 운강은 끝내 이씨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²⁷⁾

옥봉을 아끼고 있고 옥봉의 자질이 뛰어난 것을 잘 알고 있는 조원이지만 결연 전에 했던 약속을 옥봉이 깨자 조원은 약속을 상기시키며 옥봉을 내치게 된다. 이전에는 남자들이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해서 약속을 목숨처럼 아끼던 시대였다. 이것을 조원은 표면적으로는 내세웠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가 쓴 글인 줄 오해하고 죄인을 풀어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옥봉의 처사에 대해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옥봉을 준 영웅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옥봉은 올바른 일, 즉 영웅이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성취한 것이다. 옥봉이 도와준 이웃 백성은 그 신분이 백정으로서 조선조에서는 가장 아래 계급

27) 허미자(1988), 「조선조여류시문전집」, 태학사. 「이옥봉집」, <이옥봉행적> 참조.

“嘗有隣女之素相織者，來告其夫爲屠者之援引 乞雲江公一舊于該曹，要免其罪。李氏深加矜憐而不敢閉聽于公乃曰：“吾雖不敢請書，當爲爾書給將辭矣”，遂書一絕曰：洗面盆爲鏡 梳頭水作油 妾身非織女郎豈是牽牛 該曹諸堂見而大驚結問之曰；“爾之將辭，雖所書乎？”其女遑急直對，以將辭諸堂寃其罪而釋之。袖其詩而訪公言曰：“公有如許人之奇才而恨吾輩聞知之晚也。”公送客之後，遂招李氏而出曰：“汝我從屢年，曾無所失，今何爲可屠者妻，作詩以贈，至釋王獄罪人，煩人耳目乎？此其大不可。卽還汝家也。”李氏涕泣謝之 公終不聽”。

이었다. 이 하층민은 가장 힘없는 계층으로서 억울함에 처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천한 계층을 위해서 옥봉은 의연히 나선다. 아마도 그 백성을 도와줄 당시에는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기 위한 목적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글로 송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 부분은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글을 써 주었을 것이다. 그럴 확신이 없다면 애당초 글을 대신 써주지도 않았을 듯싶다. 그러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일로 옥봉은 안온하고도 행복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된다. 그 파장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비록 이 사건으로 옥봉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지만 영웅의 일생에 대입해보면 어떠한가? 이러한 핍박과 비참한 상태는 영웅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바로 옥봉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한 결과이다. 핍박받는 백성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영웅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이런 점이 옥봉을 준 영웅에 속하게 할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하다. 사실 이 일의 이면을 살펴보면 잘난 체하는 조선조 유학자 조원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마주하게 된다. 옥봉의 시 한편이 송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다. 서출이며 소실인 일개 여인이 관원, 그것도 고위 관리직이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한 것이다. 게다가 조원이 더욱 난감했던 것은 형조의 관리들이 이 작품을 조원이 썼다고 오해한 일이다. 조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술한 가문은 조원 집안이다. 권력층(승리자)에 의해 작성된 역사이기에 이 사건을 옥봉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원 입장으로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는 곧은 선비 이미지’로 표기했지만 정말 그럴까? 아마도 조원은 표면적으로는 ‘약속 파기’를 내세웠지만 실은 옥봉의 지나친 능력 과시에 심사가 꼬였을 것이다. 사실 결연을 맺고 나서 옥봉이 전혀 시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조원이 친구 윤국형 앞에서 옥봉에게 쓰름 쓰라고 청하고 옥봉이 시를 불러주자 조원이 글자를 썼다는 기록²⁸⁾ 등을 상기할 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 일로 옥봉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²⁹⁾ 결핍 상태가 되면서

28) 주 23)번과 동일한 내용.

불안과 외로움, 공포 등 상징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포리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영웅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㉔ 죽음

정신적으로 상징적 죽음을 경험한 이옥봉은 결연한 의지를 불태운다. 따라서 옥봉이 자신을 알리는 방식을 생각한 것은 비극적 죽음이다. 누구나 주목할 수 있는 주검이 되는 것이 당시로서는 옥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 방식은 그 당대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작품을 널리 세상에 선포하는 방안과 도구로 옥봉은 자신의 목숨을 선택한 것이다. 옥봉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사실 근래에 와서 알려졌다. 1997년 역사연구가 박은봉이 「한겨레 21」(1997. 7. 7)에 「사랑에 꺾인 애달픈 시심」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뒤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고 한다. 이종문이 박은봉에게 전화를 했는데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원의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설화는 역사의 또 다른 연출 방식이다. 조원의 집안에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다면 그 또한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당의(糖衣)를 입기는 했겠지만 주제는 사실일 것이다.

조원의 아들 조희일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한 원로대신을 만났다. 그 원로대신은 조희일에게 조원을 아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는 표지에 ‘이옥봉시집’이라고 적혀 있는 책을 한 권 꺼내 보였다. 이옥봉은 40여 년 전 행방불명된 아버지 조원의 첩이었다. 깜짝 놀란 조희일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연을 늘어놓았다. 40여 년 전 중국 동해안에 괴이한 시체가 떠다녔다. 시체는 너무나 흉측하여 아무도 건지려 하지 않았으므로 파도에 밀려 이 포구 저 포구로 떠다녔다. 젊은 날의 그 원로대신이 건지게 했더니 온몸을 종이로 수백 겹 감고 노끈으로 묶은 여자의 시체였다. 노끈을 풀고 겹겹이 두른 종이를 한 겹 두 겹 벗겼더니, 종이 바깥에는 아무 것도 씌어 있지 않았으나 종이 안쪽에는 뽀뽀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다. 바로 시였다. ‘해동 조선국 승지 조원의 첩 이옥봉’이라는 이름도 보였다. 시를 읽어본즉 하나같이 빼어난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만들었다.

29) 그 후 여도사로 자칭하며 살았다고 하는 기록도 전한다.

이옥봉 죽음에 관한 기록은 「열조시집」에는 “임진왜란을 만나 죽었다”고만 되어 있고, 장지연의 「일사유사(逸士遺事)」에서는 “임진왜란을 만나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조원의 고손 조정만이 남긴 「이옥봉행적」에는 “비록 쫓겨났어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단속해서 전란 속의 어려운 시절에 정절을 보전하였다. 마침내는 천하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다. 그 삶은 불행하였으나 그 죽음은 불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조정만은 조원의 문집인 「가림세고」를 편집하면서 그 부록에 옥봉 이씨의 시 32편을 싣고, 그 시들의 앞 부분에 “이씨는 종실의 후예로 윤강공 조원의 소실이며 옥봉은 그 호이다. 작품 32편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죽어 묻힘에는 전함이 없다. 이에 책의 끝에 올린다(李氏宗室後裔而雲江公小室, 玉峰其號也 有所作三十二篇, 惜其埋沒無傳 茲附于卷末)”고 하였다.³⁰⁾

조원 가문에서 작성한 옥봉의 죽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쫓겨났어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단속해서 전란 속의 어려운 시절에 정절을 보전하였다. 마침내는 천하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다. 그 삶은 불행하였으나 그 죽음은 불후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옥봉에 대해 어떤 하자도 없고 자신의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탁해서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품 32편이 옥봉이 죽어서 묻혔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후 끝에 옥봉의 작품 32편을 부기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순되는 표현이다. 「가림세고」는 옥봉이 죽은 후 100여 년이 지난 후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없었던 작품을 어디선가 찾았음이 암시된다. 즉 당시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후에 손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행간에 숨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조원 집안에서 내려오는 설화를 상기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정절을 보존하였다.’는 부분도 의아하다. 고인에 대한 언급으로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찬찬히 뜯어보면 왜 이런 구절을 집어넣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단순히 조선조의 대표적 이념 중 하나인 ‘정절’을 강조하기 위한 인사치레로

30) 조정만 편, 『嘉林世稿』, 허미자편(1988), 앞의 책, 태선경(1999), 이옥봉 한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쪽 등 재인용.

넣은 것인지, 아니면 옥봉에게 ‘정절을 보존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인지가 의심되는 대목인 것이다. 옥봉은 내적으로는 스스로 양반 관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여인이다. 따라서 조원에게 내쳐진 것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깝기도 했을 것이다. 조원의 뒤틀린 심사가 옥봉에게 읽혀지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점에서 옥봉이 다른 만남을 가졌을까? 옥봉의 작품을 보면 옥봉은 상당히 호방한 성정을 지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추론에서 끝내기로 한다.

아무튼 옥봉의 죽음은 비장하며 장렬하다. 꼭 총칼을 들고 싸우다 죽어야만 장렬한 죽음은 아니다. 옥봉은 당시 사회에서 여자한테 금지하는 암묵적인 조항, ‘여자는 뛰어나면 안 되고, 글을 잘하면 안 되며, 나서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 창작을 하는 것이 자량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통념과 싸우다 장렬하고 비극적인 주검이 된 것이다. 옥봉이 다른 이유로 쫓겨난 것도 아니다. 배경도 없고 천대받는 계층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옥봉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글을 어필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 따라서 옥봉이 어떤 죽음을 선택했든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글을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끔 행동했다는 점이 그녀를 준 영웅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기존 논의에서도 옥봉이 범인과 다르게 뛰어난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옥봉은 조선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비범한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¹⁾라거나, “현숙하고도 문장이 좋으니 난설헌이나 옥봉이 재주만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와 같이 부덕이 기준이 됨으로서 뛰어난 여성시인들이 평가절하 당한다.³²⁾ “여성으로서 옥봉은 위에서 살펴본 당시의 평균적인 여성의 삶에서 벗어나는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여성의 일이라 여겨지는 가사보다도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시문을 학습

31) 임기연, 앞의 책, 22쪽.

32) “賢淑有文章 異於蘭雪軒玉峰之才勝”, 「東詩話」; 박무영(1999),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 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 17쪽 재인용.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적실도 맞지 않았던 조원과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이룬 점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옥봉은 조선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비범한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³⁾ 등과 같은 견해가 그것이다.

이렇듯이 이옥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해 볼 때 조선조 준영웅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존과 욕망의 시학

이옥봉 작품은 「옥봉집(玉峯集)」, 「명원시귀(名媛詩歸)」, 「이옥봉집(李玉峯集)」, 「대동시선(大東詩選)」, 「동시화(東詩話)」 등에 수록되어 전한다. 즉, 1704년에 조정만이 고조부 조원, 증조부 조희일, 조부 조석형 3대가 남긴 시와 문장을 모아 「가림세고(嘉林世稿)」 3권을 간행했는데, 부록에 고조부 조원의 소실이었던 이옥봉의 시 32편을 「옥봉집」이라는 제목으로 수록하고 있다.³⁴⁾ 그 외에도 그녀의 시는 「열조시집(列朝詩集)」에 11수, 「명시종(明詩綜)」에 2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열조시집」과 「명시종」은 명나라에서 간행한 서적이다. 이들 문집이나 서적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옥봉의 총 작품은 대략 40수 정도이다. 일설에는 시집 1권이 더 있다고 하지만 아직 발견된 바는 없다.³⁵⁾

이중문에 의하면 이옥봉 시 40편 가운데 17편이 이옥봉의 작품이 아니거나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옥봉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자술(自述)(몽혼, 夢魂)>과 <죽서루(竹西樓)>도 사실상 독창적인 창작품으로 보기가 어렵거나 이옥봉의 작품이 아님이 확실하여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며, 이 한시들을 이옥봉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진행된 기존의 연구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한 대중서적 가운데서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⁶⁾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33) 태선경, 앞의 책, 22쪽.

34) 허경진 엮음(1990), 「玉峯·竹西 詩選」, 평민사, 머리말 참조.

35) 허경진(2011), 앞의 책. ; 이종문,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한국한문학연구」 47권, 한국한문학회.

추정에 의해 제외한 것, 문헌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제외한 것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재단해서 제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 문제는 반드시 되짚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후속 논문에 맡기고 본 글에서는 우선 이종문이 이옥봉 작품의 진위를 판정한 결과를 수용해서 이옥봉 작품이 확실한 18편을 주축으로 하고 그 외 작품도 한, 두 편을 포함해서 논지를 전개한다.

(1) 형이상학적 욕망과 현실과의 교차점

옥봉의 삶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평범하지 않다. 출신도 그러하고 인생이 전환될 정도의 사건 개입도 그러하고 비장하고 비창한 주검까지, 한 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담을 보인다. 옥봉의 삶은 옥봉이 준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옥봉의 객관적 측면보다는 옥봉의 내적 욕망에서 기인하는 점이 크다. 그녀의 욕망은 혈통과 자신의 능력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결연이나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자신이 지은 문장에 의해 송사가 바뀌는 사건까지 그녀의 욕망은 지속적으로 그러나 형이상학적으로 드러난다.

옥봉은 어떤 욕망을 꿈꾸었을까? 그녀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옥봉의 심층적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이나 하는 일, 즉 관직의 삶을 꿈꾼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자각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옥봉이 당대의 사회적 이념이나 통념에 무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는 그녀의 이러한 모방 욕망 의식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모방 욕망이란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타인의 속성을 자기 것으로 삼음으로써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타인의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다.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 다시 말해 모방 욕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36) 이종문(2011), “이옥봉의 작품으로 알려진 한시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국한문학연구』 47권, 한국한문학회, 466쪽.

지라르는 이러한 모방 욕망의 기본적 속성은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대상, 객관적으로 사용 가치가 높은 대상을 욕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형이상학적 욕망에 이끌리는 결과라는 것이다.³⁷⁾

옥봉은 결혼 전에는 왕족이며 관직에 있었던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훌륭한 문장가이며 역시 관직에 있던 남편, 조원을 욕망의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 이것은 작품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五日長干三日越	닷새는 강을 끼고 사흘은 산을 넘으며	
哀詞吟斷魯陵雲	슬픈 노래마저 부르다 끊어진 노릉의 구름	
妾身亦是王孫女	이 몸 또한 왕손의 딸이니	
此地鶉聲不忍聞	이곳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寧越道中>

이 작품은 조원이 1583년 삼척부사로 제수되어서 가는 도중에 영월을 지나면서 옥봉이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과 추사(〈秋思〉-삼척으로 좌천된 남편을 따라와서)로 인해 옥봉을 강원도 문인으로 꼽는다. 작품 속 시적 화자는 자신이 왕손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릉’은 조선조에서 제일 짧은 왕위를 누렸던 ‘단종의 능’을 지칭한다.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당시 17세로 영월로 유배되어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따라서 단종의 능은 현재 영월에 있다. 이 단종 능이 있는 영월을 지나면서 쓴 시 작품이다. 시적 화자 자신은 왕족이니 결국 노산군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왕족이라는 자부심이 표출되고도 있지만 심층적으로 내재하는 감정에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단종과 시적 화자인 옥봉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음도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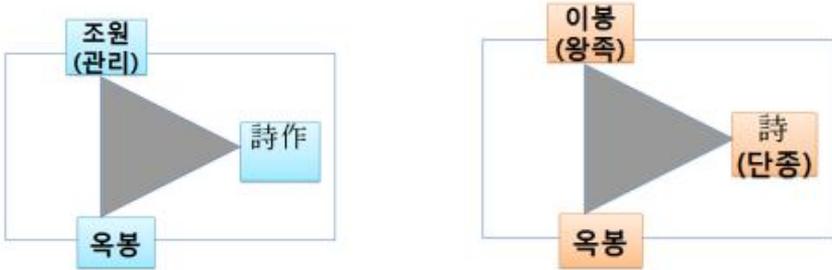
단종은 죽기 전에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고 탄식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 탄식

37) 르네 지라르, 김모세(2008),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50쪽.

노래에 ‘두견새’에 관련된 시구가 등장한다. 옥봉은 단종이 묻혀있는 영월 단종 무덤을 찾아가서 옛날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과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의 퍼스나는 옥봉 자신이다. 단종의 슬픈 사연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단종과 동일한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은연중에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왕족이기에 단종의 감정이 이입된 두견새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언급을 통해 옥봉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단종을 대상으로 해서 시나 노래를 지은 인물은 여럿이지만 본인이 단종과 같은 문중임을 밝히며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시하면서 의지를 편 사람은 옥봉이 유일할 것이다.

단종은 세조에게 임금 자리를 빼앗긴 뒤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추방되었고, 1457년 가을에는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12월 24일에 죽임을 당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이다. 1452년 모반형으로 삭녕에 유배되었고 다시 광주로 옮겨졌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자 이에 연루되어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군사 및 향리, 사족들한테 격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켜 단종 복위를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겼을 단종의 한과 자신이 서출로, 소실로 살아야 하는 데서 야기되는 한이 동일시되면서 한을 배가시키는 한편 스스로의 신분도 격상시키고 있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작성했다는 의도가 감지된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신이 왕족이라고 공표하는 것이 어렵없는 일이었을 수 있을 때 옥봉의 당당함과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부친이 왕족이라고 해도 모친이 천출인데 스스로 왕족임을 당당하게 온 세상에 공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그것도 여자의 신분으로 공적으로 대놓고 자칭하면서 자부심을 표출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아버지를 모방 욕망 대상으로 삼았기에 가능하다. 왕족인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옥봉의 욕망인 것이다. 옥봉은 욕망의 주체이며 이때의 아버지는 욕망대상이다. 그리고 그 매개체는 바로 시 텍스트이다.



이 작품은 허균에 의해 ‘비분강개(悲憤慷慨)’라는 평을 들었으며, 권옹인에 의해 ‘절창’이라는 평을 듣는 등 예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은 노래이다.³⁸⁾ 칭송을 들은 이유는 시적 화자의 기개가 뛰어나고 시적 표현이 절묘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산과 강을 건너서 이곳에 도착한 주체는 시적 화자인 옥봉이지만 시 텍스트 안에서 구름도 여기에 해당된다. 옥봉과 구름 두 대상이 모두 단종 묘에서 움직임을 멈춘 것이다.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단종의 감정이 이입된 두견새 소리이다. 두견새 울음소리는 단종이 듣고 자신의 슬픔을 이입했던 새이기 때문이다. 단종의 객관적 상관물이 두견새이다. 이렇듯이 과거의 시간과 공간, 과거 인물까지 끌어들이면서 옥봉은 자신을 자연스럽게 단종의 신분과 동일한 왕족임을 표명하고 있다. 즉,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이 왕족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방된 욕망일 뿐 현재 자신은 서녀이며 첩일 뿐이다. 이 괴리감이 옥봉의 마음을 찢어놓았을 것이다.

왕족과 벼슬에 대한 옥봉의 욕망은 다음의 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干戈縱異書生事	전쟁과 선비의 일은 서로 다르지만
憂國還應鬢髮蒼	나라 걱정엔 머리 흰글어지며 초췌해지는 것은 서로 같다.
制敵此時思去病	적을 무찌를 때에는 광거병이 생각나고
運籌今日懷張良	전략을 짤 때는 장량을 품게 된다.
源城戰血山河赤	경원성 전투로 산과 강은 붉게 물들고

38) 태선경, 앞의 책, 68-70쪽 참조.

阿堡妖氣日月黃	아산보의 요사스런 기운 해와 달을 흐리게 한다.	
京洛徽音常不達	서울로 좋은 소식 아직 들려오지 않으니	
江湖春色亦淒涼	강호에 비치는 봄빛마저 처량하다.	<癸未北亂>

시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인 이옥봉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의 퍼스나 즉, 가면을 쓰고 있다. 본인이 정치를 하는 선비(양반)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계미북란이란 1583년 여진족 니탕개가 쳐들어와서 북방의 여러 고을을 뒤흔든 것을 말한다. 니탕개는 선조 초년부터 6진을 자주 드나들며 공순(恭順)의 뜻을 보였으므로 정부에서 관록을 주고 후대했으나 진장의 대우가 좋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근의 여러 부족을 규합, 경원부에 침입하고, 아산보와 안원보를 점령했다. 이에 신립은 기병 500여 기를 동원, 첨사 신상절과 함께 니탕개의 1만 군대를 물리쳤고 니탕개의 목을 베었다. 신립은 두만강을 건너 적의 소굴까지 소탕했다. 계미년 1월부터 시작된 싸움은 7월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³⁹⁾ 이 전쟁이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시작 화자 신분은 직접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선비’이다. 칼 대신 붓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붓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니 나라의 위태함을 걱정할 뿐이다. 그러한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너무 걱정해서 머리가 희어질 정도이다. 그러나 자신은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러한 처연한 처지를 노래하면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즉,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대신 한나라 장군인 곽거병과 역시 한나라 고조 유방의 책사인 장량이라도 보내주고 싶다는 제안이 그것이다.

“곽거병(霍去病, 기원전 140년-기원전 117년)은 전한 중기의 군인으로, 하동군 평양현(平陽縣) 사람이다. 원삭 6년(기원전 123년) 원정에도 종군했는데, 빠르고 용감한 기병 8백 명을 거느리고 본대를 떠나서 몇백 리를 떠나 많이 죽이고 사로잡았다. 그 후 몇 번이나 흉노 정벌에서 공적을 올려, 기원전 121년에 표기장군에 임명되고, 기원전 119년에는 흉노의 본거지를 격파해, 위청과 함께 대사마로 임명되었다.”⁴⁰⁾는

39) 하응백, 앞의 글, 110쪽.

40) 위키백과, 곽거병 항.

인물이다. 그렇게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괘거병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선비라 싸움을 하지 못하니 그런 인물이라도 있으면 보내고 싶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쟁에는 전략도 필요하니 전략에 뛰어난 장량도 보내고 싶다고 하고 있다. “장량(張良, ? - 기원전 186년)은 중국 한나라의 정치가이자, 건국 공신이다. 자는 자방(子房), 영천군 성보현 사람이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소하(蕭何), 한신(韓信)과 함께 한나라 건국의 3걸로 불린다. 전략적인 지혜를 잘 써서 유방(劉邦)이 한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고 유방으로부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다’라는 극찬을 받았다.”⁴¹⁾는 인물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를 남편 조원으로 보고, ‘남편의 입장에서 우국충정을 노래한 시’⁴²⁾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이옥봉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다. 옥봉은 관리를 움직여 송사도 뒤집은 인물이다. 시종일관 정치나 관리 등 남자 양반이나 갈 수 있는 길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점에서 이 작품에서의 시적 화자도 옥봉 자신이다. 남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해도 결국 옥봉의 내면에서는 이미 자신을 선비나 충신, 나아가서는 왕족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남편 대신 감정을 토로하면서 쓴 작품이 아니다. 이옥봉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녀의 욕망은 시종일관 동일하다. <영월도중>에서의 시적 화자가 남편 대신이 아니듯이 모든 작품의 시적 화자는 옥봉 자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증병사(贈兵使)>의 시적 화자도 남편의 입장을 대신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옥봉 자신이다. 옥봉 욕망이 남편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정점은 자기 자신으로 수렴된다. 이 경우에도 승전의 순간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인 동시에 장군 자신이기도 한 시적 퍼스나는 옥봉 자신이다. 시적 화자는 이옥봉 자신으로 ‘장군’의 퍼스나로 장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작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1) 위키백과, 장량 항목.

42) 하응백, 앞의 책, 112쪽.

將軍號令急雷風	장군의 호령 소리 급하기 뇌풍과 같은데	
萬誠懸街氣勢雄	적의 머리 베어 거리에 내거니 기세 웅장하네.	
鼓角聲邊吹鐵笛	고각(鼓角) 소리에 쇠 피리도 함께 울리니	
月涵滄海舞魚龍	달 잠긴 너른 바다에 어룡이 춤을 추네.	<贈兵使>

<계미북란>이 전쟁 중 상황을 처연하게 노래했다면, <증병사>는 신립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의 상황을 읊고 있다. 따라서 <계미북란>이 먼저 작성된 작품일 것이다. 기존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시는 “계미북란을 평정한 신립장군에게 보내는 시로 추측된다고 하고 있다. 신립은 1546년생이고, 조원은 1544년생이니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신립은 온성부사가 되어 계미년(1583) 북방에 침입해 온 여진족 니탕개(尼湯介)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이때 조원은 삼척부사였다. 이런 점에서 조원의 부탁으로 이옥봉이 시를 지어 신립에게 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⁴³⁾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작품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옥봉이 당대의 승전보를 접하고 스스로 작성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작품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옥봉은 조선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우국 충군의 시들을 남겼으며, 전쟁을 소재로 한 시도 남겼다.”⁴⁴⁾는 평을 받기도 한다. 결연에 달과 푸른 바다라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 달이 바다에 잠긴다는 공간적 배치, 어룡이 춤을 추는 행위 등 공감각적 표현이 뛰어나며, 신비스러운 자연 객관물을 통한 몽환적 느낌도 승리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소리와 빛과 행동이 어우러진 공감각적 표현도 빼어나다.

그 외에도 <추사(秋思)>, <위인송원(爲人訟冤)>, <부운강공제괴산(賦雲江公除槐山)> 등이 모두 주체자인 옥봉이 관리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의 삼각형에 부합되는 작품들이다. 욕망의 삼각형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매개자를 중심으로 욕망의 주체와 대상 쪽으로 뻗어 나가는 두 변에 따라 욕망의 강도와 대상의

43) 하응백, 앞의 책, 114쪽.

44) 태선경, 앞의 책, 66쪽.

가치가 결정된다.⁴⁵⁾ 관리가 욕망의 주체인 옥봉은 그 대상인 시작에 더욱 몰입하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위인송원(爲人訟冤)>이다.

洗面盆爲鏡	얼굴 씻는 대야로 거울을 삼고	
梳頭水作油	머리를 빗을 때는 물로 기름 대신하니	
妾身非織女	첩의 몸은 직녀가 아닌데	
郎豈是牽牛	어찌 제 낭군이 소를 끌고 간 견우이리까?	<爲人訟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작품 한 편이 옥봉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그런 만큼 옥봉의 욕망이 극대화된 시 텍스트이기도 하다. 시적 화자는 누명을 쓴 백정의 아내이다. 옥봉은 여기에서 백정 아내의 퍼스나, 즉 가면을 쓰고 있다. 백성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소를 흠친 것이 아님을 비유를 통해서 항변하고 있다. 즉, 옥에 갇힌 인물인 자신의 남편은 소박하면서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음과 소를 흠친 것이 아님을 이중, 삼중의 알레고리를 사용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백정이라 소를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소를 끈다는 이름의 견우’를 적절하게 매치시키고 있다. 견우가 소를 끌 수밖에 없듯이 백정은 소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소와 함께 있었지 소를 흠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더구나 거울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투명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옥사에 갇힌 백정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그러나 곡진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구구절절하게 죄인이 아님을 대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촌철살인의 한 수라고나 할까. 그리고 시적 화자의 이러한 은근한 항변 및 대변은 송사를 뒤집기까지 한다.

이는 결국 옥봉이 백정 아내 가면을 쓰고 백정 아내의 눈과 입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옥봉의 심연 속에서는 자신이 욕망하는 관리의 일을 제대로 수행한 완벽한 모습을 반영한 사건이기도 하다. 옥사의 판정을 뒤엎는 권한은 현대에서는 ‘판사’의 일이다. 이 일을 옥봉이 해낸 것이다. 옥사를 판정하는 권위에 도전해서

45) 르네 지라르, 앞의 책, 63쪽.

관리가 해야 할 일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옥봉의 현실은 그러나 냉정하고 가혹했다. 대상에 대한 모방은 결국 매개에 대한 모방인 것이고,⁴⁶⁾ 결국 그 괴리감은 클 수밖에 없다. 매개 대상이 옥봉에게 중요했던 만큼 이것이 족쇄가 되어 옥봉을 조이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은 당시 사회적 지평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극적 결말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옥봉은 내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원한테 내쳐진 후에도 옥봉의 욕망 대상은 역시 조원이다. 아니 조원과 같은 양반 관리이다. 욕망이 투사되는 대상은 바뀌지 않는다. 조원과 함께 살 때는 조원의 신분이 욕망의 주축이었겠지만, 그러나 조원과 만나지 못하자 욕망 대상은 조원 자체가 된다. 이 경우는 ‘여성’으로 돌아온 옥봉과 조우할 수 있다. 옥봉은 매개물인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토로한다. 이번에 옥봉은 조원을 회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 직접 만나는 대신 매개물인 시를 이용한다. 사실 이 만남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옥봉 작품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원은 옥봉을 내친 후에도 옥봉을 간헐적으로라도 찾았다는 사실이다.

柳外江頭五馬嘶	버들 건너 강가에 오화마(五花馬) 울음소리,
半醒愁醉下樓時	시름에 취한 몸 반쯤 깨어나 다락을 내려갈 때
春紅欲瘦臨粧鏡	님 그리다 여윈 얼굴 화장 거울 앞에 앉아
詩畫梅窓卻月眉	시화(詩畫)를 치던 매화 창가에서 문득 눈썹을 그리네. <漫興贈郎>

이 작품에서의 시적 화자는 시름에 취한 여인이다. 시름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마치 술에 취한 듯한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 술에 취했다고 해도 외로움에 술을 마시다 취한 것이니 이 또한 시름에 취한 것으로 수렴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그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연에 등장하는 ‘오마(五馬)’ 부분이다. ‘오마’를 ‘님의 말 울음소리’로 보는 경우와 다른 벼슬아치의 말 울음소리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오마는 말 5필로서 태수(太守)의 행차에 말 다섯 필이

46) 위의 책, 58쪽.

수레를 끌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벼슬아치가 타는 말이기에 한편으로는 이옥봉의 님인 남편 조원의 경우도 해당된다. 따라서 두 해석 모두 가능하지만 님이 타고 있는 말소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섯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님’이 중요하기에 여타의 벼슬아치보다는 남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의 경우도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하루(下樓)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쯤 깨인 듯 취한 얼굴로 다락 앞에서 내리시네’⁴⁷⁾, ‘반쯤 깬 채 시름겨워 다락을 내려갈 때’⁴⁸⁾, ‘취한 수심 반쯤 깨어 누각을 내려갈 때’ 등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시 내용을 보면 님이 다락 앞에서 내리는 것이 더 합당한 듯하다. 조원 문중에서 퍼낸 문헌에는 조원이 옥봉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옥봉의 작품을 보면 이렇듯이 조원이 가끔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아예 포기할 때는 그 연연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잠깐씩의 만남은 그 관계를 늘 허기지게 한다. 옥봉의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님과 함께 하는 밤이 길기름’(<별한, 別恨>, <규정, 閨情>) 등도 보면 시적화자=옥봉이 님과 만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시 텍스트 속 화자=작자인지가 문제가 또 남는다. 그러나 옥봉이 작품을 통해서 화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자=작자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有約郎何晚	약속하셨던 낭군은 어찌 그리 늦으신가?	
庭梅欲謝時	뜨락의 매화가 다 지려고 하는 때에	
忽聞枝上鶯	홀연 가지 위에 까치 소리 들리니	
虛畫鏡中眉	공연히 거울 보며 눈썹을 그리네	<閨情>

앞에서 제시한 <만흥증랑(漫興贈郎)>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주제나 시상을 보인다. 이 시 텍스트에서 주목할 것은 ‘약속을 해 놓고’ 부분이다. 아예 오지 않는다면

47) 임기연, 앞의 책, 21쪽.

48) 태선경, 앞의 책, 47쪽.

그리워는 하겠지만 초조하게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확한 기약 없이 ‘오겠다’는 약속은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는가. 온다고 약속한 때가 지나도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신을 상기하며 ‘오늘은 혹시 임이 올라나’라고 기다리며 헛된 기대 속에 화장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近來安否問如何	요즈음 우리 님은 어찌 지내시는지	
月到紗窓妾恨多	달 밝은 창가에 서서 한스러움만 깊어지네	
若使夢魂行有跡	만약 꿈 속 오고 가는 길에 흔적이 남는다면	
門前石路半成紗	님 집 문 앞 돌길은 이미 반쯤은 모래가 되었겠지.	<夢魂>

님이 부재하는 시간에 대한 애닦은 시적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사실 곁에 두고 완전히 내치지 않고 가끔씩 보러 오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을 남길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미련에 시적 화자는 애가 탄다. 꿈이나 생시나 오매불망하다 보니 꿈 속, 아니 상상 속이었겠지만 님에게 달려가곤 한다. 얼마나 님의 집을 왔다갔다 했는지 그 돌길이 닳고 닳아 모래가 거의 다 되었다는 실태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시적 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내쳐진 입장이니 떳떳하게 나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님의 부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주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거침이 없고 매사 당당했던 옥봉이지만 맹세를 한 과거가 있었기에 님의 뜻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유학자로 생각했던 그녀의 심층 무의식도 꿈이나 상상 외에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옥봉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표면적인 모방대상의 함의는 바뀐 듯 하지만 자신의 심연 속 욕망은 실은 한 남자의 아내로는 만족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을. 옥봉의 형이상학적 욕망은 시 텍스트에서 시공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2) 시공간 응축 및 확장

옥봉 시 텍스트의 특징 중 하나는 시공간을 응축하기도 확장하기도 하면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간 재단은 모든 문학 작품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서사류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러나 옥봉의 경우, 이 방식은 자신의 욕망이 시적 장치로 표출되는 접합점이기도 하다.

玉峯涵小池	옥봉이 작은 연못에 잠겼는데	
池面月涓涓	연못 위에는 달빛이 흐르니	
鴛鴦一雙鳥	원앙새 한 쌍이 짝을 지어서	
飛下鏡中天	거울 속의 하늘로 날아 내리네.	<玉峰家小池>

연못이라는 자연 공간이 시 텍스트 속에서는 시적 공간으로서 확대되기도, 축소되기도 한다. 또한 연못이라는 공간과 거울이라는 공간이 동일한 이미지로 묶여 있기도 하다. 연못이 자연 공간 그대로를 반영하는 징표는 달빛과 원앙새이다. 한편 거울 이미지 징표는 옥봉이 잠긴 연못이라는 것과 거울 속 하늘이다. 따라서 이 연못은 하늘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거울 공간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비록 작은 연못이지만 그 속에서는 달빛도 담고 있고, 원앙새도 담고 있고, 옥봉도 담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은 거울과 동일시되며, 하늘 모습을 닮아있다. 온 우주가 모두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원앙도 날아내리며, 달빛도 내려와 흐르며, 옥봉도 연못에 잠겨 있다. 연못이라는 작은 공간이 세상을, 우주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못은 거울이기도 하다. 거울이기에 달빛과 원앙이 함께 등장한다. 원앙은 달빛을 받으며 나는 새는 결코 아니다. 또한 연못에 옥봉이 담길 수도 없다. 물론 상징적 의미로는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못은 거울과 동일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공간 응축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시적 자아의 감성이나 심적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옥봉이 이렇듯이 거울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감추지 않고 당당한 자신을 투영하고 싶은 의지의 표상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을 재단하기도 한다.

明宵雖短短	내일 밤이야 비록 짧고 짧을지라도	
今夜願長長	오늘 밤만은 길고 길기 바라네	
鷄聲聽欲曉	닭 소리 들리고 날은 밝으려 하니	
雙臉淚千行	두 뺨에 눈물은 천 줄기 흐르네	<別恨>

‘단단(短短)’과 ‘장장(長長)’을 이용해서 시적 화자 자신의 의도대로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최대한 늘리고, 님이 없는 님 부재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려는 염원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데 효율적이다. 시간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기법과 시적 화자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극적 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 시간에서는 어김없이 닭이 울면서 날은 밝아오고, 그러면 임과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념 속에서나마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문학적 시간은 ‘인간의 시간’(le temps humain), 즉 경험의 막연한 배경의 일부가 되고 또 인간의 생활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의 의식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시간의 의미는 경험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또는 이런 경험의 총화인 인간 생애의 맥락 속에서만 터득할 수가 있다. 이같이 정의되는 시간은 사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또는 가끔 지적되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이다.⁴⁹⁾ 다음의 작품에서도 시간 응축이 나타나고 있다.

無窮會合豈秋思	끝없이 만나는데 어찌 수심이 있겠는가	
不比浮生有離別	든구름 같이 덧없는 인간 이별과 견줄 수가 없네	
天上却成朝暮會	하늘에서는 오히려 아침저녁 늘 만나는데	
人間謾作一年期	사람들은 일 년 만에 만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네.	<七夕>

49) 한스 마이어호프, 김준오역(1987),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7쪽.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만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하늘에서는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 만난다고 하고 있다. 사람들이 견우,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만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실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일 년과 아침저녁이라는 시간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하늘에서의 일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불만의 토로인 듯 싶지만 더 들어가 보면 시적 화자의 시간에 대한 견해가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인생이 구름 같이 찰나이듯이, 아니 긴 시간 살아왔던 인생이 뜬 구름에 해당되듯이, 거기에 비하면 견우, 직녀의 이별은 거의 매일 만나는 것과 같은 시간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옥봉이 내쳐진 후 조원과의 관계를 빗대어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조원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견우와 직녀는 매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견우와 직녀는 신뢰와 애정으로 끈끈히 연결되어 있기에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끊어지지 않고 만나는 시간의 연결 속에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옥봉의 시간은 단절되어 있다. 헤어진 지 열흘이 지났던지, 일 년이 지났던지, 어제였든지 문제되지 않는다. 마음으로의 시간 단절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단절된 것은 실제의 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영겁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하늘 시간은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옥봉은 작품 속 시공간을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축소하면서 재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飲水文君宅	음수는 탁문군의 집	
靑山謝朓廬	청산은 사조의 오두막	
庭痕雨裡屐	뜨락엔 빗 속에 나막신 신고 온 발자국	
門到雪中驢	문 앞엔 눈 속에 타고 온 나귀.	<謝人來訪>

시적 화자는 이 작품에서의 ‘음수(飲水)’와 ‘청산’을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음수’와 ‘청산’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이다. 하지만 좀 더 파고들면 음수와 청산은 다른 누구의 특별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수’와 ‘청산’은 시적 화자의 현재 시공과는 많이 떨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지명으로서 그 시대와 공간으로까지 현재 시적 화자의 시공간을 확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찾아온 사람에게 사례 하여 말하기를, ‘음수(飮水)는 문군(文君)의 집이고, 푸른 산은 사조의 집이라네. 뜰의 흔적은 빗속의 나막신 자국인데 문에는 눈 속에 나귀가 이르렀구나’라고 하였다. 음수는 그가 사는 곳의 지명이다.”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탁문군과 사마상여와의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그렇기에 이 구절은 ‘내가 사는 집은 누추하지만 음물을 아는 집’ 정도로 해석된다. 사조는 남북조 시대 제나라 사람이다. 산수시에 아주 능통했다고 한다. ‘내 집에는 청산의 맑음과 기개가 있다’는 뜻이다.⁵⁰⁾

사마상여(기원전 179년-기원전 117년)는전한 사람이고, 사조(464-499)는 남북조 제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몇 백 년을 뛰어넘는 시공간이 현재 시적 화자의 공간에서 접합된다. 바흐친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지칭하는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지칭하는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은 본래 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일부로 도입되어 변용된 개념이다. 즉,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 즉 공간의 제4차원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었다.⁵¹⁾ 이는 베르그송과 칸트의 인식론에서도 사용되었고, 특히 바흐친이 차용해서 문학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시적 화자의 시공간, 크로노토프는 바로 시적 화자의 집이다. 이 시에서 ‘음수’는 바로 크로노토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비와 눈이 함께 제시되면서 계절적 시공간이 확장되기도 한다. 시공을 압축하는 기교로서, 옥봉이 대단한 상상력과 지적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다음 작품에는 시적 공간이 확장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비행기를 탄 채 시선을 위, 아래, 좌우로 교차한 듯한 광경이 펼쳐진다.

50) 하응백 편저, 앞의 책, 38-39쪽.

51)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2002),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260쪽.

終南壁面懸青雨	남산 절벽에 푸른 비 걸리고	
紫閣霏微白閣晴	자색 누각 안개 어리고 흰 누각은 개었네	
雲葉散邊殘照淚	구름 흩어진 사이로 저녁 햇살 흘러나오고	
漫天銀竹過江橫	하늘 가득히 은빛 대나무 강을 질러 내리네	<雨>

남산 절벽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고, 대궐 자색 누각에는 안개가 어려있는데, 흰 누각이 있는 장소는 개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름이 흩어진 틈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며, 한강에는 하늘로 뻗은 은빛 대나무 같은 굽기의 비가 강가에 비스듬히 내려꽂히듯이 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맑음과 폭우가 교차하는 어느 날 저녁 풍광을 색채 이미지와 함께 시공간을 오가는 시적 화자의 교차된 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치 서사물에서의 작가의 전지자적 시점과 흡사한 상황이다. 남산, 누각이 있는 궐, 강, 대나무 굽기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강가 등 시공간이 응축되기도, 확장되기도 한다. 푸른색, 자색, 흰색, 금빛, 은빛 등 다양한 색으로 채색된 시공간이 눈앞에 평면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듯하다.

‘푸른 비’는 많이 오는 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주변 색깔에 동화되어서 푸른색을 띤 듯이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누각 색깔도 각기 다른, 즉 서로 다른 공간이기에 동일한 시간임에도 서로 다른 기상 상황을 보인다.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이쪽은 비가 오는데 바로 옆쪽은 비가 오지 않는 경험을 한 두 번씩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 경관을 표현한 듯하다. 하지만 남산과 자색 누각과 흰 누각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지는 사실 모를 일이다. 그러나 시 작품 텍스트를 편안한 시각으로 감상할 때는 단순한 시공간의 특이 체험을 제시한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연에서도 자연경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름 사이로는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고, 마치 은빛 대나무 모습을 닮은 굽기의 비가 강에 세차게 내려꽂히는 모습이 이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순차적인 시간 질서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지만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 풍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재단하고 있는 작가와 조우하게 되는 작품이다.

그 외에 <위인송원(爲人訟冤)>에도 시공간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호운증기(呼韻贈妓)>에서도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이렇듯이 옥봉 시 텍스트에는 시공간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기법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결국 옥봉의 거침없는 자의식 발로의 기법 중 하나이다. 옥봉이 일부러 그렇게 표출한 것은 아니겠지만 작품에는 무의식적이고 은밀한 작가의 특성이 내재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옥봉 삶과 작품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시학적 특성과 작가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옥봉의 삶의 궤적, 즉 출생, 결혼, 결혼 파기, 비장한 죽음 등을 천착한 결과 옥봉은 준 영웅 해당되는 삶을 살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옥봉의 객관적 측면보다는 옥봉의 내적 욕망에서 기인하는 점이 컸다. 즉, 옥봉의 욕망은 심층적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이나 하는 일, 즉 관직의 삶을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자각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모방 욕망 의식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를테면, <증병사(贈兵使)>, <계미북란(癸未北亂)>은 국가의 변란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계미북란>의 시적 화자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전장 터에 참여할 수 없는 선비의 안타까움이라든가, 비책을 생각해 내지만 실현할 수 없는 현실, 국토의 유린을 생각하는 참람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병사>에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의 심정을 시적 화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모두 그녀의 모방 욕망의식 발로의 결과라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옥봉 자신으로서 국가의 큰일을 생각하는 그녀의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왕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도 작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영월도중>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러한 옥봉의 내적 욕망이 실현 정점에 있는 작품이 바로 <위인송원(爲人訟冤)>이었다. 이는 결국 옥봉의 심연 속에서 욕망하는 관리의 일을 제대로 수행한 완벽한 모습을 반영한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옥봉의 형이상학적 욕망은 시 텍스트에서 시공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시공간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기법은 결국 옥봉의 거침없는 자의식 발로의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이옥봉의 시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본 작업 결과물을 보면 ‘님 그리는 시’가 주로 위작으로 판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를 옥봉 작품에 삽입시킨 것이라면 ‘옥봉이 정절을 지키면서 님만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듯하다. 옥봉이 애절한 애정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국가, 정치와 관련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내용과 비견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어쨌든 원본 확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후속 논의가 절실하다.⁵²⁾

2. 김금원-공정과 밝음의 미학

1) 원망(願望)과 실현이 직조된 삶

금원(錦園, 1817~1853?)은 조선 헌종 때 강원도 원주에서 서출로 태어난 여류 시인이다. 생몰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며, 부친이 누구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 기존 논의에서는 그녀의 몰년을 대부분 185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박죽서의 몰년도 185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호동서락기」를 보면 그녀들은 동년배가 아니다. 박죽서는 금원보다 몇 살 아래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들 중 한 명의 몰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 몰년이 오류일까? 금원은 남편 김덕희 제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금원은 남편 김덕희 사망 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덕희는 1853년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금원은 1850년 호동서락기를 탈고하고, 1851년 죽서의 죽음을 경험했으며, 남편 김덕희가 세상을 떠난⁵³⁾ 1853년에 금원이 제문을 썼다는 추사 김정희의 언급⁵⁴⁾이 있기에 최소 1853년 이후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금원의 사망한 해를 적어도 1853년 이후로 보고자 한다.

52) 강명혜(2019), “실존과 욕망의 시학, 이옥봉 삶과 문학”, 『한국문학과 예술』 29집, 한국문예연구소의 글을 첨삭 보완했음.

53) 경주김씨 족보에 의하면 김덕희는 1853년 1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경주김씨태사공파대동보 편찬위원회 편(1999), 『경주김씨 태사공파 대동보』, 재인용.

54) 추사 김정희 앞의 책.

그녀는 원주에서 나서 살다가 14세에 금강산을 다녀온 직후부터 기녀 생활을 조금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시랑 김덕희(金德熙, 호 이양)의 소실로 들어가서 김덕희가 사망할 때까지 해로했다. 특히 1845년 남편이 의주부윤으로 제수받아 부임할 때 같이 동행해서 2년간 살다가 남편인 김덕희가 은퇴한 후에는 한강 변에 정착해서 텃밭을 가꾸는 등 부부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항상 남편과 함께 했다. 남편인 김덕희 사망 후에는 그녀의 자취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그녀는 한양 용산에 살 때 삼호정시사를 결성해서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경사(經史)를 통독하였고, 고금의 문장을 섭렵하여 시문에 능했다. 14살 때에는 당대 여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금강산 유람을 남장을 하고 1달 넘게 1,000km 정도를 여행했다.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끝내는 평생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같은 시우(詩友)이며 고향 친구인 박죽서의 「죽서집」 발문에서, “함께 후생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 창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길 만큼 남성 위주의 양반제도에 한을 간직했다.

금원은 어릴 때 병을 자주 앓았는데 부모가 이를 불쌍히 여겨 아녀자의 일을 배우게 하지 않고 문자를 가르쳤다.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사를 대략 통하고 고금의 문장을 본받아 배워 틈이 나면 때때로 시문을 지었다고 한다. 그는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야만국이 아닌 문명국에 태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과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한미한 집안에 태어난 것은 불행이라고 토로했다.

“나는 관동(關東)의 봉래산(蓬萊山) 사람이다. 스스로 금원(錦園)이라고 호를 지었다. 어려서 잔병이 많아 부모가 불쌍하게 여겨 여자가 해야 할 가사나 바느질은 가르치지 않고 글공부를 시켰다. 글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사(經史)에 대략 통하게 되고 고금의 문장을 본받아 배워 흥이 나면 때때로 시문(詩文)을 짓기에 이르렀다. 가만히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실로 다행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야만인이 사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국에 태어난 것은 더욱 다행이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은 불행이다. 그러나 하늘은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다만 산수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고절(古絶)⁵⁵하게 보고 듣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총명한 재주를 주어 문명한 나라에서 이를 글로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을 단념하고 내가 처한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세상에는 침윤의 거북이 없으니 글자가 점친 것을 본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 말에 이르기를, “책략은 짧으나 지략이 넉넉하거든 그 뜻대로 결행하라.”라고 하였으니 내 뜻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혼기에 이르지 않은 나이에 강산(江山)의 승경(勝景)을 두루 보고 증점(證點)을 본받아 세속의 일을 다 잊고 맑은 물에 떡 감고 무우(舞雩)에 올라가 글을 읊조리다 돌아오면 성인도 온당하다 할 것이다. 마음으로는 이미 집을 떠나 이름 있는 명승지를 찾아 상쾌하게 유람하는 듯하다. 어버이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겨우 허락을 받았다. 어렵게 받은 허락이라 마음이 후련하기가 마치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새장을 나와 끝없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 즐겁고, 좋은 말이 굴레와 안장을 벗은 채 천리를 달리는 것 같이 상쾌하다.”⁵⁶

금원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시도를 한다. ‘금강산 여행’이 그것이다. 여자의 몸으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것이다. 거침이 없다. 그러한 성품이나 성정이 형성된 것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금원과 같은 생각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속으로만 생각하거나, 일시적인 사념에 그치거나, 한순간 스쳐가는 원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금원은 이를 실행에 옮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금원의 이러한 시도는 14살 먹은 조선조 양반 남성 자제들도 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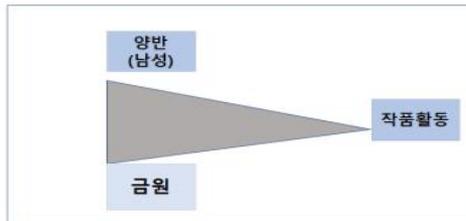
55) 고절(古絶)은 평측이 고르지 않는 4구 시로 고시와 같은 절구이다. 여기서는 산수를 보고 듣고 이를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56) “余關東蓬萊山人也自號錦園兒小善病父母愛憐之不事女工教以文字日有聞悟未幾年畧通經史思効古今文章有時乘興題花詠月窃念吾之生也不爲禽獸而爲人幸也不生於薙髮之域而生於吾東文明之邦幸也不爲男而爲女不幸也不生於富貴而生於寒微不幸也然而天既賦我以仁知之性耳目之形獨不可樂山水而廣視聽乎天既賦我以聰明之才獨不可有爲於文明之邦耶既爲女子將深宮固門謹守經法可乎既處寒微隨遇安分湮沒無聞可乎世無詹尹之龜難效屈子之卜而其言曰策有所短智有所長使之自行其意則吾志決矣迨此未笄之年周覽江山之勝欲效曾點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則聖人亦當與之矣心既定計屢懸于親堂欠而後勉許之於是胸次浩然如鷲鳥出籠有直上九霄之氣良驥脫勒有便馳千里之志”

실천하기 녹녹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금원은 거침이 없었다. “부모한테 이 계획을 사뭇 지 오래되어 겨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금원이 꽤나 오래전부터 부모를 졸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지만 금원의 부모는 이를 허락한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금원한테 금강산 여행을 허락해 주었다 해도 예사 부모는 아니다. 어떤 부모였을까?

금원의 부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금원이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직후 기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친이 기생 신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부친의 신분은 어떠할까? 한미한 집안이라는 금원의 표현대로 과연 가난한 선비일까? 금원은 남장을 하고 여행을 했다지만 혼자서 유랑걸식하면서 간 것은 아니다. 그녀를 돕는 일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녀가 먹은 음식 등을 살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즉, 백어를 사서 회를 해 먹기도 하고, 풍경을 보며 먹을 갈아 시를 짓기도 했으며, 장안사에서는 산채를 풍성하게 갖춘 점심상을 대접받아 먹기도 했다는 등 기행기를 살펴보면 풍족하게 여유를 즐기고 여러 가지 배려를 받으며 여행을 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녀를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은 부친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원 자매는 모두 양반 소실이 되었다. 물론 둘 다 재예가 뛰어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부친 후광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금원이 남긴 글에 ‘한미한 집안’이라는 구절 때문에 부친이 보잘 것 없는 한미한 양반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금원 삶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금원 부친은 꽤 알려진 양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무리 병약하다고 해도 서출 여식에게 글을 가르쳐 줄 혜안이나 배포가 있는 사람이면 여러 가지로 여유 있고 깨어있는 양반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원의 ‘한미한 집안’이라는 표현에는 아버지나 동생을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가의 집안일 가능성이 크다. ‘한미한 집안’이라는 그녀의 언급이 그녀의 실상 파악에 오독이 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녀의 작품을 살펴본 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원이 금강산 여행을 시도하게 된 배경을, “하늘이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여진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다만 산수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고절하게 보고 듣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총명한 재주를 주어 문명한 나라에서 이를 글로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하고 있다. 자신이 여행을 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구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능력이 있으니 이를 펼쳐서 글로 남기겠다’는 의도이다. 겸손한 마인드는 아니다. 이 당시는 겸손과 감춤의 미덕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큰 덕목이 아니었던가? 대신 재예가 넘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재예가 넘치는 조선조 여성들이 중간에 좌절하고 비극적 삶으로 수렴되었던 것과 다르게 금원은 노후까지 자신의 재예를 펼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당당함은 한미한 집안의 여식으로서 지니기 힘든 당당함이다. 이런 모든 점이 금원의 부친은 당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권문세도가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금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당대 양반 남성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의미이지, 일반 여성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글 솜씨로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해 했기에 그녀는 후세에는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금원의 기행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금원의 여행길은 호기롭고 여유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완상하면서 다니고 있음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절에서 만난 궁녀가 한미한 신분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즐기는 듯한 광경도 묘사되고 있다.

금강산 경치가 좋았겠지만 금원의 기행문과 시는 상당히 호화롭다. 다양한 색채적 표현과 아름다움의 극치 묘사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표출기법을 통해서 금원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다. 동일한 자연이라도 이를 관상하는 대상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자연을 보고 느끼며, 이를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에 이입하는 것이다. 결국 자연은 인간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금원이 표현하는 자연물이 아름답고, 뛰어난 채색으로 표현되며, 상서롭고 긍정적인 시어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금원이 그 당시 삶을 상당히 긍정적이고도 유쾌하고 누리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1830년(순조 30) 3월 남장을 하고 고향인 원주를 떠나 여러 곳을 거쳐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집으로 온 금원은 금앵이라는 이름으로 기녀가 된다. 글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이미 기녀가 되기로 기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런 맥락에서는 부모가 금강산 여행을 허락해 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런 허락이 보편적이지는 않다. 금원의 끈질긴 설득이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원이 기생으로 활약한 것을 그 시간이 짧지만 그 시기에 글재주가 뛰어나고, 금강산 까지 갔다 온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문장이 뛰어난 양반층 일부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던 듯싶다.

금원이 금강산을 갔다 온 후 기녀가 되었고, 그녀는 재예가 뛰어난 기녀로 이름이 알려졌음은 홍우건이 원주를 갔다 와서 남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홍길주(1786-1841)의 아들 홍우건은 자신의 문집 「거사시문(居士詩文)」에서, “원주 영기 금앵이 있는데 스스로 호를 금원이라 하였다. 나이는 스물두 살로 재주와 용모가 있고 노래와 시를 잘하여 동주에 이름이 높았다. 내 친국 석영(송주헌)이 같이 창화하여 매화를 주제로 시를 짓고는 돌아와 자랑하였다. 우리 시사 동료가 그 운에 화답하여 부채 하나에 직접 써서 금원에게 주었다.”⁵⁷⁾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금원이 지은 시에 홍우건이 운을 맞춰 시 두 수를 지어준 것이다. 이때가 을미년(1835), 금

57) 홍한주, 「해옹시고초」 권3 재인용.

원이 열아홉 살 때 일이다.⁵⁸⁾ 당대 문인들에게 금원의 관동 유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일종의 영웅담처럼 회자되었던 것이 ‘관동죽지사’의 일부이다.⁵⁹⁾

이런 즈음 김이양도 금원의 소식을 듣는다. “최근에 흥학사가 관동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산 중에는 금강을, 물 중에는 동해를 보았고, 사람으로는 금앵을 보았다’고 들었노라.”라는 말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녀가 된 금원 이야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퍼졌음을 알 수 있다. 금앵이 남공철(1760-1840)에게 써준 율시 4편을 보고 김이양이 차운한 시에는 어린 금원을 향한 감탄과 애정이 묻어난다. 김이양은 금앵의 재능을 이렇게 평한다.

“비록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기운은 오히려 예리하고 성취함이 높다. 생각하는 것이 깊어 요즈음 기녀들과는 다르다. 바라건대 이미 터득한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당나라 시 중에서 뛰어난 작품을 취하여 공부한다면 그 경지가 설도보다 낫지 않겠는가.”⁶⁰⁾

이렇듯이 금원은 시문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김덕희와 인연을 맺게 된다. 김덕희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김덕희도 풍류를 좋아하는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능화는 『조선여속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재 김원근이 분향 낭독하고 관수서실(盥手叙實)한 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고 했다. ‘금원은 시랑 김덕희의 부실이니 원주사람이다. 그녀가 금강산을 유람한 것은 순조 30년 경인년 봄 3월이었다. 그해 나이 열넷에 규당학사 김덕희와 혼인하였다. 규당이 만윤(의주부사)이 됨에 동행한 것은 헌종 11년 을사년 초봄이었다. 의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용산 삼호정에 거처한 것이 정미연간이요, 이 글들이 탈고된 것은 철종 원년 경술(1850) 늦봄이었고, 박죽서 여사의 「반야당시집」 발문을 쓴 것은 철종 2년 신해(1851) 11월 중순이다. 금원은 뛰어난 재주를 타고나 방년 열넷에 문장을 이미 짓더니, 여러 고을의 산수과 내외금강의 절경과 영동팔경의 승개를 두루 보고 돌아, 이 글들을 지음에, 규방 문장의 으뜸이 되어 사람들을 흠란시키는 바이다’⁶¹⁾

58) 최선경, 앞의 책, 186쪽.

59) 위의 책, 188쪽.

60) 김이양(1992), 「<김이양 문집>과 권진호’, 연천 김이양의 문학론과 작품세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쪽 재인용.

금원도 호동서락기에서, 김덕희의 의주행에 따라가기 앞서 “규당 김학사와 소성(小星:첩의 다른 표현)의 인연을 맺은 지 몇 해가 흘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김덕희의 의주행 길에 따라가기 몇 해 전에 이미 소실이 된 것이다. 의주행이 1845년의 일이니 김이양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1841년 사이에 소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²⁾ 이렇듯이 29세가 되던 해에는 의주부윤의 벼슬을 받은 남편을 따라 평양을 유람하고, 의주에서 2년을 지낸다. 그러다가 31세가 되던 해 벼슬에서 물러난 김덕희와 함께 한양 용산 지역에 있던 삼호정(三湖亭)에 머물면서 여성 시회(詩會)를 조직하여 활약을 하며, 34세가 되던 1850년 봄날 자신이 여행했던 기록들을 모아 ‘호동서락기’를 완성하였다.

금원은 기녀시절부터 그 문명이 알려졌지만 1843년(헌종 9) 27세에는 문명을 떨쳐서 세상에서 ‘규수 사마자장(司馬子長)’이라고 칭호받기도 한다. 이러한 점이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했을 것이다. 정실부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이나 불만 등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다른 소실들과는 달리 금원은 거의 정실부인 역할도 수행한다. 즉, 김덕희가 의주부윤으로 제수되자 금원이 그곳까지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부윤의 본처 역할을 하게 된다.

“관부의 법령은 내야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나 만약 스스로 검칙하지 못해 한 번 청탁을 들어주면 더러운 비방이 널리 퍼져서 해악을 끼치게 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노비들을 엄히 단속하고 외부인과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관아의 노비가 마음대로 창고의 기용집물들을 출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각 곳간의 담당자를 내상문 밖으로 불러내어 엄하게 당부하여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첩지가 아니면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관아 안은 맑고 깨끗하였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남편의 벼슬한 지위에 따라 그 위치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안정감 있게 해 주었을 것이다. 남편의 관직은 곧 부인들의 그것으로 통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의주 관아에 머물면서 금원은 평생 누려

61) 이능화, 김상화역(1978), 『조선여속고』, 대양서적, 319쪽.

62) 최선경, 앞의 책, 197쪽.

보지 못한 대접을 받으며 호사를 누린다. 이런 측면들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기에 그녀의 작품 특성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의주에서 1847년에 돌아온 후 김덕희가 은퇴하여 용산 삼호정에 머물자, 마침 그 근방에 살던 같은 신분의 소실들과 시사(詩社)를 만들게 된다. 이른 바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이다. 삼호정시사는 조선 최초 여성 시인들의 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삼호정시사 구성원은 연천 김이양의 소실인 성천 기생 운초(雲楚), 화사 이판서의 소실인 문화 사람 경산(瓊山), 송호(松湖) 서기보의 소실인 원주 사람 죽서(竹西), 주천(酒泉) 홍태수의 소실인 아우 경춘 등 다섯 여성이다. 모두 실력 있는 여류시인이었다. 이들의 설득으로 「호동서락기」를 썼다고 한다. 금강산을 다녀온 지 20년 만이었다.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며 자기 감정이나 경관 등을 시로 읊으며 그들의 심경을 토로하거나 서로 응답하면서 시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서로의 재예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사회에 쓰이지 못함을 서로 안타까워했다. 특히 남녀차별이 심한 봉건 사회 조선에 태어난 것이 큰 불만이어서 금원은 시우(詩友) 죽서의 시집에 발문을 지어 주면서 “다음 세상에 죽서와 함께 남자로 태어나서 서로 시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금원에 대한 연구는 기존 논의는 「호동서락기」라는 작품에 주안점을 두거나 그녀가 이끌었던 <삼호정시사>에 대한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⁶³⁾ 이 중 주목할 만한 논의는,

63) 김경미(2001), “조선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공간, 삼호정 시사(詩社)”, 『여성이론』 5, 225-242쪽. ; 金智勇(1977), “三湖亭詩壇의 特性和 作品- 最初의 女流詩壇 形成과 詩作活動-”, 『亞細亞女性研究』 16,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05-143쪽. ; 梁喜(2008), “三湖亭詩壇의 漢詩 研究”, 중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용(1977),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성격”, 『아세아 여성연구』 16,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 손영화(2004), “조선조 여성 퇴기의 새로운 모색”, 『국어국문학』 39호, 국어국문학회, 164-186쪽. ; 이효숙(2007), “<호동서락기>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차옥덕(1999), “김금원 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15, 고전문학연구회. ; 김관식(2006), “朝鮮朝 江原 女性 漢詩文 小考”, 『강원문화연구』 25. ; 장인애(2007), “삼호정여인들의 한시 연구”, 『세종어문연구』 25집, 세종어문연구회. ; 양희(2008), “三湖亭詩壇의 漢詩 研究”, 중부대 박사학위논문. ; 김관식(2006), “朝鮮朝 江原 女性 漢詩文 小考”, 『강원문화연구』 25, 147-166쪽. ; 金呂珠(2003),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 III -朴竹西의 漢詩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2, 한국한문학회, 353-413쪽. ; 원주연(2006), “박죽서 한시문 연구”, 『江原文化研究』 25,

금원이 글로 여성 시인 자매들과 조선조에 새로운 여성의 정체성을 세우려 했으며,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대범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직선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다정다감하며, 과단성이 있고 추진력도 있어 지도자적인 용기와 품성도 지녔다고 하면서, “1. 꿈과 자의식이 있는 여성, 2. 여성 억압적 상황과 사회적 자아 인식, 3. 여성의 진솔한 사랑의 가시화, 4. 우주적 존재로서 확장하는 나, 5. 여성 시단의 풍류와 열락”으로 본 논의와⁶⁴⁾, 「호동서략기」의 기술 특징을 1. 풍부한 전고와 비판적 실증, 2. 감각적인 표현과 정치한 묘사, 금원의 의식세계를 1. 강렬한 전세(傳世) 욕구, 2. 여성의식의 강화로 보고 있는 논의이다.⁶⁵⁾

특히 호동서략기를 “조선 최초의 여성 유람기라는 단선적인 평가만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는 독보적이었던 금원의 자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과 달리 금원은 남녀 부동의 제 현실에 대해 여행이라는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그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원에게 여행은 천지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실천적 과정이었으며, 현실을 향한 적극적인 자아표출의 방법이였다.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는 이러한 작가의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대 사대부가 여성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소극적이고 내부 수렴적인 여성의식이 아닌 적극적이고 외부 발산적인 여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⁶⁶⁾는 평가가 있듯이 금원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의지와 용기가 남다른 여성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호동서략기」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89-211쪽. ; 원주연(2009), 「박죽서 한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주연(2011), 「朴竹西 詩에 나타난 그리움의 世界」, 「한문고전연구」 22, 한국한문고전학회, 149-168쪽. ; 崔承洵(1996), 「江原道 女性 漢詩文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창간호, 강원향토문화연구회. 백민자(2011), 「“湖洞西洛記”一考」, 「국어국문학」, 50호. ; 최선경(2013), 「호동서략을 가다」, 옥당. ; 최연(2018), 「조(朝)·청(淸) 여성시사(女性詩社) 비교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28. ; 김미선(2019), “선조들의 금강산 기행문학과 그 교육적 활용”, 「어문논총」 35호.

64) 차옥덕, 앞의 논문, 252쪽 참조.

65) 백민자(2011), 앞의 논문, 217-240쪽.

66) 백민자, 위의 논문.

2) 긍정과 밝음의 미학

(1) 다양한 장르와 섬세한 표현

금원의 작품 「호동서락기」는 금원이 14살에 여행을 한 20년 후 그녀 나이 34세인 1850년 봄에 탈고한 작품이다. 그녀는 제목을 ‘호동서락기’라 칭한 이유를 본문에다가 밝히고 있다. 즉 1830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의주를 거쳐 충청북도 제천 의림지와 단양 삼선암과 사인암, 영춘 금굴과 남굴, 청풍 옥순봉으로 이어지는 호서지방의 ‘호(湖)’와, 표훈사, 만폭동, 유점사, 구룡폭포 등 금강산 및 고성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 예부터 칭송되어온 관동팔경을 둘러본 후 다시 설악산으로 들어 대승폭포와 백담사, 수렴동 계곡을 유람한 관동팔경의 ‘동(東)’, 그리고 낙양, 관서지방의 ‘서(西)’, 그리고 만부(灣府)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기에 한양의 ‘락(洛)’이라고 해서 ‘호동서락기’라 이름 붙인다고 했다. 즉, 충청도 호서지방의 호(湖),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동(東), 평양과 의주 등 관서지방의 서(西), 서울 한양의 락(洛)을 따서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라고 한다는 것이다. 1850년에 쓰고, 편집은 이듬해에 하였다. 서문 격으로 김원근(金瑗根)이 머리 시를 쓰고 주를 달아 금원의 약력을 소개하고 있다. 발문에서는 이 책의 전말을 썼고, <음사절(吟四絶)>의 머리 주에서는 삼호정 동인들을 소개하면서 시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호동서락기」는 금원 자신이 유람하고 거처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일대기적인 성격을 지닌 기행문이다. 기행문이라 주변 경물이나 상황, 자신의 감정 등을 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군데군데 시를 작성해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설화나 역사, 민속과 관련된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호동서락기」는 일종의 종합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 들은 것을 섬세하고도 상세히 기술해 놓았기에 당시 의식주나 풍습 등 민속 자료적 가치도 큰 작품집이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4세에 남장을 하고 금호사군과 금강산, 관동팔경을 거쳐 서울에 돌아오기까지 명승지를 유람한 행적과 감회를 서술한 부분이며, 둘째 부분은 김덕희와 연을 맺은 뒤 몇 년이 지나 의주에 갔을

때를 기술한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남편 김덕희가 벼슬에서 물러나자 한강 변에 있는 용산 삼호정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그 당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자료 : kbs 천상의 컬렉션 13편(7월 8일 방송)

<그림 II-1>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호동서락기」 작품집에는 다양한 장르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면, 기행문이나 역사, 시, 설화, 민속, 전고 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기행이나 시들은 주관적인 시각이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르이지만 역사나 설화, 민속 부분은 자신의 식견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한 것, 자신이 본 상황 등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전체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 이 작품집에는 고뇌하고, 침참되고, 외롭고, 쓸쓸한 작가적 시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단지 남편 김덕희 사망 후 쓴 제문은 침통하고 애절한 내용들로 이루어졌겠지만 이 제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단지 집안 친척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이 제문이 상당히 명문이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금방 집안 아이들로부터 금원의 祭文을 얻어 읽어보니, 그 문장이 情에서 나온 것인지, 문장이 정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아파하며 곡진하고 도타운 슬픔과 애통함이 족히 사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어찌 이처럼 기이한 글이 있단 말입니까? 그중에서 글의 기운이 편안하고 구성이 반듯하며, 움직임은 파옥 소리에 맞고 얼굴은 동관(역사를 기록하는 여자 관리)과 같습니다. 화장을 질게 한 여인의 기미는 한 점도 없고 옛날 여사의 요조한 품격만 있어, 턱 아래

3척 수염을 휘날리고 가슴속에는 5,000자의 글을 담고 있는 제가 부끄러워 죽고만 싶을 뿐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어떤 모양인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의 심상한 테두리 속의 일개 보통 사람으로만 보았으니, 한갓 이 사람만 위하여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가슴에 책을 품고 옥을 품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같은 작은 마음속에 거대한 바다와 높은 산을 감추고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아아!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정희, 『완당전집』 2 <書讀> 上 再從兄 道喜氏)⁶⁷⁾

제문인 만큼 당연히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었지만 김정희가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부끄러워 죽고만 싶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과장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추사를 놀라게 할 정도의 명문이었음은 틀림없다.

현존하는 글은 「호동서락기」 뿐이기에 현재는 이 작품집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고자 한다. 일단 「호동서락기」는 기행문이다. 금원이 직접 다닌 후 작성한 기행의 여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고향 원주→제천(의림지)→단양(사인암)→영춘(금굴, 남굴)→청풍(옥순봉)→금강산이 걸쳐 있는 4개의 군에 소재한 명승지 구경→금강산 단발령→표훈사→만폭동→정양사→마하연암→불지암→묘길상→유점사→금강 구룡연→통천(총석정)→고성(삼일포)→간성(청간정)→양양(낙산사)→강릉(경포대)→울진(망양대)→평해(월송정)→삼척(죽서루)→설악산(대송폭포)→한양 남산→창의문→세검정→탕춘대→삼계동 별장→정릉과 왕십리→남관왕묘(관우 사당)→원주에서 머물며 지내다→의주 부윤 행차길 동행, 선죽교→평양 연광정→안주 백상루→정주성→의주→용산 삼호정에서 시사 활동

이들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이용해서 지역 정보나 그곳의 실태, 배경, 자신의 감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 다양한 종류의 글을 표현하는 일관된 특징은 정교하고 비교적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설화가 10편 정도 제시되고 있다.

67) 김정희, 『국역 완당전집』 제2권, 민족문화추진회 편, 204쪽 재인용.

■ 설화

금강산을 방문했던 조선조 선조들은 대부분 금강산 설화를 한두 편이라도 책자에 남기고 있다.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도 거의 제시하고 있다. 자신은 설화의 망탄된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예전부터 전해오고 있으니 듣고 기록했다는 변명 비슷한 언급을 첨부한다. 금원도 예로부터 전해오는 금강산 설화 9개와 단양 설화 1개 등 총 10편 정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실 금강산을 주제로 해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설화는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조에 오면서는 이러한 설화가 허황되고 망탄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치부되어 전하지 않아서 거의 사라졌다. 단지 문집에 기록된 것이 전해오는 형편인데 이들이 이 설화를 기록한 것은 ‘자신들이 믿어서가 아니고 믿지 못할 내용이지만 들었으니 기록한다’는 입장에서 제시했기에 그나마 전해지고 있다. 금원도 마찬가지다. ‘믿을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정도의 언급을 하며 기록하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두어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문집에도 나오는 설화이다.

단양 선암에 얽혀 있는 설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단양 선암- “옛날 나무꾼 한 사람이 산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신선들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는 정신이 빠졌다.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모두 변하여 자신의 얼굴을 몰라보더라. 몇백 년 지났는지 몰라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가 바로 자신의 5대손이었다고 한다.”

금강산 보덕굴 설화를 제시하고 있다.

② 보덕굴- 암자에는 옥으로 만든 불상 하나가 있고 그 앞에 향아리 같은 불까마귀 모양의 금향로가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였다. 한눈에 보아도 큰돈을 들여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선조비 인목왕후의 딸인 정명공주가 시주한 것이라 한다. 승려가 말하기를, “옛날에 비구니 한 사람이 보덕굴에서 수도를 하다가 앉은 채로 운명을 하자 이 굴에 다니는 대중들이 암자를 짓고 때에 따라 제를 올리고 암자와 굴을 다 같이 普德이라 이름하였다.”라고 했다.

청학대 설화를 언급하고 있다. 청학대라는 높은 바위에 학이 새끼를 치려고 했는데 양사언(봉래)이 쓴 글씨에 기운을 빼앗겨서 날아갔다는 전설이다. 그러나 청학대의 학에 대해 언급하는 듯하지만 실은 양사언 글씨의 영험함을 알려주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양사언은 금원만큼 금강산을 사랑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호도 금강산의 다른 이름을 붙였다고 알려져 있다. 금강산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것이다.

③ 청학대-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청학이 이곳(청학대)에 깃들어 살다가 이 봉에서 새끼를 치려 했는데 양봉래가 ‘원화’의 큰 글씨를 써서 이 봉이 기운을 그 글씨에 빼앗겼기에 날아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오탁정 고사는 워낙 유명하다. 유점사를 완성하고 보니 안타깝게도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샘물이 나오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까마귀 한 마리가 부리로 땅을 쪼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파서 얻은 이름이라는 설화이다. 이 설화에 대해서 금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④ 오탁정- “오탁정이라는 우물이 법당 동쪽에 있는데 물이 맑고 물맛이 달다. 이 절에는 본시 샘이 없었으나 어느 날 까마귀가 와서 갑자기 땅을 쪼기에 종이 그곳을 찔더니 거기서 물이 솟어나 그 물이 마르지 않아 이 우물을 까마귀가 쪼아서 얻은 우물이라 하여 그 이름을 오탁정이라 했다고 한다.”

금강산을 방문했던 대부분 유학자들이 자신은 이런 허황된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금강산 제일 유명한 유점사 설화를 금원도 소개하고 있다. 다른 선비들처럼 ‘나는 믿지 않지만’이라는 부기를 한 것도 다른 선비들과 동일하다.

⑤ 유점사 “이 절은 광해군이 와서 머물렀던 일이 있는 절로 예종과 성종 두 대에 걸쳐 나라에서 토지의 하사를 받은 바 있고 왕의 친필로 된 문서들이 있어 특별히 어실을 따로 짓고 세 왕의 친필로 된 문서들이 있어 특별히 어실을 따로 짓고 세 왕의 위패와 친필을 봉안하고 있다. 이 절에 여러 번 불이 났을 때 불길이가 위패와 친필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 처마 밑을 감돌면서 불은 옮겨붙지 않았다고 한다.”

유점사 창간설화이다. 고려시대 민지(1248-1326)의 기문(記文)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고려시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친 인물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 조선조 선비들도 망탄된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따라서 언급하는 부분도 크다.

⑥ 유점사 53불- “불상을 봉안한 탁상 위에 사슴뿔같이 생긴 나뭇가지를 옆으로 놓고 그 가지 사이마다에 53불을 앉혀 놓았으나 다 규모가 작아 몇 치에 불과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 문수대사가 53개의 종을 주조하여 모두 불상을 만들면서 주문을 외우니 53종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문수가 이 종을 바다에 띄워 보내 월씨국에 이르게 하였다. 월씨국왕이 종을 두드리며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라’고 주술을 외웠더니 종이 돌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금강산이 있는 고성에 이르러 53불이 되어 바위굴 속에 의탁하게 되었다. 여기가 지금의 현종암이다. 이때 어떤 승려의 꿈에 할머니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는 한 강아지가 길을 인도하고 뒤에는 푸른 노루가 따라가는 꿈을 꾸었고 이 꿈으로 해서 생긴 지명이 지금의 구령(狗嶺: 개재) 장령(獐嶺: 노루재)이다. 꿈을 이상하게 생각한 승려가 꿈속에서 보았던 길을 따라 가보니 53불이 소나무 사이에 있기에 고성군수 노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고성군수 준이 이졸들을 거느리고 찾아가 53불을 모시려는데 53불이 바위굴 가운데서 날아 나와 큰못 옆의 유수(楡樹: 느릅나무) 위에 앉았다. 준이 신라 남해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큰못을 메우고 절을 지어 53불을 봉안하고 유수에 앉았던 연유로 이 절 이름을 유점사라 하였다. 여기에 불상을 나뭇가지 귀통이에 앉혀 놓은 것은 이 불상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유수에 앉았던 것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구룡연 설화도 유점사와 연결된 이야기이다. 아래와 같이 이를 기록하고 있다.

⑦ 구룡연- “유점사의 큰 못에 아홉 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신상이 3일 낮 3일 밤을 독경을 하여 이 못에서 쫓아냈다. 여기서 쫓겨 나온 용들은 산중의 폭포로 가서 큰못에 들어가 이 못이 구룡폭 밑의 구룡연이 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에는 유점사 창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준의 화상이 있다. 붉은 도포에 오모(烏帽)를 쓰고 황금색 띠를 띠고 홀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그 옆에 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과 작은 말이 있다. 이것은 노준의 조오가 그의 말이라 한다. 하실에서 제를 올리는데 노준의 처가 반대하여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증무소로 쓰고 있다. 성황신간의 공간이 약탈될 때 불상 세좌를 잃어 버려 이 절의 승려가 다시 만들었더니 꿈에 세 불상이 나타나 불상을 새로 만든 것은 좋지 않다고 해 승려가 해상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깊은 산 산정에서 세 불상을 찾아 있던 곳에 다시 안치하였다고 한다. 이는 다 고려시대의 문인이던 민지라는 사람의 기록이며 민지는 불교를 호신하여 스스로 법회라고 호를 한 사람이다. 내용이 다 황당하니 그 사실 여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유점사 절 마당에 있는 연기 나지 않는 솔에 대한 설화도 기록하고 있다.

㉞ 무연조(無煙竈)- “절 마당 가운데 12층의 탑이 있는데 조각이 정교하고 동으로 된 큰 가마는 얼마나 큰지 물 백 말은 들어갈 것 같다. 이 가마는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수륙대재(水陸大齋:절에서 하는 행사의 하나로 수륙의 모든 잡귀신을 공양하는 법회 때 밥을 짓기 위하여 쓰는데 나무를 때어 불을 사르면 불이 잘 타고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가마를 일러 무연조라고 부른다. 역시 기이한 일이다. 내외의 큰절에는 이러한 큰 가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 만이천봉 설화를 제시하면서 ‘망탄스럽다’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㉟ 담무갈(曇無竭)- “절에 있는 옛 기록에는 중국의 신승 담무갈이 중국에서 와서 중향성에 앉아 12,000 제자를 모아놓고 설법하다 부처가 되었고 모든 제자들은 만 이천 봉우리로 변했다 한다. 지금도 한 큰 바위를 가리켜 담무갈(曇無竭)의 화신이라고 하니 어찌 망탄스럽고 망탄스러운 말이 아니겠는가? 내산의 둘레는 대략 6, 70리 정도요, 외산의 둘레는 100여 리 정도는 됨직하다. 외산은 전부 고성을 근거로 북쪽으로 갈래가 뻗어 통천까지 들어오고 있다.”

삼일포 사선정 설화는 워낙 유명하다. 이 부분도 빼놓지 않고 있다.

㊱ 삼일포 사선정(四仙亭)- “신라 때 신선인 영랑, 술랑, 안상, 남석 네 사람이 놀던 곳이어서 정자의 이름을 사선정이라 했다. 삼일(三日)이라 호(湖)를 이룬 것은 사선이 이곳에서 사흘 동안 놀았기 때문이다. 섬 바위는 바로 물의 중앙에 있고 정자는 그 위에 있다. 험한 돌이 첩첩이 쌓여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옆드린 호랑이 같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산비둘기 같기도 하고, 거북이 같기도 하고, 봉어 같기도 한 바위들이 정자 주변을 막아 보위하여 스스로 난간처럼 띠를 이루고 있다. 정자는 4칸인데 기둥은 원통형이 아닌 육면체로 돌이 그 반을 잇고 있다. 정자 안은 방이나 마루를 설치하지 않았고 오직 벽돌을 깔았다. 호수의 주위는 각기 화살 몇 바탕의 땅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도 둘레가 40리라고 일컫는다. 세속에 얽힌 속된 생각이 이곳에 이르러 깨끗이 씻겨 없어지니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를 것 같다.”

■ 역사⁶⁸⁾

일반적인 기행문이 단시일의 여행과 관련된 사실을 기술한 것에 비해, 「호동서락기」는 몇십 년 동안의 여행이나 생활 등을 정리한 것이라 일반적인 기행문에 비해 공간과 시간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행문과는 차이가 있다. 즉, 기행문에 시가 삽입되는 경우는 다른 기행문에도 적지 않지만 설화와 역사적 사실, 당대의 풍습까지 반영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호동서락기」에는 시를 비롯해서 설화와 역사, 풍습, 민간신앙까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가 언급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호동서락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신라 시대 역사적 사건부터, 금강산에 얽혀 있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고려 선죽교, 홍경래 난과 얽힌 일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금원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신라가 망할 때에 여기(옥경대) 와서 피신하느라 성과 궁궐을 명경대 뒤에 짓고 이 문을 통하여 출입하면서 몸에는 베옷을 입고 초식을 하면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성은 비록 물에 잠겨 있으나 옛 성터의 돌 더미 자취는 완연하게 남아 있다.”

신라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당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세력에 눌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자 935년(경순왕 9) 군신회의를 소집하여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마의태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데 어찌하여 충신, 의사와 함께 민심을 모아 싸우지도 않고 천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느냐며 반대했으나, 경순왕은 죄 없는 백성을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하여 시랑 김봉휴(金封休)를 시켜 국서를 보내 고려에 항복했다. 마침내 신라가 고려에 병합되자, 개골산(금강산의 별칭)에 들어가 베옷[麻衣]을 입고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으며 여생을

68) 역사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백과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마쳤다. 이렇듯이 벼옷을 입고 지냈다고 해서 마의태자로 불리는 비운의 신라 왕자와 관련된 일을 제시하고 있다.

“만폭동 못가의 큰 바위에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 여덟 자의 큰 글씨가 새겨져 있다. 금강산이 있는 회양부의 부사를 지낸 양봉래의 글이라고 한다.”

양봉래는 양사언(1517-1584)의 호이다. 금강산을 워낙 좋아해서 봉래산(여름에 부르는 금강산의 이름)에서 따서 봉래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인으로 이름이 높고 글씨체도 뛰어나서 서예가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만폭동 바위에 새겨 놓은 글귀가 유명한데 금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봉래나 풍악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인데, 결국 금강산의 기묘하고 아름다움을 다 구현한 으뜸가는 곳’이라는 의미의 글이다.

“이 절은(유점사) 광해군이 와서 머물렀던 일이 있는 절로 예종과 성종 두 대에 걸쳐 나라에서 토지를 하사받은 적이 있다. 왕의 친필로 된 문서들이 있어 특별히 여실을 따로 짓고 세 왕의 위패와 친필을 봉안하고 있다. 이 절에 여러 번 불이 났을 때에 불길이 이 위패와 친필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 처마 밑을 감돌면서 불은 옮겨 붙지 않았다고 한다.”

유점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며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원래 서기 4년(유리왕 23)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53불(佛)의 연기(緣起)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뒤에 제시되고 있는 유점사 설화를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그곳에 유점사를 창건하도록 했다고 고려 민지가 기록해 놓고 있다. 1168년(의종 22) 자순과 혜쌍이 중건한 뒤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대가람이 되었다. 1882년(고종 19)에는 대화재로 많은 전각이 소실된 것을 우은이 중건했으며, 금강산 4대 명찰의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31본산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남북 분단 당시에는 53불이 안치된 능인전을 비롯하여 수월당·연화사·의화당·서래각 등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절에는) 선조의 왕비인 인목왕후의 친필 마타경 한 첩이 있는데 광해군에 의하여 서궁에 유폐 당했을 때 쓴 것이라고 한다. 이 친필 첩 끝부분에 왕후의 본가 여러 친척과 영창대군의 명복을 비는 축원이 기록되어 있다. 정명공주가 시주한 것으로 칠보장 수병풍 몇 채가 있다.”

금원은 유점사에서 내려오고 있는 인목왕후의 친필과 정명공주가 시주한 칠보장 수병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선죽교 옛터에는 아직 선명하게 혈흔이 남아 있어 최고의 열사들이 눈물 떨구기에 충분하였다.”

선죽교의 옛 이름은 선지교이다. 919년 고려 태조가 하천정비의 일환으로 축조한 것이다. 고려말 정몽주가 철퇴를 맞아 숨진 사건 이후에 유명해졌다. 1780년(정조 4) 정몽주의 후손이 주위에 돌난간을 설치하고 별교를 세워 보호했다. 선죽교의 석재 중에는 부근 묘각사에서 나온 다라니당 일부가 끼어 있다. 다리 동쪽에는 선죽교라 씌어진 비가 있고, 다리 서쪽에는 1740년 영조의 어필인 포충비와 1872년 고종의 어필의 표충비가 있다. 부근에는 1641년 목서흠이 건립한 읍비와 1797년 조진관이 찬한 녹사비, 1824년 이용수가 찬하고 신위가 쓴 녹사비도 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금원이 제시하고 있다. 역사에도 밝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들이다.

“가산에 이르러 효성령을 넘었다. 산세가 험악하고 돌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만큼 거친 기운이 돌았다. 정주를 지나며 서장대를 바라보니 바로 그곳이 임신년의 난을 겪은 곳이다. 당시의 혼란스러움을 상상해 보니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듯하다.”

홍경래 난이 있었던 장소임을 인지하면서 임신년 난을 상상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는 듯 생생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홍경래는 1771년 평남 용강에서 태어나 1812년에 세상을 뜬 인물이다. 조선 말기 홍경래 난을 일으킨 반란군의 지도자이다. 세도정권의 부패정치, 삼정의 문란 등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여 1811년 조선왕조의 전복을 목표로 한 농민반란을 일으켰다. 1800년 서자 출신인 우군칙을 만나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우군칙과 함께 군사와 자금을 모으고 가산의

다복동을 근거지로 삼아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1811년 12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한 때 청천강 이북을 점거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으나 결국 관군의 반격으로 정주성이 함락되면서 교전 중에 총에 맞아 죽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금원은 그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의 유래와 역사 정치적인 사건까지 언급하고 있다.

“옛날에 한 장수가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 시내에서 칼을 씻었다고 한다. 어필로 ‘세검정(洗劍亭)’이라 쓴 편액이 누런 황금빛 비단에 싸여 있는데, 보배로운 먹 휘황하여 백 세에도 없어지지 않으리”

세검정은 글자 그대로 ‘칼을 씻은 곳’이다. 그 유래에 대해 「궁궐지」에는 1623년 인조반정 때 이귀, 김류 등의 반정 인사들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이곳에 모여 칼을 씻으며 결의를 다졌다 하여 세검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검정은 평안북도 압록강 기슭에도 하나 더 있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박남여 장군이 청나라 군사에 맞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지어졌고 관서팔경의 하나다. 금원이 이곳에서 ‘어느 장군이 전쟁 후 칼을 씻었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가 헷갈린 것이 아닐까 한다.⁶⁹⁾

“개시하는 것을 보려고 통군정에 올랐다. 압록강 변을 지키는 진영이 대략 40둔인데 수백 개의 횃불로 덮여 있었다. 매년 봄가을에 개시하는데 때로 용만부에서 명을 내려 이 정자에서 불을 올리면 갑군들이 일제히 불을 올려 좌우에 늘어섰다가 뿔피리 소리가 나면 서로 전투하는 대형을 만든다고 한다.”

외국과의 공적인 무역시장을 개시(開市)라고 하는데, 의주는 청나라와의 교역인 중강개시가 열리던 곳이다. 이 밖에도 함경도 경원, 회령지역에서 열린 북관개시와 일본과 무역하는 동래의 왜관개시 등이 있다. 중강개시는 세종 때 명나라와 처음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청나라의 요청으로 인조 때 다시 시작되었다. 드넓은 만주지역에서 주민을 정착시키려면 경작을 위한 소가 필요했다. 주거래 품목도 소,

69) 최선경, 앞의 책, 152쪽.

해삼, 소금, 면포, 종이 같은 생필품이었다. 하지만 점차 국가의 통제보다는 상인들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자유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이를 책문후시(柵門後市)라 부른다. 중강개시는 매년 2월, 8월에 압록강 하류 쪽에 있는 중강에서 열렸다. 금원은 1845년경 직접 목격한 개시 장면을 「호동서략기」에 기록했다.⁷⁰⁾

“넓은 들과 낮은 형체들이 허공 밖에 떠다니고 은빛 바다 옥같은 강이 눈을 어지럽혀 언덕이 흐르고 나무가 움직여 보이는 것이다. 단지 계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동 800리가 계문연수 아닌 것이 없다. 나는 항상 ‘연경팔경이 어찌 몇 백리 떨어진 요동 땅에 있겠는가’ 의심했는데, 연사(燕史)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역사가 잘못되었음을 한탄하기도 한다.

“연경 서쪽 성의 덕승문 밖 7, 8리에 계구(薊丘)라 부르는 흙 언덕이 있는데 광야 가운데 높이 치솟아 있다. 광활하여 막힌 것이 없고 안개 낀 나무가 천 가지로 총총히 늘어서 끝이 없다. 옛날에는 성문이 있어 계금문이라 하니 이때 비로소 ‘계문비우(薊門飛雨)’라 불리며 연경팔경의 하나가 되었다. 명나라 때 글자 비우를 연수(煙樹)라 고쳤고 건륭황제가 계문연수 네 글자를 써서 비석에 새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문이 이곳에 있는 줄을 모르고 계주(薊州)를 지날 때면 반드시 안개 낀 듯한 연수의 경치를 지칭한다. 하지만 계주는 옛날 어양(漁陽)으로 수나라 문제 때 명칭이 ‘계주’로 바뀌었다. ‘계’자가 서로 같아 일찍부터 혼동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동된 명칭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연행사들의 사행이 연경까지 500년을 이어왔고 역관 등이 수십 번씩 왕래하며 그 땅을 밟았지만 연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가히 한탄스럽다.”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이 본 신기한 현상을 모두 ‘계문연수’라 적었다. 금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계문연수는 연경 서쪽 계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동이나 계주의 신기루 현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누가 ‘계문연수’로 지칭한 후로는 아무 의문 없이 답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70) 위의 책, 229쪽.

■ 전고

전고(典故)란 옛사람의 글이나 언술 등을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으로 친다면 따라하기나 표절에 해당되지만 예전에는 전고를 사용해야 자신의 글이 돋보인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예전 선조들의 글을 보고 표절이나 위작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고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징표이기도 했다. 옥봉도 글 속에 여러 가지 전고를 사용하고 있다.

“늘어선 산봉들은 마치 옥항아리에 산호 붓을 꽂아놓은 듯하고 아름다운 연못이 열려 백련화가 한 떨기 우뚝하게 피어 있는 것 같으니 여와가 담금질하던 곳이 아니었겠는가? 기이하고 수려하기로 보면 우공이 산을 옮겨 왔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 고대 신화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알려진 여와를 등장시킨다. 광경이 너무 아름답기에 조물주의 신력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치임을 알리는데 효과적인 인물이다. 신화에 의하면 기둥이 무너져서 화재와 홍수가 나자 여와가 다섯 가지 색들을 녹여 하늘의 구멍을 막았다고 한다. 옥순봉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여와가 색들을 녹여 만든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옥순봉의 아름다움은 다름 아닌 우공이 산을 옮겨서 만든 것이라고 중국 우공 고사를 인용해서 그 아름다움과 기이함, 신비함을 표현하고 있다. 우공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자신이 계획한 일을 기필코 이룬 신화적 인물이다. 신화와 역사, 전고에 능했던 금원을 만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전고는 흥석정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하나하나가 기울지도 않고 쏠리지도 않고 불거지지도 않고 패이지도 않고 면면마다 같고 같아 하나로 묶어 그 어느 것도 기동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 모두가 반드시 육면체이니 이는 과연 무슨 깨달인가. 천하 명산기를 두루 살펴보아도 총석과 비슷한 것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것이 있으니 어찌 더욱 기이하고 이상하지 않은가. ... 초나라의 영왕과 진나라의 시왕, 한나라의 무제가 이것을 본다면 반드시 천하의 백성들의 힘을 동원하여 전부 깎고 다듬어 장화궁, 아방궁, 백량대의 기둥을 세웠을 것이다.”

금강산 총석정의 기이함과 아름다움을 초나라 영양, 진나라 시왕, 한나라 무제 등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왕들을 등장시켜서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건물을 건설했던 왕들이다. 장화궁, 아방궁, 백량대가 그것으로서 거대한 규모를 대변한다. 총석정의 기이함과 거대함이 마치 이들 궁과 같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묘길상 광명대를 묘사할 때도 전고가 사용된다.

“제물을 올리고 불을 밝혀 연등하는 곳이었다. 그 옆으로 한 줄기 은하수 같은 물길이 흐르는데 층층이 아래로 흘러져 천 갈래 실이 흰 비단에 걸려 있는 듯하다. 만약 이태백이 이것을 보았다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태백과 여산을 인용하면서 묘길상 광명대가 여산 보다 뛰어남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전고는 이렇듯이 어떤 사물을 부각시키려고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설악산 대승폭포를 보고 쓴 글에도 전고가 사용되고 있다.

“그 쏟아져 날리는 기세는 바람의 신이 연술하는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장관이니 여산의 응암과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폭포는 삼천 척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백이 ‘날아 흘러 떨어지니 길이 삼천 척,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구나(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라고 읊은 구절은 바로 이 폭포의 신기함을 전하는 것일 것이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중국 장시성에 있는 여산에 흐르는 폭포를 바라보며 읊은 시 ‘날아 흘러 떨어지니 길이 삼천 척,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 같네(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를 인용하였는데 이 구절은 멋진 폭포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 금원에게는 대승폭포가 이와 같아서 우리 산천이 중국 못지 않은 절경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고를 사용하고 있다.

■ 당대 풍습 및 세태

「호동서략기」에는 당대의 생활상이나 세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남산에 올라 대궐을 내려다보니 용루 봉각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다. 성시를 내려다보니 채색담장과 성가퀴에 아름다운 기운 가득하다. 부자들의 크고 좋은 기와집들이 서로 이어졌고 깃발 꽃은 술집들이 골목마다 마주하고 있다.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 길 인도하는 소리가 동서로 달리며 시끄럽고 변화한 서울 거리에서 부귀를 다투어 자랑한다. 백마 타고 채찍 휘두르는 한량들은 삼삼오오 의기투합하여 청루 주점에서 서로 만나니, 진실로 태평의 기상이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스스로 안목이 좁은 것을 비웃었으나 성내를 두루 돌아보고는 비로소 가슴이 탁 터지는 것을 느꼈다.”

남산에 올라가 대궐을 바라본 풍광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대궐 ‘용루 봉각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작가의 주관적 표현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느껴진다. 대궐뿐만 아니라 한양시가지에도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을 보면 당시 한양에는 채색담장을 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술집이 많았고, 술집을 나타내는 표시로 깃발을 꽂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시가지에 말을 타고 다니거나 수레를 타고 다녔고, 청루 주점에 갈 때는 말을 타고 갔다는 정보도 제시되고 있다. 고향 원주와는 차이가 나는 풍광에 스스로의 안목이 좁았음을 비웃고도 있다.

평양에서의 언급에서도 정치한 묘사와 이를 통한 그 당시의 세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성안의 시장은 변화하고 여염은 조금의 틈도 없이 뻣뻣하였으며 땀나무와 장독, 소금이 모두 옥상까지 쌓여있다. 울긋불긋한 문, 맑은 생황 소리와 흐느끼는 피리 소리. 이는 모두 창가의 교방이다. 강변에서는 숨을 표백하는 소리,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종일 그치지 않으니 역시 이름난 고장이요. 훌륭한 땅이다. 단군과 기자 이래 천 년의 도읍 됨이 마땅하다. 성밖에는 지금도 정전(井田) 터와 기자묘가 있다고 한다.”

평양의 시장, 그중에서도 창가교방이 어떠했는지가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집집마다 땀나무와 장독 소금이 모두 옥상까지 쌓여있고, 문은 울긋불긋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생황소리, 피리 소리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한 강변에서는 숨을 표백하거나 물레를 돌려서 의복이나 이불 등을 마련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성 밖에는 정전터와 기자묘가 있다. 단군과 기자조선 이래 도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듯이 생생하고도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의주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주 지역에서의 행사나 풍광 등도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이 제시되고 있다.

“마침내 의주 소곳관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주 경내의 첫 역참 시설로 신구관이 인수인계하던 곳이라서 관부에 속한 향장, 이방, 노비, 기녀들이 모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장상관이 크게 위의를 떨치는데 기치와 창검, 군장 복색이 서울보다 못한 것이 없다. 문에서 전립을 쓰고 짧은 소매에 긴 옷을 입는 기녀들이 은안준마를 타고 쌍쌍이 앞을 인도하였다. 머리 장식 고가 패물, 녹의홍상이 지극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뿔피리 소리에 맞춰 일제히 말에 올라 군령을 기다린다. 용만(의주)은 국경을 수비하는 중요지역이기 때문에 기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을 달리고 검술을 익힌다. 신관이 도임할 때마다 준비가 극히 호화로운 것도 그 때문이다. 구경하는 사람의 눈이 현란하고 정신이 황홀해진다. 앞서 배행하는 나졸들의 선명한 복색은 30리까지 이어졌고 그 위세가 보통 수령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의주에서 신관과 구관이 서로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분위기도 밝고 세세한 부분 묘사가 뛰어나다. 향장이나 이방, 노비, 기녀들이 모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특히 기녀들 의복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이다. 전립을 쓰고 짧은 소매에 긴 옷을 입고 은빛 안장을 한 말을 타고 있으며, 머리는 패물을 꽂고 저고리는 녹색을, 치마는 붉은색이며 뿔피리 소리에 맞춰 말을 타고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에 대해, ‘눈이 현란하고 정신이 황홀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나졸들도 채색옷을 입었으며 30리를 배행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당시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압록강 변방에서 행해지던 군사들의 공식적 행사도 상당히 세세히 묘사되고 있다. 기녀를 비롯해서 말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중 경혜라는 기녀가 손으로 쌍검을 쥐고 춤을 추는데 민첩하기가 나는 제비 같아 진기한 구경거리였다. 이곳은 서쪽 변방의 중요한 진영이고 위씨(위만조선), 고씨(고구려), 왕씨(고려) 이래로 활 쏘기와 말타기를 숭상한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말 타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 변 각 진영의 군사들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행사인 개사에 동원되었다. 특히 개시 전야제는 햇불을 밝히고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홍도가 그린 평양감사 향연도의 월야선유도에 나오듯 불야성을 이룬 강변의 모습은 불만한 구경거리였다. 청나라와 조선의 관리들, 무역상인들, 마을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축제 모습이 떠오른다.”

변방에서 조선과 청나라 양국 간 행사가 있었음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로 말하면 아마도 축제의 날을 마련했던 듯싶다. 전야제도 있었다. 이러한 풍광이 김홍도의 향연도와 비슷했음을 밝히고 있다. 야밤에 불을 켜서 강변에서 행사를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청나라와 조선 관리, 무역상인, 마을 사람들까지 나와 북적거리며 복잡하고 화려했던 행사를 치루고 있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바닷가 서민 여성의 모습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조선조 바닷가 풍광, 특히 어촌 모습이 어떠한지 상세히 알 수 있다.

“해변에는 나이 든 여인들이 다리를 드러낸 채 미역을 캐고 있었고, 장삿배들은 자주 창파에 출몰하였다. 포구 주변의 시골집들은 대부분 고래 뼈를 절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크기를 알 만하다. 많은 물개가 물에서 나와 바위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모두 검은색으로 모습이 비슷하였다. 물개는 사람을 보면 짓고 가까이 다가가면 곧 물속으로 들어간다.”

당시 여인들이 물가에서 미역을 따고 있는 모습이다. 물 속이니 당연히 다리를 건었을 터인데, 이를 보고 다리를 드러낸 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금원이 보기에 해괴하다고 느낀 듯하다. 또한 포구 주변 시골집에서 고래 뼈로 만든 절구를 사용했다는 독특한 정보도 감지된다. 귀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조만 해도 우리나라 동해에는 물개가 많았다는 사실도 파악된다. 물개가 많으니 물개들이 떼 지어 있다가 사람을 보면 짓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얼른 물속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세밀히 표현했는지 그 광경이 이미지로 환원되어 그대로 상상된다. 음식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 건 등장한다. 특히 ‘백어’를 직접 낚싯대로 잡아서 회를 쳐서 먹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갑자기 버드나무 사이에서 고기잡이 노래가 들려오기에 멀리 이끼 끼어 있는 바위를 바라보니 노인 한 사람이 샷갓에 도롱이 차림으로 낚싯대를 드리우고 푸른 물결 속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낚아내고 있다. 고깃배를 한 척 빌려 소리 나는 대로 찾아가니 바람은 고요하고 물결이 일지 않아 배에 앉아 있는 광경이 그림과 같다. … 낚시터에 가서 돈을 주고 백어를 사서 회를 쳐먹으니 중국 오송강에서 나는 농어회도 이것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또 순채를 구해 못가에 있는 초가집을 찾아가니 노파가 환영하여 주었다. 순채 먹는 법을 가르쳐 잠시 끓는 물에 먹었다가 꺼내어 오미자 국물에 섞어 먹으니 그 맛이 몹시 맑고 담백하다. … 이 못의 승경은 일 년을 지나도록 여기서 놀아도 다 알기 어렵다는데 가지 않고 오래도록 여기서 방향만 할 수 없기에 후련한 마음으로 시 한 수를 짓는다.”

의림지에서 금원은 낚시도 하고 백어를 사서 회도 쳐먹고 순채도 구해서 먹는다. 백어는 사전에 의하면 뱀어과라고 한다.

“뱀어는 몸길이 10cm 쯤으로, 가늘고 긴 몸에 꼬리 부분은 옆으로 편평하고, 머리는 위로 편평하며, 몸 빛은 투명한 은빛으로 배에 작고 검은 점이 줄지어 있다. 봄에 강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양천현(陽川縣)의 토산조를 보면 서쪽 굴포(堀浦)에는 겨울의 아주 추운 시기에 언제나 백어가 나는데, 그 맛이 제일이어서 먼저 상공(上供)한다고 하였다. 한편 뱀어는 왕기(王氣)가 있는 곳에서 나므로 한강과 백마강에서만 잡힌다고 한다.⁷¹⁾

뱀어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로 나는데 그 맛이 아주 맛있다고 한다. 그런데 뱀어를 회를 쳐서 먹었고 낚시터에 가서 사서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 뱀어 같지는 않다. 뱀어를 “저수지에 주로 서식하는 빙어 중에서도 순수토종 빙어는 제천 의림지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니 여기서 말하는 백어가 빙어를 가리키는 듯하다.”⁷²⁾고 하지만 빙어를 회를 쳐서 먹지는 않는다. 회를 먹을 때도 통째로 먹는 물고기가 빙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 어떤 물고기를 백어라고 했을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지칭하는 백어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하얀색 물고기로서 제천 의림지에 서식하고 있었고 낚시를 해서 잡으며 그 맛은 아주 맛있었다. 농어회보다 맛있었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71)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고전용어사전.

72) 최선경, 앞의 책, 33쪽.

백어 외에도 순채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순채도 물에서 나는 식물 종류이다.

“잎 길이는 6~10cm, 나비 4~6cm의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뒷면은 자줏빛이 돌고 가운데 잎자루가 달려 물 위에 뜬다. 잎이 자랄 때는 어린줄기와 더불어 우무 같은 점질로 둘러싸인다. 언뜻 보기에 연잎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순채의 잎은 점액질에 싸여 있어 구별된다.’는 식물로 순나물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우무 같은 끈끈한 점질로 싸인 어린순을 여름에 채취하여 묵나물이나 약으로 사용한 데서 순채(순나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관상용·식용·약용으로 이용된다. 어린순을 식용하는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환제 또는 산제로 하여 사용한다. 외상에는 짓이겨 붙인다.’⁷³⁾

언뜻 보기에는 연잎처럼 생겼고 잎이 점액질로 싸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다시마 비슷한 식용물품인 듯하다. 순나물로 알려졌고 식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약이나 관상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니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물품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요리해서 먹는 방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순채를 요리하는 방식은 ‘순채를 잠시 끓는 물에 넣었다가 꺼내어 오미자 국물에 섞어 먹는 다’는 것이다. 그 맛은 맑고 담백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풍광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맛있는 생선과 물품을 요리해 먹으면서 느긋하게 생활하고 있는 양반의 일상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이 금원의 여행은 모든 것을 완상할 수 있도록 여유있고 풍족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친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이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호동서략기」에는 의식주에 대한 기술 외에도 당시의 민간 신앙 중 하나인 관우 신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당시에는 관우에 대한 신앙이 성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아! 관왕께서는 하늘을 떠받치는 의로서 사셨고, 해를 꿰뚫는 총으로써 사셨도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오나라 도적의 꾀에 빠지셨으니 분에 사무친 원통한 기운이 천지에 암울하게 뭉쳐 왕왕 구름과 안개 속에서 크게 신병(神兵)을 이끌고 천하를 떠돌며 다니다가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

73) 다음 백과사전.

꺾어 버리니 이 때문에 천하의 사람으로 누구든 그를 존경해서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 동쪽 나라의 임진란도 역시 관왕이 현성하시어 바람과 우레로 왜적을 깨끗이 없애 버렸는데 남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다하게 되어 성의 동남쪽에 각각 하나씩의 묘를 세웠으니 남쪽에는 생시의 모습을 조각하여 적색으로 하였고, 동쪽에는 돌아가신 다음의 모양을 조각하여 황색으로 했다. 그러나 그 위치와 제도는 모두 중국을 모방했다.”

관우를 섬기는 묘가 한양에는 동문과 남문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로서 의리가 있고 싸움을 잘하며 충성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었기에 그를 기리는 민간 신앙이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듯이 관우를 숭배하는 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승례문 밖에 있으며 처음에는 명나라 장수 진인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명나라 군사들이 관왕묘를 세워 주기를 요청하여 세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관우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금원은 조선이 임진왜란에 패하지 않은 것을 관왕 덕으로 보고 있다.

“조선에서도 관우 사당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당이 되었다. 처음에는 왜군을 쫓기 위해 파병해준 명나라를 향한 감사의 표시로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점차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토착화되었다. 억울하고 분하게 죽은 관우의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의로운 사람을 돕고 도적을 멸한다고 믿었던 것이다.”⁷⁴⁾

그 외에도 당시 관우를 어떻게 섬겼는지, 사당은 어떤 모습인지, 관우의 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금원의 상세한 필치 덕분에 당대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삼문(三門)이 있지만 협문만 열어놓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문지기가 전립을 쓰고 짧은 채찍을 쥐고 집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문세(門稅)를 내야만 하였다. 좌우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입구에는 관운장의 부하였던 주창이 능름하게 적토마의 고삐를 잡고 우뚝 서 있다. 문 안에는 돌로 쌓은 산이 있고 곁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놓여있는데 그 아래에 석호(石虎)가 쭈그리고

74) 최선경, 앞의 책, 169쪽.

앉아 있다. 작은 뜰에는 두견화가 활짝 피어있고 그 앞에 시왕전(十王展)이 있다. 시왕전 안에는 보살들이 일렬로 앉아 있는 조각물이 있으며, 좌우에는 삼국시대의 전투대형이 그려져 있다. 남병산, 장완고 화용도와 같은 진영의 모습이 역력히 들어온다. 비각에는 관왕의 사적을 찬양하는 영조의 어필이 있었다. … 검은 두건에 작의를 입은 당직자의 인도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옆에 한 도사가 목에 108 염주를 걸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맑고 빼어난 것이 옥천산 보정선사의 조각 같았다.

갑옷과 투구를 쓴 여러 장수가 좌우에 서 있었고 중앙의 용상 위에 관왕이 앉아 있다. 관왕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규를 잡은 임금의 모습이었다. 누에의 눈썹과 봉(鳳)의 눈에는 힘찬 기상이 흐르고 대춧빛의 붉은 얼굴과 삼각형의 멋진 수염이 서릿발 같은 위엄을 드러낸다. …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집집이 사당을 지어 올리고 있으니 그 장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성껏 술과 과일 일을 바치니, 당직자가 큰 소리로 잔을 올리라 한다. 제의를 마친 후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나오는데, 상 밑에 <춘추(春秋)> 일부가 쌓여있고 그 앞에는 점치는 통이 하나 놓여있었다.”

관우의 사당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3개나 있었지만 다 닫아놓고 조그만 문 하나만 열어놓아서 잡인들의 출입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지기가 있어서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했으며, 들어가서 예만 올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일, 술 등을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다는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금원의 상세한 필치 덕분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풍광인지 등이 상세히 눈에 잡힐 듯이 제시되고 있다. 관우는 관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임금의 복장을 하고 있음도 알 수 있고, 내부에 영조가 관우를 찬하는 글을 쓴 것도 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원이 관우에게 절을 하고 나오는데 그곳에 점치는 통이 하나 놓여 있다고 했다. “조선 백성에게 관우신앙은 꽤 깊었던 모양이었다. 남묘와 동묘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와 있고, 관왕묘를 입장하는데 문세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장료인 셈인데 이대에도 입장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우의 무덤, 아마도 사당을 그렇게 표현했던 듯싶다. 그곳에는 관우의 인물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남쪽에는 생시의 모습을 조각하여 적색으로 채색했고, 동쪽에는 세상을 뜬 후의 모양을 조각하여 황색으로 채색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와서 기원을 하고

75) 김소원·권태연·이영춘(2012), 『역사 속 원주의 여성인물』, 원주문화원, 80쪽.

또 점도 치고 했던 듯싶다. ‘문세’라고는 하지만 점을 칠 수 있게 해 놓았으니 복채의 기능도 함께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호동서략기」에는 당시 시정이나 세태 등에 대한 정보나 의식주 등 생활, 신앙, 민속적 자료 등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귀중한 자료이다.

■ 시

금원의 시를 통칭 26편이라고도 하고, 24편이라고도 하며, 30여 편이라고도 하지만⁷⁶⁾ 「호동서략기」 발문에 죽서가 남긴 글을 보면 금원이 남긴 시는 27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나는 금원과 동향 사람으로 가까웠고 또 호수를 따라 노닐며 그가 유람한 것을 적은 문장을 보았다. 비록 작은 책이지만 파도가 성대하게 만 리에 출렁거리는 느낌이였다. 시는 모두 27편으로 거문고가 울리듯 쟁쟁하는 소리가 있다. … 시와 문은 그 사람의 목소리와 말씀 일부인즉 어찌 금원을 알기에 충분하였는가. 비록 그러하나 단산에 내리는 비만으로도 가히 전체를 상상할 수 있으니 이를 진귀하게 여길 만하다.” <말줄 필자>

「호동서략기」에 수록되어 있는 시는 경치나 풍광을 주제로 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꼈던 정취를 읊은 것이 대부분이다.

懸崖天畔一禪庵	하늘가 벵랑엔 걸린 선승의 암자 한 채
山北清鐘響在南	산 북쪽 맑은 종소리 남쪽에 메아리치네.
打起白雲開出洞	흰 구름 일으켜 골짜기 열고 나오고
招來明月靜沈潭	밝은 달 불러와 고요히 못에 잠기네.
惺惺頓覺浮生夢	불현듯 부생 같은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寂寂如聞古佛談	고요히 옛 부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하네.
五十三尊清淨界	오십삼불이 있는 청정한 이 세계
靈通百劫慧燈參	백겁에 신령이 통하여 지혜의 등불에 참례하네.

76) 차옥덕, 앞의 논문, 326쪽.

유점사 53불에 대해서 읊고 있다. 실제 펼쳐지고 있는 풍광을 시적 감각을 이용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유점사 설화나 그곳의 정경을 묘사한 후 이 시를 제시하고 있기에 실제 모습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호동서락기」에 수록된 금원이 지은 기행 시들은 거의 이런 형식이다.

百川東滙盡	백 천이 동쪽으로 다 흘러드니
深廣渺無窮	심오하고 광대하기 무궁하네.
方知天地大	바야흐로 알겠구나 천지가 크고 커서
容得一胞中	한 가슴 속에 모두 담아내는 것을.

백 천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 특히 백 천의 광활함과 인간의 하찮음이 대비되면서 독자들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풍광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광과 더불어 작가의 목적 의식이 개입되는 경우도 많다. 자연 경물과 세계와 자아의 대결이 제시되는 서정시 형식도 등장한다. 그 외에도 작가가 뜻하고자 하는 바람이 제시되고 있는 작품도 있다.

千峯突兀種天餘	천 개의 봉우리 우뚝 서 하늘 찌르는데
輕霧初敍畫不如	가벼운 안개 퍼지자 그림보다도 낫네.
好是雪岳奇絕處	아름다운 설악산 기이한 절경 속에
大乘瀑布勝庭廬	대승폭포는 동정호(洞庭湖), 여산폭포(廬山瀑布)보다 멋지다네. <天涯>

설악산 풍광이 뛰어난 것을 제시한 후 그 아름다움은 그림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시적 화자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듯이 유람 중에 접했던 경치와 견문, 체험을 서술하면서 그때그때의 감흥을 시로 표출하고 있다. 씩씩하고 화려한 문체가 특징이다.

그러나 한강 용산에 자리 잡은 후 삼호정 시단을 이끌면서 지은 시는 서정시가 주축을 이루기에 작가 자신의 감정이나 목소리가 엿듣기 방식이기는 해도 작품 속에 많이 개입된다. 금원은 삼호정 시단에 동료 시우 5명 외에도 해옹(海翁) 홍한주(洪

翰周), 자하(紫霞) 신위(申緯), 운고(雲臯) 서유영(徐有英) 등 남성 문인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 이 중 서유영과 흥한주는 당시 대표적 시사였던 남사(南社)와 낙사(洛社)의 주요 인물이었다. 또한 서유영이 금원에게 금원의 재예를 칭송하는 <관동죽지사(關東竹枝詞)> 11수를 지어주고, 죽서의 시에 운고에게 화답한 시가 여러 편 있는 점, 그리고 「죽서집(竹西集)」의 서문을 흥한주가 쓰고 운초가 자하 신위와 시를 주고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삼호정 시사는 명실상부한 여성 시회로서 남성 시사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여성 문인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주축이 된 시회는 조선조 사회에서는 비밀비재했다. 어떤 단체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세시풍속, 이를테면 삼월삼진날이나 칠석, 유두, 구구절 등 현재 우리가 잘 쇠지 않는 명절에도 선비들은 누각이나 동산에서 천렵 형태로 삼삼오오 모여 놀고, 먹으며 시작 활동을 했음을 여러 문헌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모여서 시를 지으며,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담소를 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운초의 경우 한 번 삼우당 시사에 참석하면 며칠씩 묵고 갔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정도로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들의 이러한 모임 배경에는 이를 지지하는 양반층 남편들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이 모임은 조선조 여성 단체의 최초의 문학적,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작품들은 금강산 기행시 때보다 좀 더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가 부각된다.

閑似浮萍事遠遊	부평초처럼 한가로이 멀리 유람하며 지내니	
登臨多日不知休	승지를 찾아다니는 날 많아 실 줄 모르네	
歸心欣逐東流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흔쾌히 동류수를 따르니	
京落風烟早晚收	서울의 풍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렴하네	<望漢陽>

오랜 외지 생활을 끝내고 1847년 다시 서울에 돌아와 남편의 별장인 삼호정에서 한가하게 지내며 문학 활동을 하는 모습, 그것도 같은 처지 서출이나 소실들과 함께

가끔 모여서 시를 짓고 화답하거나 비평, 감상하는 소위 말하는 문학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과 마음 상태, 상황 등이 시 텍스트에 잘 녹아 있다. 그동안 한가하게 이리저리 떠돌았지만 한양에 정착한 현재도 한가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가하다고는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빠르게 관찰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고 있음이 마지막 행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침 연기는 안개일수도, 밥 짓는 연기일수도 있다. 떨어지는 낙조, 풍경, 흐르는 바람 등 자연을 통한 한양의 일상적 생활이라는 내용이 이 행에 모두 함유되고 있다.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적절하게 생략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 긍정적 마인드와 현란한 색채 기법

금원의 글은 시종일관 긍정적이고 밝다. 자연을 노래할 때에도 다양한 색상을 넣어서 작품을 채색시키는 것은 금원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주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은색), 노란색(금색) 등 화려한 색상이 사용된다. 파란색도 청(靑)뿐만이 아니라 청(靑), 벽(碧), 청(淸), 록(錄)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흰색은 주로 백(白), 옥(玉), 진주(珍珠) 등으로 표현된다. 황금(黃金), 금(錦), 홍(紅)이 등장하며, ‘색(色)’이란 시어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러한 색채적 특성은 사실 시 뿐 아니라 「호동서락기」 전체 모든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색이다. 색상이 화려하며, 부정어 보다는 긍정적 시어가 주로 등장하기에 작품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화려하다. 그녀의 긍정적인 시각이나 마인드가 작품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지나 홀연히 붉은 거울 하나가 바다에서 불쑥 솟아올랐다. 점점 올라오며 따라 빛이 출렁거리 마치 쟁반 위의 백옥 같은 진주 향아리를 높이 받쳐 든 듯, 푸른 물결 물굽이 밖에서 작게 일렁이는 붉은 비단 우산 같았다. 얼마 후 흐린 구름을 뚫고 빠르게 둥근 바퀴가 그대로 솟아오르니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미친 듯 기뻐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고 싶었다. 상서로운 빛이 해면 아래에 비취 한바탕 붉은 구름을 부풀리다가 또다시 평지로 쏟아지니 위아래가 온통 붉어져 마침내 하늘과 땅을 한 덩이 불꽃으로 만드니 참으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낙산사에서 보는 일출 광경에 대한 묘사이다. 일출에 대한 광경은 원래 긍정적이고, 붉은 색채가 지배적이며, 화자의 감동이나 기쁜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금원의 경우에는 특히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그 표현이 과하다. ‘미친 듯, 깜짝 놀라, 펄쩍펄쩍, 춤을 추고 싶고’ 등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과한 표현들이 그리 길지 않은 문장에 제시되고 있다. 또한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표현도, ‘쟁반 위의 백옥 같은 진주 향아리’, ‘푸른 물결 물굽이 밖에 일렁이는 붉은 비단 우산’, ‘붉은 구름을 부풀리다가’, ‘붉은 거울 하나’, ‘둥근 바퀴’, ‘상서로운 빛’, ‘한 덩이 불꽃’ 등 과장법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그러나 상서롭고 상승 이미지를 지닌 긍정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일출 광경을 보면 나름의 감흥이 있을 것이지만, 조선 조 여성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을 접했다 하더라도 문학적 수식어에 능숙하고 작가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개입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다. ‘춤을 추고 싶다’는 표현은 사실 어엿집 여성이 생각할 수 있는 감흥날 때의 행동은 아니다. 기녀 출신인 금원이라서 가능했을 것이다.

일출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월출, 즉 달이 떠오르는 장면을 장황하게 묘사한 예는 찾기 힘든 경우이다. 금원은 월출 광경도 장황하고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정자에 앉아 월출을 보았다. 닭이 울 때가 되자 홀연히 바다 구름이 영롱해지며 빙옥과도 같은 반원의 달이 숨을 듯 말 듯하다 살포시 얼굴을 드러낸다. 찬란한 빛이 구름 끝에서 토해져 나오는 것이 황홀하여 백련화 한 떨기인가 의심스러웠다. 바다 위를 두루 비추자 드넓은 바다는 푸른 유리 같았다. 옥 같은 정자 처음과 끝이 모두 드러나면서 맑은 바람은 냉랭하고 생각은 날아갈 듯하였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여 동자에게 차를 내오라 하고 먹을 갈아 시 한 수를 썼다.”

달이 떠오르는 광경이 세밀히 묘사되고 있다. ‘닭이 울 때가 되자’라는 표현을 보면 달이 떠오르고 나서도 한참 동안 관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 흐름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닭은 정확히 몇 시에 우는가? 현장 답사를 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닭 우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의 닭 우는

시간은 고정적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밤 12시면 올었다는 곳도 있고, 새벽 1시, 혹은 3시나 4시 등 많은 곳이 서로 다르다. 그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 지역의 기후나 온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닭들이 거기에 맞춰서 울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듯싶다. 금원이 있던 곳의 닭은 몇 시에 우는 닭이었을까? 가장 빨리 우는 닭이 밤 12시라고 했으니 아무튼 금원은 6-7시부터 최소 12시까지를 달을 보고 있었던 듯싶다. ‘찬란한 빛이 구름 끝에서 토해져 나오는 듯’, ‘황홀’, ‘백련화’, ‘푸른 유리’, ‘옥 같은 정자’ 등 역시 화려하고 상서로운 단어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장이 화려하고도 긍정적이다. 그녀 문장법 특징 중 하나이다.

“진주처럼 곱고 부서진 옥처럼 아름다운 물방울이 좌우에 뿜어져 한낮의 우렛소리와 함께 이슬비처럼 자욱이 내리고 있었다. 그 쏟아져 날리는 기세는 바람의 신이 연출하는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장관이니 여산의 응암과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폭포는 삼천 척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백이 ‘날아 흘러 떨어지니 길이 삼천 척,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구나(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라고 읊은 구절은 바로 이 폭포의 신기함을 전하는 것일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흰 비단이나 백설도 오히려 평범한 말일 것이며 옥룡(玉龍)이 은빛 무지개를 허리에 둘렀다고 하면 혹시 그것이 가까울지는 모르겠다.”

역시 긍정적이고 상서로운 어휘나 의미가 내용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절경을 나타내는 심상이기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화려한 비유는 금원의 마인드와 작법에서 나온 것이다. ‘진주처럼 곱고 부서진 옥처럼 아름다운 물방울’, ‘바람의 신’,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흰 비단’, ‘옥룡’, ‘은빛 무지개’ 등의 시어나 표현만 보아도 그녀의 표현방식이 나타난다. 이중 백미는 ‘옥룡’이다. 용을 표현할 때는 백룡, 황룡, 흑룡 등을 사용하는데 ‘옥룡(玉龍)’이라는 표현은 금원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백룡이라고 하지 않고 옥룡이라 했기에 그 상서로운 기운과 신비함이 배가되고 있다. ‘옥룡이 은빛 무지개를 둘렀다’는 표현에서는 정점을 찍고 있다. 이 대목으로 인해 용의 지위는 한껏 고조되고 있으며,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신격이라는 풍광으로 변모되고 있다. 대승 폭포 절경을 격상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도 금원의 문장 기술적 특징 중 하나이다.

금원의 남편 김덕희는 의주부윤에 제수되자 금원을 동반해서 의주로 간다. 이때 금원은 부윤부인으로서 대우받았기에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구신관 교차, 부윤을 환영하는 잔치 등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광경을 화려한 필치로 서술해 놓았다. 특히 압록강 변 청나라와 공무역이나 군사들의 잔치와 같은 행사 등에 참여해서 그때의 광경을 역시 밝고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현악이 조화를 이뤄 연주하니 마치 구름에서 나오는 신선의 음악인지 의심한다. 기녀들의 노래가 맑고도 우렁차니 흘러가는 구름 따라 공중으로 날아가고, 쌍쌍이 너울너울 춤을 추니 버들 허리처럼 가볍고 제비 날개처럼 나부낀다. 관서지방의 물색과 가무가 족히 이름을 날릴 만하였다. 잠시 후 포를 쓰고 뿔피리를 불러 좌우에서 불을 올리자 강변의 각 둔지에서 일시에 불을 올려 좌우가 둥글게 진을 짜니 못별들이 한데 모여든 것처럼 황홀하였다. 푸른 하늘의 붉은 복사꽃이 맑은 강에 흩어져 떨어지고 관루의 고각 소리 공중에 울려 퍼지니 구름 밖에서 난새와 봉황이 번갈아 우는 듯 물속의 어룡들 역시 물 밖으로 나와 그 소리를 듣는 듯하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하고 상서로운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화려하고 번잡하면서 시끌벅적한 광경이었겠지만 작가의 긍정적 마인드에 의해 마치 천국과 같은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연주도 그냥 연주가 아니요, 마치 구름에서 나오는 신선의 음악이라고 평한다. 그냥 신선도 아니고 굳이 ‘구름에서 나오는 신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분위기를 더욱 밝고 상서롭게 몰아간다. 춤추는 모습도 ‘버들 허리나 제비 날개’로 표현하고 있으며, ‘못별들이 모여든 것’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작가의 목소리로 ‘황홀하다’고 언급한다. 최상의 기쁨이 그곳에서 발산되고 있다. 더욱이 ‘난새나 봉황, 어룡’을 등장시키면서 그 분위기를 신성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매사 밝고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는 작가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심지어 고즈넉하고 한가한 분위기를 묘사할 때도 금원의 이런 특징은 잘 드러난다.

“백석실에 오르니 화원을 휘감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흰 돌로 다리를 놓았다. 눈처럼 하얗게 떨어지는 꽃잎이 섬돌에 가득했으나 쓸지 않았고 빗장이 채워진 문은 더욱 유심(幽深)함을 느끼게 한다.”

산골짜기에 있는 별장 문에 빗장이 쳐 있는 것을 보고 남긴 글이다. 이 작품에도 ‘맑은 계곡과 흰 돌, 눈처럼 하얀’ 등 밝은 이미지가 가득하다. ‘떨어지는 꽃잎이 섬돌에 가득하다’는 표현은 상상만 해도 멋진 광경이 연상된다. 눈처럼 하얀 꽃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지는 광경, 그 꽃잎이 섬돌에 가득 쌓이는 광경 등 선계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다. 채워진 문이 주는 이미지는 고즈넉하거나 쓸쓸해야 하는데 색상이 제시되면서 깨끗한 이미지가 생성되면서 밝게 변모한다. 작가는 채워진 문을 보고 ‘더욱 유심함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즉 신비함을 배가시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자, 즉 작가의 긍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마인드가 느껴진다. 이러한 측면은 「호동서락기」 전체 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江柳江花色色新	강가의 버들, 물가의 꽃 색색이 새롭는데
晝靜官閒庭自草	한낮 고요하고 한가로운 관아 뜰에는 풀들이 자라네
夜深月到座無塵	깊은 밤 달 비친 자리엔 티끌 하나 없고
輕衫寶襪投壺妓	얇은 적삼 외씨 버선발로 기생들 투호하네
金帶瑚櫻撫劍賓	금띠에 산호 갓끈 매고 칼을 어루만지는 빈객
紅雨燕山千里路	붉은 꽃 비 내리는 연산의 천리 길
星輶來渡荷君恩	가마 타고 당도하니 임금의 은혜 더욱 두텁다.

강과 버들과 꽃이 피어 있으며, 시간적 배경은 달이 뜬 봄날 밤이다. 새롭고 밝은, 그리고 상서롭고 즐거운 이미지가 작품을 가득 채운다.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얇은 적삼을 입은 기생들이 투호를 하며 놀고 있다. 그 외에도 금빛 띠를 두르고 산호 갓을 쓴 사람들, 과장적 표현이지만 천 리 길에 꽃비 내리는 광경, 가마, 임금 등 좋은 이미지와 행복한 감정을 자아내는 다양한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한다. 잔치 풍광이기에 더욱 즐거움이 배가되는 공간적 배경이다. 이 모든 것이 금원 부부를 위한 것이다. 어찌 감흥이 없고 어찌 자긍심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듯이 금원은 생생하게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시에도 색깔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붉은색, 금빛, 푸른색, 다양한 꽃이 지니는 각 색깔 등이 투영되고 있다.

蒼玉叢叢秀	파란 옥이 떨기, 떨기로 뺀어나
撐天立水中	물속에 우뚝 서 하늘 받쳤네
六稜千萬柱	여섯 모가 난 천 길, 만 길의 기둥
神斧黃精工	귀신의 도끼요, 황정(黃精)의 기술이로구나.

총석정을 보고 읊은 시이다. 여기에도 파란 색(蒼), 옥색(玉), 황금색(黃)이 등장한다. 바위를 꽃에 비유해 총총히 뺀어나게 피었다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역시 신이 지니고 있다는 황금 도끼를 사용해서 선계이미지를 부여하며 경이롭고 상서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황정은 황토지정(黃土之精)으로 토덕(土德)을 가리킨다. 지신(地神)의 덕이라는 의미이다. 앞에서 일출 모습을 야단스럽게 표현한 예를 제시했지만 시를 통해서도 일출 상황을 노래한다.

紅輪碾破海天雲	붉은 바퀴 멧들처럼 바다 하늘 구름 깨뜨리고
且得竿餘轉運頻	겨우 대나무 마디 같더니 자꾸자꾸 치솟네.
汲水擔薪村巷曲	물 길고 땀나무 지고 가는 시골 골목길
空濛瑞靄沍輕塵	뽀얀 안개 속 붉은 노을이 가벼운 티끌 적시네.

시라는 장르적 특성상 많은 감정을 응축해 놓고 있다. 그래도 ‘붉은 바퀴’라는 해에 대한 비유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 하늘 구름 깨뜨리고’라는 돌출 이미지를 통해 그다음 행인 ‘자꾸 자꾸 치솟는다.’라는 상승적 상황과 연계되면서 해의 속성을 잘 부각하고 있다. 특히 해는 아름답고 환한 이미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계되고 실리적인 이익을 주는 존재로 표현된다. 그것도 보잘 곳이 없는 공간까지 비추어주는 자비를 주는 대상으로서의 해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가벼운 티끌까지 비추어주는 해의 은총까지 잘 표현하고 있다. 기행문에서의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보다 시에서 금원은 훨씬 더 지적이며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빛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특징과 함께 금원 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상승이나 분출 이미지이다. 앞의 시에서도 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늘로, 또는 공중으로 어떤 대상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인다.

歇惺樓壓洞天心	혈성루가 골짜기 한 복판을 압도하니
纔入山門卽叢林	산 입구 들어서자 곧바로 총림이로구나.
精京千般奇絶處	온갖 기이한 경치가 펼쳐져 있는 곳
芙蓉無數晚丰尖	무수한 연꽃들 노을 속에 뽕족이 솟아있네.

혈성루는 정양사의 문루이다. 문루에 오르면 산의 참모습이 그대로 펼쳐진다. 사방 시계가 되어 있어 금강산 일만 이천봉이 다 눈 아래로 굽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높기에 하늘에 닿을 듯하다는 의미이다. 이 모양을 무수한 연꽃들이 뽕족이 솟아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혈성루가 높은 것도 상승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뽕족이’, ‘솟아’도 상승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이 금원 작품에는 ‘우뚝 하늘 까지 솟는다’, ‘하늘을 뚫고’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마치 금원 자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싶은 내적 욕망의 대치적 표현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금원의 삶과 작품을 조망해 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금원은 ‘사람-문명인(조선인)-남자-부귀함’이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극렬하게 인식하고 이를 표출했다. 그녀의 욕망은 한 인간으로서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것인데 착종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함에 상당히 실망하고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토로한다. 사회적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여성들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 당당하다. 그녀는 자신이 조선에서 태어난 한미한 여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세계에 대항한다. “내가 태어날 제 금수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한 우리나라에 태어남이 다행스럽다.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성별, 사회 계급적인 면에서 남성과의 차이를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원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한 뒤, “여자로 태어났으니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걸고 경법을 삼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다가 이름이 없어져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만스러운 것은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여행하지 못하는 문제였다.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실망한 금원이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타파할 길을 찾는다. 따라서 금원은 남북을 하고 14세가 되던 해에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명승지를 탐승한다. 당대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만큼 호방한 성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기행 경험으로 금원은 「호동서락기」를 작성한다.

「호동서락기」는 금원 자신이 유람하고 거처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일대기적인 성격을 지닌 기행문이다. 기행문이라 주변 경물이나 상황, 자신의 감정 등을 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군데군데 시를 작성해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설화나 역사, 당대 풍습과 관련된 내용도 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호동서락기」는 일종의 종합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보고 들은 것을 섬세하고도 상세히 기술해 놓았기에 당시 의식주나 풍습 등 민속 자료적 가치도 큰 작품집이다.

그러나 금원이 밝히고 있는 소수자, 변두리적인 인식이나 주장과는 달리 작품 경향은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드러나고 있었으며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작품을 상당히 화려하게 채색하고 있었다. 이 작품집에는 고뇌하고, 침참되고, 외롭고, 쓸쓸한 작가적 시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시종일관 긍정적이고 밝았다. 자연을 노래할 때에도 다양한 색상을 넣어서 작품을 채색시키는 것은 금원 작품의 특징 중 하나였다. 주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은색), 노란색(금색) 등 화려한 색상이 사용된다. 파란색도 청(靑)뿐만이 아니라 청(靑), 벽(碧), 청(淸), 록(錄)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흰색은 주로 백(白), 옥(玉), 진주(珍珠) 등으로 표현된다. 황금(黃金), 금(錦), 홍(紅)이 등장하며, ‘색(色)’이란 시어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러한 색채적 특성은 사실 시뿐만 아니라 「호동서락기」 전체 모든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색이다. 색상이 화려하며 부정어보다는 긍정적 시어가 주로 등장하기에 작품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화려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긍정적인 시각이나 마인드가 작품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금원 작품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상승이나 분출 이미지이다. ‘우뚝 하늘까지 솟는다.’, ‘하늘을

뚫고’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금원 자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싶은 내적 욕망의 대치적 표현일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녀의 주장이 관철된 시점부터는 그녀의 원망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조선조 남성 양반을 지향하는 원초적 욕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딜레마일 것이다. 결국, 현실의 평온함과 만족과 긍정적 마인드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조선조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음을 한탄했다는 것은 그녀의 실제적 내적 욕망은 평범한 아녀자의 그것이 아니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 박죽서-비관적 에피파니의 미학

1) 위축과 외로움 속에서 터득한 철학적 삶

조선조 여성 문인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소수자이며, 그 작품은 소수자 문학에 해당한다. 당대의 중심세력은 사대부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문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시기였기에 이들 속에서 여성 문학의 존재는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것이었다. 이들은 수적 차원에서도 소수집단 문학이며, 변두리 신분이라는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소수자에 해당된다. 앞장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옥봉과 김금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박죽서의 삶과 작품을 분석해서 그 정체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죽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몇 편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죽서 시의 특성을 ‘애상성’과 ‘그리움’, 그리고 그녀의 시작(詩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최승순은 죽서의 시는 ‘애수와 애상으로 일관되어 있다’⁷⁷⁾고 밝혔고, 김풍기는 죽서 시의 특징을 ‘애상적 정서와 그리움의 세계를 시화한 점과 생활시의 담박함’으로 추출했다.⁷⁸⁾ 원주연도 죽서 시의 특성을 ‘그리움으로 정의하면서 그리움을 넘, 벗, 형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⁷⁹⁾ 최근 들어 점차 죽서 작품을 폭

77) 최승순, 앞의 논문, 35쪽 재인용.

78) 김풍기, 앞의 논문.

넓게 보기 시작했는데 우선 김여주는 죽서의 시를, ‘1. 여성성 2. 유소풍(儒素風, 선비로서 평소에 지녀야 할 풍모), 임하풍(林下風, 은자로서의 풍모를 말하는 동시에 부녀의 우아하고 빼어난 모습을 칭송), 3. 대상물에 대한 탐구를 일관되게 드러내는 영물시’ 등으로 분류했다.⁸⁰⁾ 이후 함복희는 죽서 시는 ‘감상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경물에 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으며 죽서의 문학 인식은 천기론에 입각했다’고 보고 있다.⁸¹⁾ 한명희는 죽서 작품을 ‘시와 고향’으로 주제 분류하고, 시 부분에서는 ‘1) 시에 대한 자부심, 2) 명성에 대한 열망, 3) 시인의 역할 4) 시인의 특성-근심 5) 독창성에 대해 강조하고, 고향을 주제로 한 것은 1) 가을과 기러기, 2) 10년 세월을 특징으로 규명’⁸²⁾하고 있다. 하지만 한명희는 특징이라는 범주에 작품 1개나 많아야 3개 정도의 예문을 들고 있어서, 죽서 작품 166수 전체의 특징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작품 수를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숙인도 죽서 시의 내용적 특징을 그리움과 시작에의 열망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형식적 특징으로는 반복이라는 점과 몇 가지 시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상세히 천착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⁸³⁾ 그러나 점차적으로 죽서 작품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본 장에서는 죽서 작품 166편을 대상으로 해서 시 세계를 좀 더 천착해서 작품의 근본적인 특성을 규명해 보고, 작품 텍스트를 통해 죽서의 아이덴티티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죽서(1819-1851)의 호는 죽서, 반야당(半啞堂)이다. 좌의정 박은(朴崧)의 후손인 선비 박종언(朴宗彦)의 서녀로 태어났으며, 커서는 부사(府使) 송호(松湖) 서기보(徐箕輔, 1785-1870)의 소실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생몰연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가들이 밝힌 바로는 1817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사망했을 것이

79) 김여주(2003), 앞의 논문.

80) 원주연(2011), 앞의 논문.

81) 함복희(2007), “박죽서의 삶과 문학”, 『강원여성문학』 4호, 강원도여성문학인회.

82) 한명희(2007), “박죽서의 문학 정신과 시”, 『강원여성문학』 4호, 강원도여성문학인회.

83) 정숙인(2019), “박죽서의 시 세계 연구”, 『문화와융합』, 40(7), 671-700쪽.

라고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승순이 죽서의 생년을 1817년이라고 기술한 이래 모두 이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⁸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원도 1817년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죽서시집」에 금원이 쓴 글을 보면 죽서와 동생 경춘은 자기보다 서너 살 아래라고 기술되어 있다.

“ … 죽서는 나 보다 몇 살 아래인데, 어려서부터 한 고을에 살다가, 자라서도 또한 같은 한양으로 시집왔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주고받은 시가 많았는데, 이제 갑자기 옛 자취가 되었다. 저 세상에서 나와 죽서가 남자로 태어나면 혹은 형제가 되어서, 혹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시를 주고받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아아, 슬프다.”⁸⁵⁾

그렇다면 죽서의 출생년이 잘못되었는지 금원의 출생년이 잘못되었는지 둘 중 하나이다. 경춘의 출생일이 알려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러나 금원에 대해서는 “그가 난 시기와 죽은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여러 문헌을 상고하면 순조 30년에 14세가 되었으니 1817년에 난 것이 틀림없고, 1847년에 용산 삼호정에서 여류시인들과 만나서 창화했으니 그 이후에 죽은 것이 확실하다.”⁸⁶⁾고 하였다. 그렇다면 죽서는 1819년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몇 살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최하 2살부터 3-4살은 아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1819년에서 1823년 사이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후에 후 관련 기록을 찾는다면 모를까 그전까지 출생년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

죽서는 김금원, 김경춘과 함께 모두 강원도 원주 출신이다. 그녀들이 삼호당시사(三湖亭詩社)를 만들어서 활동한 것에는 동향이라는 공통점이 크게 좌우했었을 것이라고 본다. 죽서는 기록에 의하면 시 짓는 솜씨뿐만 아니라 미모도 뛰어나고 칩선에도 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출로 알려졌으니 모친은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그녀의 부친은 양반이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다행히 죽서가 서출임에도 어여삐 여기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가르쳤다. 그것은 그만큼 죽서가 명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서는

84) 최승순, 앞의 책, 34쪽.

85) 죽서시집, 신해년(1851) 황양월(11월) 중순에 금원이 씀. 재인용.

86) 김지용, 앞의 책, 14쪽.

아버지 가르침 하에 소학, 경사, 고시문을 탐독하였고, 10세에 시를 짓는 등[十歲作], 특출난 재주를 키운다. 이 시기는 죽서의 생애 중 아마도 가장 행복한 시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녀가 평생 가족이나 고향 원주를 그리워한 것에는 이러한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과 가족의 화목함을 그리는 마음의 대치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죽서의 남편 서기보의 재종형인 서돈보(徐惇輔)의 「죽서시집(竹西詩集)」 서(序)에 나타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죽서는 ‘어려서부터 영오하여 아버지가 강습하시는 것을 곁에서 들은 대로 암송하여 빠뜨림이 없었고, 자라서는 책을 좋아하여 소학·경사(經史)·옛 작가의 시문을 바느질과 함께 익혔다’고 한다. 중국의 한유(韓愈)와 소동파(蘇東坡)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일생 동안 병약했던 탓으로 시풍(詩風)이 감상적이라는 평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서돈보에 의해 “지금 그의 시는 뜻은 아름다우나 절주(節奏)가 촉급하고 사랑이나 근심 같은 것이 마음에 얽히어 슬퍼하는 느낌이 많다(今其詩旨婉而節促 多纏綿悱惻之感).”고 언급한 후부터 기존 학자들에 의해 애상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었다. 또한 시집에 <십세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죽을 때까지 꾸준히 시 창작을 하여, 현재 146제 166수의 시가 전한다.

조선조 여성이며, 서녀이고, 소실이었던 죽서도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성과 학식이 있어 한시를 생활화했기에 시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는 이러한 그녀의 특성이 잘 녹아 있다. 죽서는 서기보의 소실이 된 후 같은 소실이었던 운초, 금원, 경산과 함께 삼호정시사에서 문학 활동을 한다. 삼호정 시인에는 운초, 경산, 경춘 등 여류시인 외에도 서유영, 홍한주, 송주현, 서득순, 이승원 등의 남성 문인들이 함께 했다. 삼호정은 현재 용산에 터만 남아 있다. 이중 금원과 죽서, 경춘이 모두 고향이 강원도 원주여서, 원주라는 공간적 특성이 이들 여류시인의 시인되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흥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 삼호정 시회 여성들은 소실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서얼이라는 공분모를 지닌다. 운초만 가난한 선비 가문의 여식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II-2> 죽서유고(竹西遺稿)

죽서 시집에는 금원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아아, 이 시집은 죽서가 지은 것이다.

이를 대하니 마치 그 사람을 보듯, 맑은 눈동자와 붉은 뺨이 은근히 글씨 위에 비친다.

아아, 그 맺어짐이여.

죽서를 아는 자들이 모두 그의 재주와 지혜가 규중에 이룬 것을 알 뿐이지만,
그가 고요하게 살며 자연을 즐기는 정취가 있음은 오직 나만이 안다.

올바른 눈을 가진 자가 그 시를 읽는다면,
또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죽서는 나 보다 몇 살 아래인데, 어려서부터 한 고을에 살다가,
자라서도 또한 같은 한양으로 시집왔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주고받은 시가 많았는데, 이제 갑자기 옛 자취가 되었다.

저 세상에서 나와 죽서가 남자로 태어나면 혹은 형제가 되어서,
혹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시를 주고받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아아, 슬프다.

- 신해년(1851) 황양월 중순에 친구 김금원이 죽서 사후 박죽서 시선에 발문을 짓다.”

이 글을 보면 죽서와 금원은 고향 원주에서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옛말에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서출이라는 동일한 신분이며, 동향이고, 시집도 동일하게 소실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겠는가? 따라서 죽서와 금원은 삼호당시사 중에서도 유독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더구나 둘 다 시를 하는 작가로서 편지 외에도 시를 서로 주고 받았으니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이고 깊은 마음 속 진실에 대해서도 공유했을 것이다.

따라서 금원이 마지막에 언급한 ‘저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혹은 형제가 된다’면’이라는 부분은 예사롭지 않다. 조선조에 여성으로서 그것도 서출이며, 소실이었던 지성인 여성이 이중적인 결핍 속에서 그들의 원망과 욕망이 무엇이었으며 이심전심 그들이 원했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사대부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서출인 죽서와 옥봉, 금원 등은 차별받지 않은 가정 분위기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행운이다. 특히 타고난 영특함으로 자신만의 학문적 세계를 넓혀 나가고 시작까지 하면서 하나의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녀들이기에 그들의 욕망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과 현실과의 괴리는 자연스럽게 그녀들을 비탄과 비극적 성향의 작품을 지향하게 한다. 더구나 그들은 정상적인 혼인을 하지 못하고 남의 소실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소실은 다른 이름으로 첩이라고도 불린다. 그 외에도 측실, 부실, 첩실, 별실, 작은집 등으로 불렸으며 양민, 기녀, 종 등 첩의 신분에 따라 양첩과 천첩으로 나뉘며 이들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있었다.⁸⁷⁾ <계측실문(戒側室文)>은 “예를 갖추어 장가들면 처(妻)라 하고 사사롭게 맺어졌으면 첩(妾)이라고 함은 귀천의 구별이며 처를 정실(正室)이라 하고 첩을 측실(側室)이라 함은 적서(嫡庶)의 차등이다. 명분은 지극히 엄하니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정치와 첩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별한다.⁸⁸⁾

그러니 가문에서 그 위치도 미미했다. 집안에 따라서는 수모도 당하는 삶이었다. 작은집, 소실, 측실 등이라 불리며 가족의 변방에 놓였던 첩은 남편의 정치에게, 그 자식

87) 황수연(2006), “조선 후기 첩과 아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호, 356쪽.

88) 박윤원, “戒側室文”, 『근제집』 권23, 한국문집총간, 250, 454쪽.

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타자화된 존재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세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설이라서 겪었을 부정적인 사례도 꽤나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옥봉의 경우이다. 결연 후 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다른 사람을 돕는 시를 썼다고 옥봉의 배필인 조원은 옥봉을 단칼에 내쳤다. 조원은 옥봉을 아껴서 부임지마다 대동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쉽게 내친다. 이것이 소설의 위치이다. 만약 옥봉이 본부인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내칠 수 있었을까?

지적 수준은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었던 그녀들이 사회제도 제약에 의해 서출이라는 신분애다가 소설로까지 살아야 했던 심적 고통은 결국 작품으로 승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들에게 있어서 시나 시작하는 행위는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근원이며 살아가는 방편이기도 했을 것이다. 죽서가 남긴 작품 166편은 그래서 더욱 귀중하다. 이들 작품은 서돈보에 의해 「죽서집」으로 묶여 간행되었다. 이 시집에 쓰인 서문과 한시를 통해 죽서가 당대 남성 문인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후 문제고 현실에서는 얼마큼 인정받았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죽서 시 발문의 “함께 후생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 창화(唱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본다.

2) 에피파니⁸⁹⁾의 미학

(1) 허무적 달관 철학

죽서 시 작품 텍스트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36편)의 시는 인생을 달관한 의미를 함유한 작품이다.

無情又遣今年去	무정한 세월 금년 또한 이렇게 보내니	
有力難回此夜窮	이 밤이 다하는 것을 힘으로 되돌리기 어렵네.	
萬古消磨應是夢	만고의 시름도 한갓 꿈인 것을	
人生老在不知中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어나 늙어가네.	<除夕>

89) 에피파니(epiphany) : 깨달음을 뜻하는 통팔이나 직관, 영감을 지칭함. 평범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진실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 우연한 순간에 귀중한 것들과의 만남.

시적 화자는 세상 원리를 말하고 있다. 세상은 무정한 것이고 시간 흐름은 영원하다. 시간은 우주 섭리의 근본이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영겁의 세월이라는 우주 섭리 속에서 각 개인이 고민하고 언짢아하고 애태우는 그런 시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가 찰나이며, 실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한 점보다 못한 그런 것이다. 즉 꿈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흐르는 우주의 시간 속에서 소멸을 향해 한 걸음씩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다.

죽서는 이렇듯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늘 고뇌했던 듯싶다. 그리고 결론은 ‘인생이란 덧없는 것,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수렴한다. 이는 마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⁹⁰⁾와 상통하는 깨달음이다. 이는 인생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은 시간의 영겁 속에서 한 점 외로운 존재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 도대체 자신의 시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 허무주의는 죽서의 시를 관통하는 철학적 명제이다.

陳陳輕寒乍透櫺	밀려오는 찬기운 격자창을 뚫는데
低乘簾箔點茶經	주렴 낮게 드리우고 다경 읽는다.
雪因山氣殘猶白	눈은 산 기운 차가워 그쳐도 더욱 희고
草得春心凍更靑	풀은 봄 마음 얻어 추위 속에서 더욱 푸르다.
詩境現前通夜月	시 속에 나오는 듯한 경치 달밤 내내 감상하고
酒名從古列天星	이름난 술 하늘 별처럼 벌여놓네
浮生若此能消受	덧없는 삶도 이처럼 사라지도록 누릴 수 있건만
只恨流光不暫停	단지 한스러운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세월이라네.

<早春書懷>

술을 먹으며 술이 없어지는 상태, 즉 유에서 무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인생을 비교하고 있다. 대단한 철학관이다. 술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 나아가서는 삶의

90) 구약성경, 전도서 1:2.

가치나 인생 여정 시간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죽서의 삶에 대한 철학적 허무관은 상당히 확대되고 발전된 상태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서의 허무주의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 늘 한줄기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까지는 어찌지 못하기에 죽서는 늘 삶이 편안하지 않다. 다 알면서도 가슴에 남아 있는 응어리로 인해 내적 평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죽서가 한편 생활시를 읊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죽서의 작품을 보면 경제적인 일을 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녀의 언급에 바느질을 했다고 하니, 그 정도는 했을 것이다. 소요거리로, 또는 모든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아니었던 듯싶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로 그녀의 시를 생활시라고는 할 수 없다. 작품 텍스트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인 죽서는 하인이나 하녀의 수발을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은 자연 완상하기, 글쓰기, 책보기, 병으로 인해 누워있기, 술 먹기, 잠자기 등이다. 글쓰기는 시작(詩作) 활동이 주축이다. 간혹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했던 듯싶다. 따라서 상당히 무료했을 가능성이 크다.

流水聲中歲月移	흐르는 물소리 속에 세월 흐르니	
人間易盡百年期	인간 백 년 기한 쉽게 다한다.	
惟宜種德心田闊	의당 광활한 마음 밭에 덕을 심어야 하나니	
每擬酬恩眼界遲	늘 은혜 갚은 일 의심하나 눈으로 좇는 일은 더디기만하네.	
春暖秋涼猶可辯	봄의 따스함과 가을의 서늘함은 가히 분별할 수 있지만	
昨非今是有誰知	어제는 그르고 오늘은 옳음을 그 누가 알겠는가	
先賢遺訓餘經籍	선현들이 남기신 교훈 경전에 남아있어	
指路明明却不疑	가리키는 길 밝고 밝아 의심할 것 없네	<詠懷>

죽서가 술을 보면서 인생 시간의 빠름과 덧없음을 깨닫듯이, 흐르는 물을 보고도 흐르는 물과 시간의 흐름을 동일시한다. 인생 백 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언급한다. 그 속에서 덕을 남기고 선현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약간의 교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죽서의 시는 소재와 상황은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덧없는 삶, 그 속에서 흐르는 삶의 시간, 삶의 시간은 결국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헛된 것이다. 또한 이 시간의 흐름은 멈추게 할 수 없다. 흐르는 시간을 한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죽음과 허무,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주 속에서는 순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반드시 찾아오는 것도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명제를 깨달은 죽서에게 허무는 절대적 이념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 속에는 ‘회(懷)’가 많이 등장한다. 회는 ‘품다, 마음, 길들이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품다.’이다. 이는 죽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사유한다는 의미이다. 시 166수 가운데 ‘회’를 제목으로 한 경우는 대략 25편에 해당한다. 이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유회(有懷): 3수, 유회(遺懷): 5수, 술회(述懷): 2수, 야회(夜懷): 1수, 서회(書懷): 1수, 병회(病懷): 1수, 월야서회(月夜書懷): 1수, 조춘서회(早春書懷): 1수, 춘일서회(春日書懷): 1수, 모춘서회(暮春書懷): 3수, 추일서회(秋日書懷) 1수, 우회(偶懷): 1수, 영회(詠懷): 1수, 회백형(懷伯兄): 3수 등이다.

시 속에서도 ‘회(懷)’자는 17번 정도 등장한다. 시적 화자는 영겁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번뇌나 시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미 깨닫는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는다. 늘 괴롭고 번뇌한다. 이것이 구체적 현상화로 현실이 되었을 때 시적 화자는 당황한다. 인생 철학을 대입해도 여전히 힘들다. 거기서부터 딜레마⁹¹⁾가 시작된다.

轉輾寒衾夜不眠	찬 이불 속 전전긍긍 밤새 잠을 설치니
鏡中憔悴只堪憐	거울 속 아윈 얼굴 가엾기 그지없네.

91) 딜레마(Dilemma) :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함. 양도(兩刀) 논법이라고도 한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삼단논법으로 설명하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딜레마는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성적 시스템과 정서적 시스템 사이에서 우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신경윤리학자들은 말한다.(백과사전)

何須相別何須苦 從古人生未百年	어찌 서로 이별해야 하며, 괴로워해야 하나 예로부터 인생살이 백년도 못 되는 것을.	<有懷>
陌頭水柳奄青山 半壁蒼然右丈顏 薄酒香餘花落後 新詩情澁月明間 從容臨水心俱淨 迢關登樓意自閒 春去猶應春又至 吾生一死竟誰遷	길가 수양버들 푸름 더하고 반 절벽은 오래되어 옛 빛 저절로 드러나네. 얇은 술 향기 꽃진 후에까지 남아 있고 새로 지은 시는 밝은 달빛에도 이해하기 어렵구나. 물가에 다가가 마음을 맑게 하고 누각에 올라 마음을 한가롭게 하네 봄이 가면 당연히 봄은 또 오는 법인데 내 삶이 한번 죽으면 결국 누가 다시 돌아오나.	<偶題>

시적 화자는 이미 알고 있다. 아등바등 살아봐야 인생은 100년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그렇다면 사소한 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당황스러움과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시적 화자의 괴로움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철학관이 뚜렷해도 아무리 의연하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라도 칼에 베이면 아픈 법이다. 시적 화자의 이별은 상대방 탓만은 아닌 듯싶다. 그러나 괴롭고 잠도 자지 못한다. 현실 극복이란 세상을 달관했다고 마음먹어도 그리 쉽지 않다. 겨울이 가면 당연히 봄이 오는 것이 자연 이치인데 인생은 어떨지를 궁급해 한다. 우주의 이치와 인생의 삶의 법칙을 생각해 보며 유한과 무한을 상기한다. 이런 것들이 그녀를 고뇌하게 한다. 이러한 고뇌는 그녀의 시 곳곳에 드러난다. 죽서는 번뇌와 시름, 고뇌는 한낱 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시 텍스트에 자주 나타나는 꿈(夢)이란 단어가 이를 반영한다.⁹²⁾ 이 꿈은 인생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인생은 꿈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다. 잠시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은 처지이다.

92) 夢-34번 등장.

重簾寂寂雨絲絲	이슬비 내려 발 첩첩 내리니 적막하기만 한데	
楊柳春深病不知	버들 따라 봄 깊어지니 병 난 것을 알지 못하네	
嫩草初齊風淡淡	새싹은 가지런히 나서 바람에 담담하고	
嬌鶯欲囀日遲遲	아름다운 앵무새 재잘대지만 하루 해 길기만 하다.	
最是無聊看月夜	달빛 바라보는 밤도 몹시 무료하기만 하고	
那堪虛度賞花時	꽃구경하는 시절 어찌 헛되이 보낼 것인가.	
從古浮生俱逆旅	예로부터 덧없는 인생은 여관살이에 비유했지	
如何辛苦怨相思	상사의 괴로움 참는 것이 어떠하던가	<春日書懷>

즉 인생은 꿈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다. 잠시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은 처지이다.

斜掛驛亭催客意	역정에 비스듬히 걸려 나그네 마음을 재촉하고	<日影>
逆旅浮生猶努力	이 세상의 덧없는 삶 오히려 노력한다면	<寄呈>

장자는 바깥 사물에 휘둘려 희로애락이 오고 가는 것은, 손님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逆旅(역려)]과 다름없다고 탄식했으며, 이백도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라고 했다.⁹³⁾ 하늘과 땅은 공간이며 이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은 마치 여관에 나그네가 왔다가 가고, 또 다른 나그네가 왔다가 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는 것이다. 공간(여관) 입장에서 볼 때 나그네의 정체나 존재 가치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 천대, 만대 이렇게 우주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吾生却恨似輕塵	내 삶은 가벼운 먼지 같아 한스럽다	<睡餘>
---------	---------------------	------

죽서는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먼지로까지 폄하한다. 이 먼지는 우주 속 먼지인 것이다. 우주 속에서 인간의 삶이란 덧없는 것임을 잘 알기에

93) 李伯, <春夜宴桃李園序> 중에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녀는 꿈, 부(浮: 浮生, 浮世, 浮雲 등)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또한 인생의 덧없을 반영하는 ‘잔(殘)’ 글자도 많이 사용한다. 잔(殘)은 28회 정도 등장하는데 주로 잔화(殘花), 잔등(殘燈), 잔춘(殘春), 잔홍(殘紅), 잔추(殘秋), 잔하(殘霞), 잔몽(殘夢) 등과 같이 결합해서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은 대상을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시인(詩人)의 삶과 자긍심

죽서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인생은 유한한 나그네이기에 우주 시간 속에서 헛된 존재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서는 욕망이 전혀 없는 인간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 듯하다. 그녀에게도 욕망이 있었다. 그녀의 욕망과 집착은 글 쓰는 일이다. 글에 대한 모든 것은 적극적이다. 그리고 그녀의 지적 수준이나 글 쓰는 행위, 시 작품을 작성하는 자신에게만 상당히 충실했던 듯싶다. 작품 중에서 시인이나 글 쓰는 일, 시작 등과 관련된 작품은 대략 32편이다.

篋中短句誰相和	상자 속 시구는 누구와 서로 화답하리	
鏡裏癯容却自憐	거울 속 파리한 모습 도리어 가련하네	
二十三年何所業	스물세 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半消針線半詩篇	절반은 바느질하고 절반은 시를 썼네	<病後>

시적 화자가 병을 앓고 난 후 걱정하는 것이 누구와 시를 화답할 것인가이다. 상자에는 아마도 그간 지은 시들이 쌓여있었던 듯싶다. 이 글은 죽서가 23세 때 썼다는 정보도 나와 있다. 23년 살았던 자신이 평생 한 일이라고는 절반은 바느질이고, 절반은 시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조에서 여성들의 바느질이 얼마나 큰일이며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일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바느질하는 만큼 글을 썼다는 것은 시작에 엄청나게 몰입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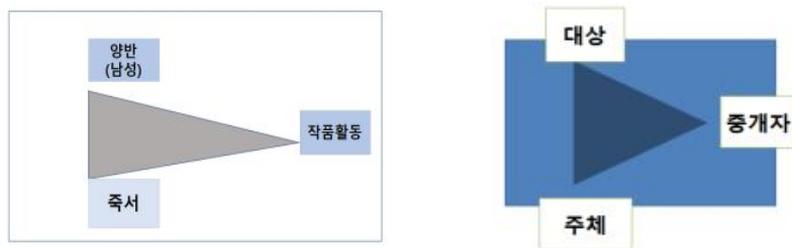
海內幾人三絕兼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삼절을 겸비했을까
文章從古世多嫌	문장은 예로부터 세상의 미움을 많이 받았지
錦心繡口才難敵	아름다운 글재주는 대적하기 어려워
鶴膝蜂腰格又添	학슬봉요 수법에 품격 또한 더해졌네
雪月精神開畫帖	눈 속에 달처럼 밝고 아름다운 정신 화첩에 펼쳐졌고
山川氣色發詩籤	산천의 아름다운 기운 시를 통한 예언에 드러났다.
深閨失學君休笑	규중의 실학에 대해 그대여 웃지마오
豈有燈花雨露霏	등불 빛이 어찌 비이슬에 젖으리 <同題>

이 시는 제목이 동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작품의 연장선에서 언급한 듯하다. 바로 앞에 배열된 작품은 <봉정(奉呈)>이다. 그대에게 바치는 작품이니 이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가 칭찬하는 대상은 결국 ‘그대’이다. 하지만 상대의 글재주를 한껏 높이면서 자신의 재주도 슬쩍 비치고 있다. 등불이 어찌 비나 이슬에 젖겠는가? 라며 등불의 뛰어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시작에의 작업은 예나 지금이나 녹록하지 않다.

明月如期小院東	밝은 달이 작은 담 위에 다시 떠오르니
人聲初靜九街中	드넓은 거리엔 사람들 소리 적막해졌다.
欄頭佇立還悵悵	난간 머리에 서게 되니 되려 구슬퍼지는데
詩轉難成意不窮	뜻은 끝이 없으나 시는 더욱 이루기 어렵구나 <謾吟>

시를 잘 쓰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다.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초월은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죽서는 욕망의 주체이며 그 대상은 시 짓는 일이다.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지만 대상에 의해 좌절되고 간접화된 중개자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된다. 이를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에 부합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이 주체인 죽서의 욕망은 자연물이라는 중개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화 현상(médiation)이라고 한다. 즉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상승하여 중개자를 거쳐

대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화된 욕망을 ‘삼각형의 욕망’ (désir triangulaire)이라고 부른다.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⁹⁴⁾



죽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하며 세상 이치를 깨닫는다. 하지만 아무리 철학적 사유로 무장을 해도 현실적 결핍은 그를 힘들게 한다. 소설이라는 위치는 남편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 당연히 남편도 혼자 독점할 수 없다. 이러한 상실에서 오는 외로움과 뿌리 없음, 부평초 같은 처지에 대한 자각, 그리고 병약한 몸, 이 모두가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죽서는 니힐리즘에 빠져있다. 그녀의 작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어는 봄(春)이다. 봄이란 단어는 무려 53번 등장한다. 그다음이 달(月)인데 48번 등장한다. 그러나 이 봄과 달은 온전한 봄과 달이 아니다. 봄은 아키타입에서 희망과 기쁨, 시작을 의미한다. 달은 풍요와 평안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죽서에게 있어 봄이라는 단어와 달이라는 단어는 혼자 사용되지 않는다. 그녀에게 봄은 ‘춘거(春去), 만춘(晩春), 춘진(春盡), 상춘(傷春), 잔춘(殘春), 춘심(春深) 등’으로 표현되는 봄이며, 달(月)은 ‘잔월(殘月), 허월(虛月), 진월(盡月), 단월(端月), 만월(晩月)’ 등으로 표현되는 달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시어는 ‘불(不)’-43개, ‘무(無)’-40개, ‘수(愁)’-33개, ‘병(病)’-33개, ‘한(寒)’-31개, ‘난(難)’-30개, ‘진(盡)’-29개, ‘낙(落)’-29개, ‘잔(殘)’-28개, ‘주(酒)’-28개, ‘독(獨)’-28개, ‘미(未)’-25개, ‘야(夜)’-24

94)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옮김(1976),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3쪽.

개, ‘우(雨)’-23개, ‘서(西)’-22개, ‘리(裏)’-21개, ‘음(陰)’-18개, ‘회(懷)’-17개, ‘취(醉)’-14개, ‘고(孤)’-13개, ‘등(燈)’-12개 등이다.⁹⁵⁾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음성적인 의미를 반영하거나 내포하거나 함축하는 단어이다. 심지어 ‘등(燈)’조차도 ‘고등(孤燈), 한등(寒燈), 잔등(殘燈)’ 등 부정적이며, ‘화(花)’도 낙화(落花), 잔화(殘花), 만화(晩花)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驀地相思驚起坐	불현듯 임 그리워 벌떡 일어나 앉았네.	
傍人猜問意還慙	옆 사람이 의아해 물으니 이 마음 더욱 부끄러워라.	
不言誰會心中事	말 못할 내 가슴속을 그 누가 알라	
一炷殘燈定有語	꺼져가는 저 등잔불만이 바로 알아주겠지.	<卽事>

이렇듯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뿌리 없음을 자탄하며 조용히 사는 죽서였지만 시를 짓는 일에서만은 적극적이었고, 시적 재능을 발휘하여 당당하게 자신이 존재를 의미 있게 규명한다. 이 부분에서만은 피동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실현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욕망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객관적으로 의식하면서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人生疎懶意亂平	한평생 게을러 뜻 달래기 어렵고	
病送花時月更明	병들어 꽃 시절 보내니 달 더욱 밝다	
從古詩才應有限	예로부터 시재는 응당 한계 있으니	
如今半啞不須名	지금 반병어리 이 몸 명예 구하지 않네.	<偶吟>

95) 죽서 시 텍스트 166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대략 다음과 같다.

春-54개(春去, 晩春, 春盡, 傷春, 殘春, 春深 등), 月-48개(殘月, 虛月, 盡月, 端月, 晩月, 淺月 등), 不-43개, 無-40개, 愁-33개, 病-33개, 寒-31개, 難-30개, 盡-29개, 落-29개, 殘-28개, 酒-28개, 獨-28개, 未-25개, 夜-24개, 雨-23개, 西-22개, 裏-21개, 陰-18개, 懷-17개, 醉-14개, 孤-13개, 燈-12개이다. 그 외 秋-11개, 憐-10개, 雪-10개, 暮-10개, 過-9개, 苦-9개, 恨-9개, 晩-8개, 淒-8개, 暗-8개, 困-7개, 鳴-7개, 啼-7개, 曉-7개, 北-7개, 疎-6개, 去-6개, 終-5개, 斷-5개, 別-4개, 忘-4개, 燭-4개, 驚-4개, 隱-4개, 惜-3개, 減-3개, 淚-3개, 終-3개, 惱-3개, 消-3개, 悲-3개, 怨-3개, 恐-2개, 憂-2개, 短-2개, 送別-2개, 窮-2개, 怨-2개, 悲-2개, 破-2개, 薄-2개, 罷-2개, 哀-2개, 折-2개, 凍-2개, 傷, 夕, 昏, 衰, 惜 등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시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곧 자신의 한계를 인지한다. 이 세상 것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섭리는 무한하고, 인간의 삶은 찰나이며, 여관에서 머무른 것같이 일시적임을 이미 깨우쳤기에 그 시재도 한계가 있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자기는 평생 자신이 그나마 능력 있고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마저도 명예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회와 신분적 제약이라는 이중적 불평등에 노출되는 한편 젠더로서의 여성 작가의 위치도 반병어리라는 어휘 속에 간혀있음이 감지된다. 여기에는 결국 명예도 헛된 것이라는 그녀의 철학이 개입된다. 하지만 이렇게 비극적 달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장벽에 부딪혀야 했을까?

(3) 나그네 의식 및 향수

이렇듯이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자신의 삶은 여관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며, 떠돌이임을 자각하고 이를 깨달은 죽서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열망하고 있음이 시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신의 근원, 자신의 뿌리를 향한 손짓은 죽서가 태어난 고향인 원주,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상화된다. 고향을 주제로 한 것은 오빠를 그리워하는 시 2편을 포함해서 모두 15수이다. 이 주제가 죽서의 전체 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주제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는 매우 주요한 주제임은 틀림없다.

落花天氣以新秋	꽃은 지고 날씨는 초가을처럼 쌀쌀하니	
夜靜銀河淡欲流	고요한 밤 은하수도 맑게 흐르네.	
却恨此身不如雁	도리어 한스러워 하네, 이 몸 기러기처럼	
年年來得到原州	해마다 원주 땅 가지 못하는 것을.	<暮春書懷>

시적 화자는 자신을 철새인 기러기와 비교하면서 실은 기러기만도 못한 처지라고 자탄하고 있다. 그토록 그리운 고향 원주이지만 자주 가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죽서는 비록 서출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게다가 적서, 남녀 차별도 자랄 때만은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죽서가 그리워하는 원주는 어렸을 때의 추억의 장소 여서이다.

獨倚欄干恨更長	난간에 홀로 기대니 시름 더욱 심한데	
北風吹雪夜昏黃	북풍에 눈 날리며 날이 저문다.	
數聲鴻雁遠雲外	멀리 구름 밖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기러기 소리	
東望古園天一方	동쪽 바라보니 고향은 하늘 저쪽	<思故鄉>

역시 기러기가 등장한다. 기러기는 철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새이다. 북반구의 북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 남하, 이동해 오기 때문이다. 많은 새 중에 하필이면 기러기한테 자신을 이입한다. 이입이 아니라 기러기만도 못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한다. 기러기는 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존재이다.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러기가 지니는 애상적 상징성을 자신의 것으로 치환시킨다. 기러기는 울음소리가 구슬프다고 알려졌다. 기러기한테 마음이 가는 이유이다.

一望鄉山隔九河	고향 산 바라보니 강물로 막혀	
年年悵悵是秋過	해마다 쓸쓸히 가을 보낸다.	
月窓梧影看來瘦	창에 비친 오동나무 그림자 볼수록 야위어가는데	
露砌虫聲聽似歌	이슬 내린 섬돌 벌레 소리 노래처럼 들린다	
倘使筆頭能畫淚	붓으로 눈물을 그릴 수 있다면	
分明紙面已生波	분명히 종이 위 물결이 넘쳤을 것을	
此身此恨相隨在	이 몸에 이 한이 늘 따라 있으니	
無計推排奈若何	밀쳐낼 계책도 없으니 어이할 것인가?	<思故鄉>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 ‘자기’라는 존재 때문이다. 실존철학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은 참기 힘들다. 시간적 배경은 가을이라 시적 화자의 심사를 더욱 외롭게 하고 있다. 오동나무 그림자는 생각만해도

을씨년스러운데 이 나무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진다. 쓸쓸함이 배가되고 있다. 그래도 한가락 위로가 있다면 섬돌의 벌레들이다. 가을에 내는 그들 소리는 노래를 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다. 그 눈물이 넘쳐나서 물결이 일고, 흐를 정도로 고향을 향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철학적 사유로 수렴하면서 의연해지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명제로 하며 마음을 접는다.

특히 고향에 대한 집착은 애처로울 정도이다.

看雲咫尺今宵月	구름 가까이 떠 있는 오늘 밝은 달 바라보며	
願借清光抵故鄉	밝은 빛 빌려 고향에 이르기를 빌어보네.	<新秋吟>

惟餘殘燭應相伴	다만 꺼질 듯 깜박거리는 등불 마주하고 있으니	
佳節那堪憶故州	아름다운 계절에 어찌 고향 생각 건디리	<書懷>

여기에서 고향은 부평초 같은 그녀를 뿌리내리게 하는 장소이다. 나그네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고향을 떠난 순간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旅懷已覺來千里	나그네의 이 마음은 이미 천리나 왔음을 알겠거니	<病中歌>
---------	----------------------------	-------

客久更難拋物界	나그네 생활 오래되니 세상 괴로운 일 포기하기 어렵고	<病懷>
---------	-------------------------------	------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인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복한 유년 시절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작품 텍스트 속에서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一瞬滄桑真可念	한순간에 모든 것이 크게 변하는 줄 안다면	
何人肯教暫離家	누가 잠시라도 집을 떠나겠는가	<又>

恍惚慾醒殘夢裏	황홀히 깨려는데 남은 꿈속에	
兒童身在故園時	아이적 이 몸 고향에 있네	<春後>

평생 부평초와 같은 나그네 길을 가야하는 줄 알았다면 누가 잠시라도 집을 떠났겠는가? 좋았던 시절이라 황홀하다고 표현한다. 황홀한 그 시절은 결국 죽서의 어린 시절인 것이다. 꿈과 이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소수자들의 기대지평일 뿐 착종된 현실에서는 그들의 희망과 욕망은 충족시키기 힘들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들뢰즈에 의하면 소수자들은 권력에서 탈피하여 자신들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각자의 예술세계는 그들 소수자들한테는 하나의 탈출구이며, 감정을 추스르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돌파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녀이며 소설이라는 신분은 이중 결핍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다. 젠더로서의 여성이 지닌 불평등에 노출되는 한편 서얼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서로 겹치면서 그녀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는 몇 배 무거울 수밖에 없다. 죽서는 이러한 삶의 무게를 우주의 영겁 시간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철학적 사유로 무장해서 버텨보려고 애썼던 여성 지식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죽서의 시 작품 166편을 대상으로 해서 시 세계를 좀 더 천착해서 작품의 근본적인 특성을 규명해 보고, 작품 텍스트를 통해 죽서의 아이덴티티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죽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1) 허무적 달관 철학과 2) 詩人의 의무 및 자긍심, 3) 나그네 의식 및 향수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죽서는 인생은 유한한 나그네이기에 우주 시간 속에서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당황스러움은 매사 부정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에 놓이게 한다. 아무리 철학관이 뚜렷하고, 스스로 의연하려고 해도, 삶은 나그네일 뿐이라고 되뇌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비관적 허무주의 삶을 표명하지만 그러나 죽서는 시작에서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운다. 따라서 죽서의 욕망은 시를 향하고 있었으며, 정말 원하는 목적은 명예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시적 재능을 발휘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규명해 나간다. 그러나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현실적 장벽을 객관적으로 의식하면서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 외 죽서는 고향을 향해 끊임없는 미련을 보이고 집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죽서에게 고향은 부평초 같은 그녀를 뿌리내리게 했던 장소이며, 나그네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죽서는 서녀이며, 소실이라는 이중 결핍에 놓여있는 인물로서 젠더로서의 여성이 지닌 불평등에 노출되는 한편 서얼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서로 겹치면서 그녀가 견뎌야 하는 무게는 몹시 무거웠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이 그녀를 비판적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한 가닥 기여했겠지만, 죽서는 이러한 삶의 무게를 우주의 영겁 시간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철학적 사유로 무장해서 자신의 길을 힘겹게 걸어간 조선조 여성 지식층이었다.

Ⅲ

강원 서출 여성 문인의 공통점과 변별점

강원도 서출 출신 여성 문인 중 이옥봉, 김금원, 박죽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공통점과 변별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계보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의 고향은 강원도이거나 강원도에서 살았던 문인이다. 김금원, 박죽서는 원주가 고향이지만 이옥봉의 고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버지 이봉이 옥천 원님을 지냈기에 옥봉의 고향을 옥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현재는 강원도 여성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삼척과 영월을 주제로 한 시가 널리 알려졌고, 또한 삼척에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은 강원도 문인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은 모두 서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이옥봉은 아버지가 왕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자신을 왕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내적으로 관리를 꿈꾸기도 한다. 옥살이하는 백성을 위해 글을 써서 구해주기도 하고, 장군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거나, 전쟁을 치룬 공과를 치하하는 등의 작품이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해준다. 따라서 작가=시적 화자의 퍼스나는 왕족, 장군, 선비, 고을 원님 등으로 나타난다.

五日長干三日越
哀詞吟斷魯陵雲

닷새는 강을 끼고 사흘은 산을 넘으며
슬픈 노래마저 부르다 끊어진 노름의 구름

妾身亦是王孫女	이 몸 또한 왕손의 딸이니	
此地鶉聲不忍聞	이곳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寧越道中>
將軍號令急雷風	장군의 호령 소리 급하기 뇌풍과 같은데	
萬賊懸街氣勢雄	적의 머리 베어 거리에 내거니 기세 웅장하네.	
鼓角聲邊吹鐵笛	고각(鼓角) 소리에 쇠 피리도 함께 울리니	
月涵滄海舞魚龍	달 잠긴 너른 바다에 어룡이 춤을 추네.	<贈兵使>

옥봉이 이렇듯이 당당하고 거침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왕족이고, 옥봉을 애지중지했으며, 평소에 옥봉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김금원의 부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금원이 밝힌 ‘한미한 집안’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크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강산 여행을 허락하고,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 준 점, 금원과 금원 동생 경춘이 비록 소실이기는 하지만 모두 벼슬을 하는 명문가에 시집을 보낸 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히려 부친의 지위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에 이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어서 감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생 경춘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를 거의 기록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동생도 일부러 숨긴 것이며, 아버지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감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금원의 성품 때문이다. 금강산 여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 부친의 허락을 감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아버지와의 친밀성,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 아버지의 금원을 향한 사랑 등 모두가 자신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는 속담을 적용할 수 있다. 금원은 죽서와 동생 경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을 언급했다.

“때때로 모여 시를 주고받는 이가 네 사람이다. 하나는 ‘운초’라 하는데 성천사람이고 연천 김상서의 소실이다. 재주가 매우 뛰어나 시로 크게 알려졌다. 자주 이곳을 찾아오곤 하는데 어떤 때는 며칠씩 묵기도 한다. 또 한 사람은 ‘경산’으로, 문화 사람이며 화사 이상서의 소실이다. 학문과 식견이 넓고 시에 능하였다. 마침 이곳에 살고 있어서 서로 왕래한다. 또 한 사람은 ‘죽서’인데 같은 고향 사람으로 송호

서태수의 서실이다. 재기가 빼어나고 지혜로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문장은 한유와 소식을 따랐으니 시 또한 기이하고 예스럽다. 마지막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우 '경춘'이니 주천 홍태수의 서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단정할 뿐만 아니라 널리 경사에 통달하였다. 시 또한 여러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

운초는 재주가 뛰어나고 시로 크게 알려졌으며 자주 나를 방문하여 혹은 며칠씩 머무르기도 했으며, 경산은 아는 것이 많고 박식하였으며 음영에 뛰어났다. 그리고 죽서는 재기가 영민하고 지혜로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는데 문은 한유와 소동파를 사모하였고 시 또한 기이하고 고아하였다. 경춘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단아하고 경사에 널리 통하였으며 시사(詩詞) 역시 여러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다.”⁹⁶⁾

금원의 언급에 의하면 동생 경춘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단아하고 경사에 널리 통하였으며, 시사(詩詞) 역시 여러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다’고 한다. 상당한 칭찬이다. 단아하다는 평을 보면 동생 경춘도 한 미모 했었던 듯싶다. 동생도 기녀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듯싶다. 왜냐하면 동생 경춘이 기녀였다면 호사가들의 글 속에 그 사실이 누락되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금원이 기녀였을 시절의 이름인 ‘금앵’은 그 소문이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까지 퍼져 있었는데, 동생도 만약 기녀였다면 ‘재예와 미모가 출중한 자매’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이 기녀 신분이었다면 누구의 소설인지도 뚜렷하게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기녀들이 명망있는 양반집 소설로 들어가는 것은 기녀들 사이에서는 자랑스러운 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춘은 누구 소설로 갔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소설에 대해서는 누구의 소설이라고 이름을 명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모든 점을 보았을 때 금원은 당시 이름이 알려진 부친의 이름과 동생에 대해서는 일부러 함구하고, 감춰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금원은 적어도 한미한 집 서출은 아닌 것이다.

“다섯 사람이 서로 마음을 아는지라 더욱 친하고, 또 함께 경치 좋은 곳과 한가한 곳을 찾아 화조운 연과 풍우일월을 좋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혹은 거문고를 타며 그 소리를 즐기며 청흥을 보냈고 혹은 담소하다가 천기가 유동하면 곧 글을 짓되, 혹은 맑게, 혹은 곱게, 혹은 씩씩하게 혹은 과(古)하게,

96) 「호동서락기」

혹은 호탕하게, 울부짖는 듯하여,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이 타고난 성정대로 익혀 모두 한가지로 유유 자적하였다. 특히 경춘은 당체지정과 관포지의로 지냈거니와 그 초진탈속한 모습과 출류발체한 재주는 수월(水月)의 정이나 옥설의 살갓과 같았으니 고금에 드물게 보는 바이나 애석하게도 규중여자이었으므로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였다. 어찌하였든 우리는 모두 형제처럼 대하면서 마음과 속을 주고받았다.”⁹⁷⁾

금원의 동생 경춘은 금원에 의하면, 특히 ‘경사에 통달했고, 시도 잘 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생과는 ‘당체지정과 관포지의’로 지냈다고 하고 있다. 동생을 매우 아끼고 또 인정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초진탈속한 모습 등 고금에 드물게 보는 인재’라고 평한다. 그러면서도 ‘규중여자’라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탈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동생은 조용한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좋아했던 듯싶다. 아니면 자신의 정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니인 금원이 화려하고 외향적이며, 명랑했다면 동생은 반대로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속으로 모든 것을 품는 성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식과 문장이 출중한 동생의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러한 점을 입증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생의 흔적은 단지 언니 서책에 발문을 신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언니 글을 평가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 금원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남편 이름조차 확실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금원이 부친이나 동생에 대해 일부러 함구하고 감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비해 박죽서 부친은 일반 선비에 해당된다. 집안은 예전 선조는 부마 집안이었지만 부친은 그리 큰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품이 뛰어나고 가정을 단란하게 이끌었기에 가족끼리 우애가 넘치고 소소한 행복이 깃든 집안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집안 배경으로 인해 죽서는 가족과의 우애는 깊었고 어린 시절 행복한 추억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겠지만 두 여성에 비해 매사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죽서는 모든 것을 안으로 삼키며, 인생의 헛됨을 상기하고 또 상기하면서 매사 초월하려고 애쓴다. 그녀의 작품은 우울한 측면과 비애스러운 분위기

97) 위의 책.

기가 지배적이다. 그녀는 자신을 웅크려서 철학적 사유 속에 감춘다. 스스로를 달팽이에 비유하며, 학이 되지 못하고, 새장 속의 새가 된 것에 대해 자책한다. ‘백 년 사는 명성 그 값이 얼마나 되어, 해마다 푸른 풀, 꽃다운 나이 원망’ 한다. 또한 ‘병 끝에 비로소 파리한 모습 느끼니 서럽기도, 놀랍기도 하다’고 되뇌이며, ‘내 삶이 가벼운 먼지 같아 한스럽다’고도 토로한다. 자신을 비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정도이다. 오죽하면 호를 ‘반병어리’라는 의미의 ‘반야당’이라고 지었을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計無狡兔營三屈	굴 셋 파놓은 교활한 토끼 같은 꾀 없어
身似鸚鵡足一枝	나뭇가지 하나에 만족하는 뱀새 같은
舊學未能真是病	옛날에 배운 것 능하지 못하여 진실로 이것이 병이라
十年勤苦竟何爲	십 년 동안 고생한들 무엇하리오

<閒詠>

토끼 같은 꾀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황새를 쫓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뱀새임도 토로한다. 진정한 초탈자는 아닌 것이다. 나서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자조할 뿐이다. 그러니 인생이 즐겁지 않다. 화병도 날 법하다. 실제로 죽서는 늘 아프다. 그래도 그녀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이 작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篋中短句誰相和	상자 속 시구는 누구와 서로 화답하리
鏡裏癯容却自憐	거울 속 파리한 모습 도리어 가련하네
二十三年何所業	스물세 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半消針線半詩篇	절반은 바느질하고 절반은 시를 썼네

<病後>

글을 짓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죽서뿐만 아니라 금원과 옥봉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모두 글 쓰는 능력, 즉 조선조 선비 누구 못지않은 지성을 갖추었다는 자긍심에서 비롯된다. 이 세 여성 모두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옥봉의 경우를 보면, 옥봉은 본실 자식의 학식을 아끼는 체하면서 슬쩍 자신을 거기에

끼워 넣는다. 그러면서 아들과 자신의 글재주는 거의 신기에 가깝다고 하면서 명분은 아들을 내세우지만 실은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妙響皆童稚	묘한 재주 어릴 적부터 뛰어나서	
東方母子名	우리 모자 동방에서 이름 드높네	
驚風君筆落	네가 붓을 움직이면 바람이 놀라고	
泣鬼我詩成	내가 시를 지으면 귀신이 곡을 하네	<贈嫡子>

이 작품에는 옥봉은 본실 부인이 되고 싶고, 그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 되었으면 하는 욕망도 한편으로는 숨어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글솜씨도 높이고 있는 여러 의도가 중첩되고 있는 작품이다.

금원도 「호동서락기」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후대에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라’고 하고 있다. 자신의 글솜씨에 대한 자긍감과 자심감이 넘쳐난다.

“우리는 다 형제처럼 대하면서 마음과 속을 주고받았다. 때로 입 다물 줄 몰랐고 때로 글을 논함에 졸졸 내려 따졌고, 때로는 시절에 맞추어 글을 읽음에 쟁쟁하기가 꾀꼬리가 봄 숲에 울 듯, 봉이 높은 뒀에 우는 듯하였으니 흐뭇하여 스스로 어쩔 줄을 몰랐다. 평생의 정유(情遊)를 회념컨대, 산과 내를 따라 기괴한 곳을 찾아 명승을 거의 두루 돌며 남정네들도 할 수 없는 바를 다 하였으니 하고픈 대로는 다 한 셈이다.

슬프다. 천지의 강산은 큰데 구석의 우리나라는 대관에 부족하고 고금의 일월은 유구한데 백년부생(百年浮生)은 쾌락에 부족하구나. 그러나 한 구석으로써 미루어 짐작하면, 천하의 강산이 다 이와 같고 백 년을 미루어 짐작하면 천하의 강산이 다 이와 같고 백 년을 미루어보면 예로부터 이제까지가 다 같은 세월일지니 강산의 대소와 일월의 멀고 가까움을 논하여 무엇하랴. 다만 지나온 일을 보면 모든 경계가 다 한가지로 보건대 꿈일 뿐이로다. 만약 글로써 천치 아니하였다면 오늘에 금원 있음을 어찌 알리오? 저 베개를 베고 눈을 감고 신령의 경지에 들어 공공명명하여 감화함도 한 밤의 꿈이요, 크게 생각하면 천지의 일순(一瞬)인지라, 살아온 온갖 일이 다 허로 돌아가나니 이는 곧 평생의 꿈이다. 그러므로 황량몽(黃梁夢)과 같은 잠간의 헛된 꿈을 꾸고 나서 비로소 평생이 길기는 하나 꿈임을 깨달으며 화서

98) 황량몽(黃梁夢) : 잠깐 사이에 꾸 부귀영화의 꿈. 당 노생의 한단 땅의 주막에서 도사 여승의 베개를 빌어 베고 잠이 들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든 살까지 잘 지낸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아까 끓이기 시작한 황량밥이 채 되지 않은 동안이었다고 하는 고사가 전해짐.

몽99)을 꾸고 나서 비로소 지극한 도가 무위임을 깨닫나니 평생의 긴 꿈과 하룻밤의 짧은 꿈이 무엇이 다르리오? 슬프다, 하루로 보면 하루가 꿈이요, 한 해로 보면 한 해가 또한 꿈이니 백 년, 천년 예로부터 오늘까지가 다 꿈 아닌 것이 없으며 나 또한 꿈속의 사람으로 꿈속의 일을 적고자 하니 이 어찌 몽중몽이 아니라. 마침내 한번 웃고 붓을 도와 유람시발(遊覽始發)을 적으니 천백 중 열의 하나요, 읍은 글에 이르러서는 흠여 없어진 것을 거두지 못하고 그 대략을 이에 적어 한중와유에 보탬이 되고자 하노라. 저 유람한 곳은 호중사군으로부터 관동으로 옮겨와서는 금강산과 팔경, 그리고 낙양을 거쳐 관서로 가서는 만부(灣府)인데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낙양으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호동서락기라 이름하는 바이다. 경술모춘상한에 금원이 적었노라.”¹⁰⁰⁾

삼호정 시사회원들의 글을 비단 같은 글이라고 평하고 있다. 비단 같은 글이 상에 가득하고, 주옥같은 명구가 선반 위에 가득하여 때로 소리 내어 읽으면 낭랑하기가 쇠를 두드리고 옥을 부수는 것 같았다고 하여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인생은 한갓 꿈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나마 이를 적지 않으면 금원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며 이런 의미로 글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원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특히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본인도 알고 있었기에 것처럼 당당하게 삶을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들의 이러한 특성은 작품이나 고향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옥봉의 고향의식은 작품 속에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금원은 아무 곳이나 뿌리내리는 곳이 고향이라며 타지에 뿌리를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春雨春風未暫閒	봄비 봄바람 잠시도 그치지 않는데
居然春事水聲間	어느덧 봄날의 일이 물소리 사이에 있네
舉日何論非我土	눈 들어 내 고향 아니라고 어찌 논하겠는가
萍遊到處是鄉關	부평초처럼 떠돌다 이르는 곳이 모두 고향이리네

99) 중국 옛 전설의 임금인 황제가 낮에 잠을 자다가 꿈에 화서나라에 가 그곳의 태평한 모습을 보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100) 이능화, 김상화역역(1978), 『김조선여숙고』, 대양서적, 323-324쪽. 문맥이 통하지 않은 부분은 필자가 수정함.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봄날은 금방 가는데 어릴 때 추억이 깃든 장소인 고향에 뭐 그리 연연하겠냐는 의미이다. 자신이 있는 곳이 모두 고향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지니고 있으니 향수병에 걸릴 일이 없다. 사실 유연한 사고방식도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서는 다르다.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워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릴 때 추억이 있기 때문이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크게 변할 줄 알았다면 누가 집을 잠시라도 떠났겠냐’며 고향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다.

旅懷已覺來千里
客久更難拋物界

나그네의 이 마음은 이미 천리나 왔음을 알겠거니 <病中故>
나그네 생활 오래되니 세상 괴로운 일 포기하기 어렵고 <病懷>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인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복한 유년 시절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작품 텍스트 속에서 노골적, 직설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一瞬滄桑眞可念
何人肯教暫離家

한순간에 모든 것이 크게 변하는 줄 안다면 <又>
누가 잠시라도 집을 떠나겠는가 <又>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시적 화자인 죽서는 고향을 떠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줄 알았다면 결코 잠시라도 떠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고향 떠난 것에 대해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만큼 고향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현재의 삶은 고달프기 마련이다. 매사 불만족스럽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늘 함께 했던 그 단란함을 죽서는 지독히 그리워했던 듯싶다.

恍惚慾醒殘夢裏
兒童身在故園時

황홀히 깨려는데 남은 꿈속에 <春後>
아이적 이 몸 고향에 있네 <春後>

비록 꿈속이지만 고향에 있던 순간을 황홀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죽서는 그만큼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들의 가정사를 보면 옥봉은 남편과 늘 함께 하며 다정히 지내다가 내쳐졌고, 내쳐진 후 비참해진 경우라면, 죽서는 남편과 늘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는 박탈감으로 인해 외로운 처지에 놓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금원은 비록 소실이지만 남편이 세상을 뜰 때까지 늘 함께 했고,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으며, 거의 본실 행실을 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옥봉은 자신의 욕망이 심하게 좌절됨을 경험했으며, 죽서는 욕망 자체를 죽이며 체념과 달관의 시선을 가지고 생활했다. 거기에 비해 금원은 자신의 욕망을 거의 채우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원의 실태는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원래 자신의 기분에 의해 자연물도 보이기 마련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듣고, 느끼듯이 자신의 감정대로 사물에 이입되기 마련이다. 자신이 즐거우면 태양도 밝게 빛나고, 새도 즐겁게 지저귀며, 물도 졸졸 노래하며 흐른다. 그러나 자신이 불행하면 태양은 짜증나게 빛나며, 새는 울고, 물도 흐르는 눈물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금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삶이 그만큼 만족스러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녀들의 성품을 보면 옥봉이 가장 적극적인 성품이었고, 그다음 금원, 죽서 순이다. 죽서는 적극적인 성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극적이었다. 옥봉은 남편 될 사람도 본인이 지목해서 관철시킨다. 스스로 선택한다. 물론 이 결연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력자인 부친 이봉까지 앞세워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이옥봉 소원대로 조원의 소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옥봉 결연과정에 개입된 이러한 요인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비수에 찢린 형국에 처한다. 이렇듯이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능동적인 그녀의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징표가 바로 그녀의 결연담이다. 그 외 남편 친구와의 시작(詩作)이나 이웃 산지기 여인을 돕는 과정 등에서 그녀의 적극적 태도와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살았던 그녀와 조우할 수 있다.

금원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대단한 여성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옥봉

만큼은 아니다. 그녀의 금강산 여행은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장애는 발생했겠지만 그것이 그리 치명적인 뭔가를 잃는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부친의 사랑이나 경제력,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금원이었기에 그러한 계획도 세우게 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금원은 기녀생활을 했기에 남성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남편의 기개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본인을 왕족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재주가 뛰어난을 인식해서 당당하게만 대처하는 이옥봉과는 대처 방법이 달랐을 수 있다. 이런 금원이었기에 소실이지만 거의 정실 대접을 받으며 끝까지 남편하고 해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옥봉, 금원에 비해 죽서는 부친이 왕족도, 명망있고 경제력이 넉넉한 양반도 아니었다. 이런 점이 그녀가 당당하게 나서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만의 성격이나 기질을 어느 정도 타고 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지속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죽서의 기질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성품일 수도 있지만 십중팔구는 가정환경이나 아버지의 지위에서 형성된 소극적 태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소극적인 소실에게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요구를 들어줄 조선조 양반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죽서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한다. 글과 도리를 아는 지성인인 그녀는 떼를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단지 속으로 삭이면서 소심하게 복수한다.

鏡裏誰憐病已成	거울 속 이 몸 이미 병이 깊지만 누가 가련히 여기겠는가	
不須醫藥不須驚	약도 필요 없고 놀랄 필요도 없네.	
他生若使君爲我	만약 다음 생에는 님이 내가 된다면	
應識相思此夜情	그리워하는 이 밤의 정을 알게 되겠지.	<寄畧>

시적 화자인 죽서는 자신이 기다리는 님이 다음 생에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자신을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의 병은

우울증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일 가능성이 많다. 할 일이 별로 없으니 무료하다.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 만족도 한계가 있다. 그녀는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아니 낮잠을 잔다기보다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자리 보존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다가 잠을 깨면 주로 한밤중이니, 달밤이면 달밤인 채로, 비나 눈이 내리면 그런대로, 주위는 적막하고 쓸쓸한 시공간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하는 일이 술을 마시거나, 울적하고 비감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소일하게 된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쇠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손수 밥을 해 먹고 채마밭이라도 가꾸었다면 보다 튼튼한 몸과 마음을 지니면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금원처럼 여행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마음의 병은 치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에 만족한다고 해도 근원적인 상실감이나 소수자로서 겪는 비애감은 세 여성 문인의 공통적 요소이다. 즉 인생을 허무하다고 보거나, 서출과 소실이라서 지나는 분노나 아쉬움 등은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인 것이다. 그러나 허무에 대한 세 사람의 인식은 조금씩 다르다. 즉 옥봉은 조원과 이별한 후 허무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금원은 세상을 거의 다 산 후에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죽서는 시종일관 유한한 인간의 삶을 허무하다고 보고 있다.

옥봉의 경우 허무는 이별과 관련되어 토로되고 있다. 즉, 인간 삶의 시간을 유한한 것으로 보고 허무감을 표현한다. 인생은 뜬구름처럼 허무하다는 인식이 작품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 허무는 이별이 개입되고, 이를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無窮會合豈秋思	무궁히 만나는데 어찌 근심 있겠는가	
不比浮生有別離	이별 겪은 뜬구름 같은 인생과 비교할 바 아니네	
天上却成朝慕會	하늘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늘 만나는데	
人間謾作一年期	사람들은 일 년 만에 만난다고 거짓말하네	<七夕>

뜬구름 같은 인생에 이별까지 첨가되니 더욱 허무하다는 감정이 시 분위기를 감싸고 있다. 님의 부재가 수반하는 적막감과 쓸쓸함은 아무리 옥봉이라도 견디기 힘들

있음을 후기 작품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제약이 주는 생활의 어려움은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위와 경제가 밀바탕이 되어야 예술 활동도 할 수 있음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이다. 옥봉의 이러한 허무감은 조원과 헤어진 후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만물 속에서는 모두가 꿈, 그것도 하룻밤 꿈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토로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금원의 ‘인생은 곧 꿈이다’라는 정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언급하게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허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살았든지, 힘들게 살았든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허무감을 금원이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저 베개를 베고 눈을 감고 신령의 경지에 들어 공공명명하여 감화함도 한 밤의 꿈이요, 크게 생각하면 천지의 일순(一瞬)인지라, 살아온 온갖 일이 다 허로 돌아가나니 이는 곧 평생의 꿈이다. 그러므로 황량몽과 같은 잠깐의 헛된 꿈을 꾸고 나서 비로소 평생이 길기는 하나 꿈임을 깨달으며 화서몽을 꾸고 나서 비로소 지극한 도가 무위임을 깨닫나니 평생의 긴 꿈과 하룻밤의 짧은 꿈이 무엇이 다르리오? 슬프다, 하루로 보면 하루가 꿈이요, 한 해로 보면 한 해가 또한 꿈이니 백년, 천년 예로부터 오늘까지가 다 꿈 아닌 것이 없으며 나 또한 꿈속의 사람으로 꿈속의 일을 적고자 하니 이 어찌 몽중몽이 아니랴.”

轉入香區境益新	찾아든 곳곳 경치 더욱 좋은데	
落花芳草恨前塵	떨어지는 꽃과 풍진 세상이 슬프기만 하다.	
山分樹色春如畫	봄빛에 푸른 숲 그림 같은데	
萬斛泉澗洞不貪	심 없이 쏟아지는 물소리 계곡에 넘치네.	
得月讀經之五夜	불경 외우는 깊은 밤 달은 떠서 밝고	
望鄉難化億千身	고향 바라보며 속세의 인연 끊지 못하네.	
深山落日翩翩鶴	깊은 산 속 해가 지니 학은 나래 치네	
俱是前宵夢裏人	이는 다 어젯밤 꿈속 사람 일이라.	<故鄉>

금원도 인생은 꿈이라고 보고 있다. 다 어젯밤 꾸는 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루가 꿈과 같듯이 인생 자체도 모두 꿈이라서 헛된 것이라는 의미를 표방한다. 이렇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비교적 행복한 생활을 했던 금원도 인생은 모두 꿈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허무감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월에 비해 죽서의 허무감은 애상성과 결합되어 더욱 깊게 표현된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허무한 감정은 아니다. 늘 살면서도 새록새록 느끼게 되었던 허무 사상이다. 따라서 허무한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녀의 뇌리에 가득 찬 생각은 바로 인생 허무, 인생이란 꿈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無情又遣今年去	무정한 세월 금년 또한 이렇게 보내니	
有力難回此夜窮	이 밤이 다하는 것을 힘으로 되돌리기 어렵네.	
萬古消磨應是夢	만고의 시름들도 한갓 꿈인 것을	
人生老在不知中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어나 늙어가네.	<除夕>

일 년 중 마지막 저녁을 맞아 금년도 허무하게 보냈음을 자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누구의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무기력함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실망이 잘 느껴진다. 따라서 모든 근심이나 슬픔도 사실 꿈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위는 조금 처량한 생각이 들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실 낡고, 죽는 것도 한갓 꿈이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내적 인지의 침묵도 감지되고 있다.

重簾寂寂雨絲絲	이슬비 내려 발 첩첩 내리니 적막하기만 한데	
楊柳春深病不知	버들 따라 봄 깊어지니 병 난 것을 알지 못하네	
嫩草初齊風淡淡	새싹은 가지런히 나서 바람에 담담하고	
嬌鶯欲轉日遲遲	아름다운 앵무새 재잘 대지만 하루 해 길기만 하다.	
最是無聊看月夜	달빛 바라보는 밤도 몹시 무료하기만 하고	
那堪虛度賞花時	꽃구경하는 시절 어찌 헛되이 보낼 것인가.	
從古浮生俱逆旅	예로부터 덧없는 인생을 여관살이에 비유했지	
如何辛苦忍相思	상사의 괴로움 참는 것이 어떠하던가	<春日書懷>

허무 사상이 뇌리를 감싸니 새싹이나 아름다운 앵무새, 달빛 밝은 밤, 꽃구경 등이 모두 별 것 아니라는 토로이다. 어차피 인생은 영겁의 세월 속에서는 여관살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데 상사의 괴로움이 뭐 별 것이겠는가? 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지독하게 세상을 허무의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어짐의 괴로움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기에 더욱 안타깝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나 의식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죽서의 능력이 돋보인다. 이 경우도 금원의 경우와는 차이가 많다. 금원은 오래된 누렇게 바랜 액자를 보고도 ‘금빛’을 떠올리며 상서로움이 지극하다고 표현한다. 사람의 마음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물이 얼마나 달리 보이는지를 금원과 죽서에게서 확연히 찾을 수 있다.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 3인의 삶과 작품 경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옥봉의 삶의 궤적, 즉 출생, 결혼, 결혼 파기, 비장한 죽음 등을 천착한 결과 옥봉은 준 영웅 해당되는 삶을 살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는 옥봉의 객관적 측면 보다는 옥봉의 내적 욕망에서 기인하는 점이 컸다. 옥봉 작품의 특성은 형이상학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과 시공간을 응축, 확대하는 기법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즉 옥봉의 욕망은 심층적 층면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이나 하는 일, 즉 관료의 삶을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자각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모방 욕망 의식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관리가 욕망의 주체인 옥봉은 그 대상인 시작에 더욱 몰입하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위인송원>이었다. 이는 결국 옥봉의 심연 속에서 욕망하는 관리의 일을 제대로 수행한 완벽한 모습을 반영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옥봉의 현이상학적 욕망은 시 텍스트에서 시공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시공간을 응축하고 확장하는 기법은 결국 옥봉의 거침없는 자의식 발로의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의 경우, 금원의 「호동서락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이 공존하고 있었다. 즉 설화나 역사, 당대 풍습, 시, 민속, 기행문 등이 모두 들어있는 일종의 종합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보고 들을 것을 섬세하고도 상세히 기술해 놓았기에 당시 의 식주나 풍습 등 민속 자료적 가치도 큰 작품집이다. 또한 작품 경향은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드러나고 있었으며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작품을 상당히 화려

하게 채색하고 있었다. 시종일관 긍정적이고 밝았다. 자연을 노래할 때에도 다양한 색상을 넣어서 작품을 채색시키는 것은 금원 작품의 특징 중 하나였다. 주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은색), 노란색(금색) 등 화려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색채적 특성은 사실 시뿐 아니라 「호동서락기」 전체 모든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색이다. 색상이 화려하며, 부정어보다는 긍정적 시어가 주로 등장하기에 작품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화려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긍정적인 시각이나 마인드가 작품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금원 작품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상승이나 분출 이미지이다. 이는 마치 금원 자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싶은 내적 욕망의 대치적 표현일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그녀의 주장이 관철된 시점부터는 그녀의 원망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조선조 남성 양반을 지향하는 원초적 욕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딜레마일 것이다.

죽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1) 허무적 달관 철학과 2) 시인(詩人)의 의무 및 자긍심, 3) 나그네 의식 및 향수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죽서는 인생은 유한한 나그네이기에 우주 시간 속에서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당황스러움은 매사 부정적이고도 비관적인 시각에 놓이게 한다. 아무리 철학관이 뚜렷하고, 스스로 의연하려고 해도, 삶은 나그네일 뿐이라고 되 뇌여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비관적 허무주의 삶을 표명하지만 그러나 죽서는 시작에서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운다. 따라서 죽서의 욕망은 시를 향하고 있었으며, 정말 원하는 목적은 명예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시적 재능을 발휘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규명해 나간다. 그러나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현실적 장벽을 객관적으로 의식하면서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 외 죽서는 고향을 향해 대해 끊임없는 미련을 보이고 집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죽서에게 고향은 부평초 같은 그녀를 뿌리내리게 했던 장소이며, 가족과 행복했던 유년시절이 있던 장소이고, 나그네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죽서도 서녀이며, 소실이라는 이중 결핍에 놓여있는 인물로서 젠더로서의

여성이 지닌 불평등에 노출되는 한편 서얼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서로 겹치면서 그녀가 견뎌야 하는 무게는 몹시 무거웠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이 그녀를 비관적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기여했겠지만, 죽서는 이러한 삶의 무게를 우주의 영겁 시간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철학적 사유로 무장해서 자신의 길을 힘겹게 걸어간 조선조 여성 지식층이었다.

결론적으로 강원 서출 여성 문인들의 계보적 정의를 아주 응축해서 제시한다면, 강원 서출 여성 문인들의 특성은 서출과 여성, 그리고 소실이라는 이중적인 소외자라는 비극적 징표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지성인이라는 것과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점, 또한 글을 쓰는 문인이라는 것에서 자긍심과 긍지를 찾으며 살았던 여성들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또한 강원도의 풍광을 사랑해서 이 지역에 정을 주거나,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강원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강원서출 여성문인들의 계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목화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작가		
	이옥봉	김금원	박죽서
출신 및 활동지역	충북 및 강원도	강원도 및 한양	강원도 및 한양
출신성분	서출(부친-왕족)	서출(부친-양반)	서출(부친-양반)
부친 이름 및 우호 관계	왕족 이 봉 상당히 친밀, 든든한 후원자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대의 명문 사족일 가능성이 짙음. 친밀, 든든한 후원자	선비 박종언 딸을 아끼고, 인정하고 이끌 어 줌.
사회적 지위	소실	소실	소실
편과의 관계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내쳐짐	우호적, 백년해로	시종일관 가끔 해후
고향관	고향 의식은 작품 속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리 크 지 않지만 고향을 떠나 떠도는 상황을 부평초에 비유.	현실의 불만족이 어렸을 때 행복했던 고향에 대한 향수로 투영됨. 고향이나 형제들을 몹시 그리워함.
성품	당당함, 활달, 적극적, 자긍심 강함	활달, 적극적, 명랑, 긍정적 마 인드	의기소침, 소극적, 내성적
지향점	양반 관리되기를 욕망했던 비극 적 준 영웅 입장. 당당하고 강 한 성품. 남편과 이별 후에는 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장렬한 최후를 선택할 정도의 의지를 지님. 왕족이라고 생각했던 자의식에 서 오는 자신감	많은 부분 자신의 뜻을 관철한 웅골찬 지성인 입장. 유연성 많 음. 현명하게 대처	인생 허무를 깨우친 태도로 매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 고 소극적으로 대처. 인생무 상의 관념으로 무장한 철학자 입장
인생관	인생과 자신의 출신(왕족)과 능 력에 대한 자신감 충만. 하지만 현실에서 좌절되면서 비극성 극 대화. 실제로 정치하기를 희망 하고 욕망함. 양반 남자이기를 희망함	허무 의식 있지만 매사 적극적 으로 성취하려는 적극성 극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하고자 하는 긍정적 마인드. 현실적으 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배경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봄. 양반 남자이기를 희망함.	허무함과 좌절을 철학적 인생 관으로 무장해서 견뎌, 그래 도 삶의 쓸쓸함에 자조적. 모 든 것은 無이며, 인생은 여관 살이라고 치부. 양반 남자이기를 희망함.

현실 속 그녀들의 자긍심을 부여해준 활동	창작활동(한시)	창작활동(기행문, 한시, 역사, 민속, 설화 등 다양한 종류의 글)	창작활동(한시)
작품에 대한 금지	절대적. 본질 자식과 자신을 묶어서 자신들 모자의 글솜씨는 귀신이 곡을 할 정도의 천하의 문장이라며 금지가 대단.	절대적. 「호동서락기」를 출간하는 이유를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알리려는 의도에서라고 기록함. 자신의 글에 대해 자신감 넘침.	절대적, 은근히 자신의 글솜씨를 자랑함, 삶의 반은 바느질이고, 나머지 반은 글을 썼다는 시구를 통해 많은 글을 지었음을 은근히 자랑함.
작품 종류	시	기행, 시 등 다양함.	시
최종 세계관	인간 삶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대비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 인생을 뜬 구름이라고 인식, 장렬한 최후를 선택. 어려운 처지에서 인생 허무를 생각함.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인생 마지막에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인생 허무감. 인생은 꿈속의 꿈이라고 언급. 인생 말년에 인생이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음.	인생은 우주 속에서 여관살이에 해당되는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인식. 영겁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은 찰나에 해당된다고 시종일관 늘 주장함.
성향	능력 과시, 당당함과 자존감이 지나침. 좌절 후에는 비장한 최후를 선택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님.	긍정적, 행복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지님, 현실 만족에서 오는 유연함과 자부심이 지배적임.	자신이 작가적 능력 있음은 인정하나 소극적 대처, 소극적 성품을 지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비애감이 지배적. 이것을 철학적 명제로 무장해서 대처하고자 함.
작품 특성	시공간을 응축하는 기법 탁월. 문체는 깔끔. 시적 화자인 옥봉은 관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신을 왕족으로 치부하기에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음.	현란한 색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작품을 긍정적, 밝은 분위기로 조성. 화려하고, 긍정적이며, 상서로운 시어를 주로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음. 주변을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한 후 이를 상세히 기술하는 능력이 뛰어남. 역사나 전고, 설화, 민속 등에 관심이 많음.	긍정적 시어를 부정어와 결합시키는 기법으로 시적 화자의 심정을 대변시킴. 권태와 무료를 작품 창작으로 대처시키는 능력 뛰어남. 이런 여건으로 다작할 수 있었음. 시어나 비유 등이 반복적인 경우 많음. 기복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역동적으로 생활하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함.

IV

마무리

본 연구는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삶은 어떠했는지, 각 작품 내용과 시적 특성은 무엇인지, 이들 서출 문인 여성들의 작품의 공통점과 변별점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서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서출 여성 문인 계보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이옥봉, 김금원, 박죽서이다.

우선, 옥봉의 삶의 궤적, 즉 출생, 결혼, 결혼 파기, 비장한 죽음 등을 천착한 결과 옥봉은 준 영웅 해당되는 삶을 살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옥봉의 객관적 측면보다는 옥봉의 내적 욕망에서 기인하는 점이 컸다. 즉, 옥봉의 욕망은 심층적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이나 하는 일, 즉 관직의 삶을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자각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은 ‘사람-문명인(조선인)-남자-부귀함’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조건임을 내세우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극렬하게 표출했다. 그녀의 욕망은 한 인간으로서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것인데 착종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함에 상당히 실망하고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었다. 사회적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여성들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작품 속 시적 화자인 금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결국 금원의 불만은 조선조 사대부가 되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었다. 죽서의 경우는 소극적인 성품으로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현실적 장벽을 객관적으로 의식하면서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반영했다. 이런 점에서 호도 반아당(半啞堂)이라고 지었다. 그 외 죽서는 고향을 향해 끊임없는 미련을 보이고 집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죽서에게 고향은 부평초 같은 그녀를 뿌리내리게 했던 장소이며, 나그네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작품 세계를 보면 옥봉 작품의 특징은 1) 형이상학적 욕망과 현실과의 교차점, 2) 시공간 응축 및 확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은 자신이 언급한 부조리적 상황과는 달리 작품을 관통하는 특징은 ‘긍정과 밝음의 미학’으로서, 다양한 장르와 섬세한 표현, 긍정적 마인드와 현란한 색채 기법을 보이고 있었다. 거기에 비해 죽서는 ‘에피파니의 미학’으로서, 허무적 달관 철학, 시인의 의무 및 자긍심, 나그네 의식 및 향수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1) 고향이 강원도이거나 강원도에서 살았던 문인 2) 서출 3) 소설로서 자녀가 없음 4) 뛰어난 능력의 문인 5) 부친의 절대적 지지 6) 그녀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모두 글 쓰는 능력으로서, 이는 조선조 선비 못지않은 지성을 갖추었다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의 변별점으로는, 1) 자아나 성격 형성에 부친의 지위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옥봉 부친은 왕족이었기에 옥봉은 왕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 금원의 부친은 지위가 상당한 양반층으로 추정되며, 조선조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다. 죽서 부친은 한미한 양반으로서 죽서는 매사에 소심한 편이었다. 2) 성품 측면으로 볼 때, 옥봉이 가장 적극적인 성품이었고, 그 다음 금원, 죽서 순이었다. 3) 옥봉의 자존감은 당대 시대에서는 용납되지 않았기에 결국은 비극적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금원은 유연한 처세술로 안온한 삶을 끝까지 영위했으며, 죽서는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허무 의식에 사로잡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녀들은 공통점과 변별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녀들은 모두 이중적 결핍을 지닌 가운데 저항적 세계관을 각자의 방법대로 표출하면서, 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삶을 치열하고도 당당하게 살았던 강원도 서출 여성 문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보고서·논문 및 발표자료

- 강명혜(2013), 「한국고전문학의 심층적 연구」, 학고방.
- 강명혜(2013),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 예술」 11, 한국문예연구소.
- 강명혜(2015), “허난설헌 작품의 미학적 특징”, 「온지논총」 42, 온지학회.
- 강명혜(2019), “실존과 욕망의 시학, 이옥봉 삶과 문학”, 「한국문학과 예술」29집, 한국문예연구소.
- 김관식(2006), “朝鮮朝 江原 女性 漢詩文 小考”, 「강원문화연구」25, 강원문화연구소.
- 김경미(2001),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 시사”, 도서출판 여이연
- 金美蘭(1996), “朝鮮後期 女流文人 研究”,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 김미선(2019), “선조들의 금강산 기행문학과 그 교육적 활용”, 「어문논총 35호, 문학언어학회.
- 김소원·권태연·이영춘(2012), 「역사 속 원주의 여성인물」, 원주문화원
- 김승희(2011),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 김여주(2003), “조선후기 여성문학연구 3-박죽서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 김용숙(1982), “閨怨과 別恨考 : 漢詩를 통해 본 李朝女人의 恨 分析”, 「아시아여성연구」, Vol. 2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김지용(1977),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성격”, 「아세아 여성연구」 16,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 김풍기·허남욱(1983), “박죽서의 삶과 문학세계”, 「조선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 김현(1983), 「프랑스 비평사」, 문학과지성사.
- 들뢰즈·가타리, 조한경 옮김(1992),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카프카론」, 문학과지성사.

- 박무영(1999),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Vol.- No. 2.
- 박무영(2004),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 박미현(2007), 「테마로 읽는 강원여성문화사」, 강원도민일보 강원여성연구소.
- 박지연(2006), “이옥봉 한시 지도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민자(2011), “『湖洞西洛記』一考”, 『국어문학』, 50호.
- 서거정(1975), 『東文選』 태학사.
- 손앵화(2004), “조선조 여성 되기의 새로운 모색”, 『국어국문학』, 39호, 국어국문학회.
- 신희(1973), <晴窓軼談>, 『詩話叢林』 본, 아세아문화사.
- 양희(2008), “三湖亭詩壇의漢詩 研究”, 중부대 박사학위논문.
- 엄선용(2014), “한문에 실린 한시 텍스트 수록 양상 분석”, 『한문교육연구』 42권, 한국한문교육학회.
- 여홍상(1997),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 윤국형(1996), <閨韶漫錄>, 『한국시화총편』 제2권, 태학사.
- 원주연(2006), “박죽서 한시문 연구”, 『강원문화연구』 25, 강원문화연구소.
- 원주연(2009), “박죽서 한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주연(2011), “박죽서 시에 나타난 그리움의 세계”, 『한국고전연구』 22, 한국한문고전학회.
- 이광호(2011), “李玉峰 漢詩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능화, 김상화역(1978), 『조선여속고』, 대양서적.
- 이수광(1996), 『芝峯類說』 권 하, 수정증보 한국시화총편 제2권, 태학사.
- 이전문(1990), “한국인의 풍류11:이옥봉-시재 뛰어난 여류시인”, 『월간 경영계』 154권,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종문(2011),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한국한문학연구』, 47권, 한국한문학회.
- 이효숙(2007), “<호동서낙기>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이혜순(2005), 『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기연(1992), “이옥봉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만편(1988), 「옥봉집」(「嘉林世稿」 부록).
- 장지연(1992), 「大東詩選」, 학민문화사.
- 장인에(2007), “삼호정여인들의 한시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25집, 세종어문연구회.
- 정숙인(2018), “박죽서의 시 세계 연구”, 「문화와융합」 40(7), 한국문화융합학회.
- 차옥덕(1999), “김금원 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15, 고전문학연구회.
- 최선경(2013), 「호동서락을 가다」, 옥당.
- 최세정(1983), “蘭雪軒 梅窓 · 玉峰 漢詩 比較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崔承洵(1996), “江原道 女性 漢詩文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창간호, 강원향토문화연구회.
- 최승순(1998), “강원도 여성 한시문 연구”, 「강원도 조선시대 강원여성문집」, 강원도.
- 최연(2018), “조(朝)·청(淸) 여성시사(女性詩社) 비교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28호, 한국문학과예술연구.
- 태선경(1999), “李玉峰 漢詩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응백 편저(2009), 「이옥봉의 몽혼」, 휴먼 앤 북스.
-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1975), 「古代女流文學選」, 대제각.
- 한명희(2007), “박죽서의 문학 정신과 시”, 「강원여성문학」 4호, 강원도여성문학인회.
- 함복희(2007), “박죽서의 삶과 문학”, 「강원여성문학」 4호, 강원도여성문학인회.
- 허균(1593), 「鶴山樵談」, 「한국문집총간」 74권, 민족문화추진회.
- 허경진 엮음(1990), 「玉峯 · 竹西 詩選」, 평민사.
- 허미자 편(2001), 「조선조여류시문전집」, 태학사.
- 홍만중(1973),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옮김(1976),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역(2002),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 베네데토 크로체, 이해완역(1975), 「크로체의 미학」, 예전사.

- 조셉 치아리, 이광래 옮김(1975), 「20세기 프랑스 사상사」, 종로서적.
- 한스 마이어호프, 김준오역(1987),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 **보도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 문화유산채널(<http://www.k-heritage.tv>)
- 다음백과사전(<https://100.daum.net>)
-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the Women born of concubine in Gangwon Province

Kang, Myeong-Hye

This paper's aim was to pave the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a genealogy of female writers who came out of the province through studying what the life was like in this study of female writers born of concubine from Gangwon Province, What the contents and poetic characteristics of each work are, and what the women's literary works have in common and differentiate. Lee Ok-bong, Kim Geum-won, and Park Juk-seo are the subjects of study in this paper.

First of all, after looking into the trajectory of Okbong's life such as birth, becoming a believer in Buddhism, annulment of Buddhism, and heroic death, it is able to conclude that Okbong lived a life equivalent to a quasi-hero. It is largely due to Okbong's inner desire rather than to the objective aspect of Okbong. In other words, Okbong's desire to become status and role of a father and a husband turns out to have dreamed of a career in government service in depth. However, this is not a superficially conscious and purposeful desire, but rather a subconscious oriented desire of imitation. Geumwon recognized

that 'people - civilized man(Joseon's man) - male - wealth' is to live a human's life and expressed his dissatisfaction with it in a very severe way. Her desire is to live as a human being like a man, but she was deeply disappointed that she could not speak her mind in the established reality, and she kept on talking about it. She appears to be resisting social power. Compared to other women expressing their desires indirectly through their works, she has outspoken in her point of view. Jukseo was a very passive person. Instead of expressing her desire in a positive way, she took an objective view of the practical barriers and reflected her self-mocking and cynical attitude in her works. In this sense, she called herself Banahdang, meaning of half mute dwelling. Other than that, Jukseo showed persistent attachment to his hometown.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Jukseo's hometown was the place where she took root like Bupyeongcho, a floating weed and it was a device that allowed her to escape from the feeling of wanderer

Looking at the world of work, Okbong's works are 1) the intersection of metaphysical desire and reality, 2) the space-time condensation and expansion. Features that penetrate the work of Geumwon are 'aesthetics of positivity and brightness', showing a wide variety of genres, delicate expressions, positive minds and dazzling color styles. By comparison, Jukseo was characterized by Epiphani's aesthetics, that is, a poet's duty and pride, a sense of traveler's consciousness and nostalgia.

Similarities of three poets are 1) the writers who was born or lived in Gangwon Province, 2) the Women born of concubine, 3) concubines who had no child 4) writers of outstanding ability 5) father's absolute support for them, 4) writing ability as power to stand up for themselves, which means that they had pride in having as much intelligence as any other scholar of the Joseon Dynasty.

As differences between them, 1) their personalities vary according to their father's position. Okbong's father was a royal family and Okbong had the pride of the royal family, while Geumwon was from a wealthy and noble class and achieved what she wanted. Coming from humble family background, Jukseo always lacked confidence in everything 2) Okbong was the most aggressive in character, followed by Geumwon and Jukseo. 3) Okbong's pride was unacceptable and ended his tragic life. Geumwon led a peaceful life with flexible way of life, and Jukseo was always frustrated by his passive attitude and became obsessed with nihilism leading to an unhappy life.

These women share and differentiate between them, but they can be defined as women in Gangwon Province who lived their lives fiercely and proudly as writers, expressing their own rebellious ways of looking at the world.

강원학 연구보고 7

강원 서출 여성들의 삶과 문학세계 연구

A Study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the Women born
of concubine in Gangwon Province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발행인 : 육동한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전화 : (033) 250-2980

홈페이지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서출 여성들의 삶과 문학세계 연구

A Study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the Women born
of concubine in Gangwon Province

강명혜

Kang Myeong-Hye

약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강원대학교 산촌문화연구센터 연구원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TEL. 033-250-2980, 2983
<http://www.gangwonstudies.re.kr>

ISBN 978-89-5705-756-8 93810

